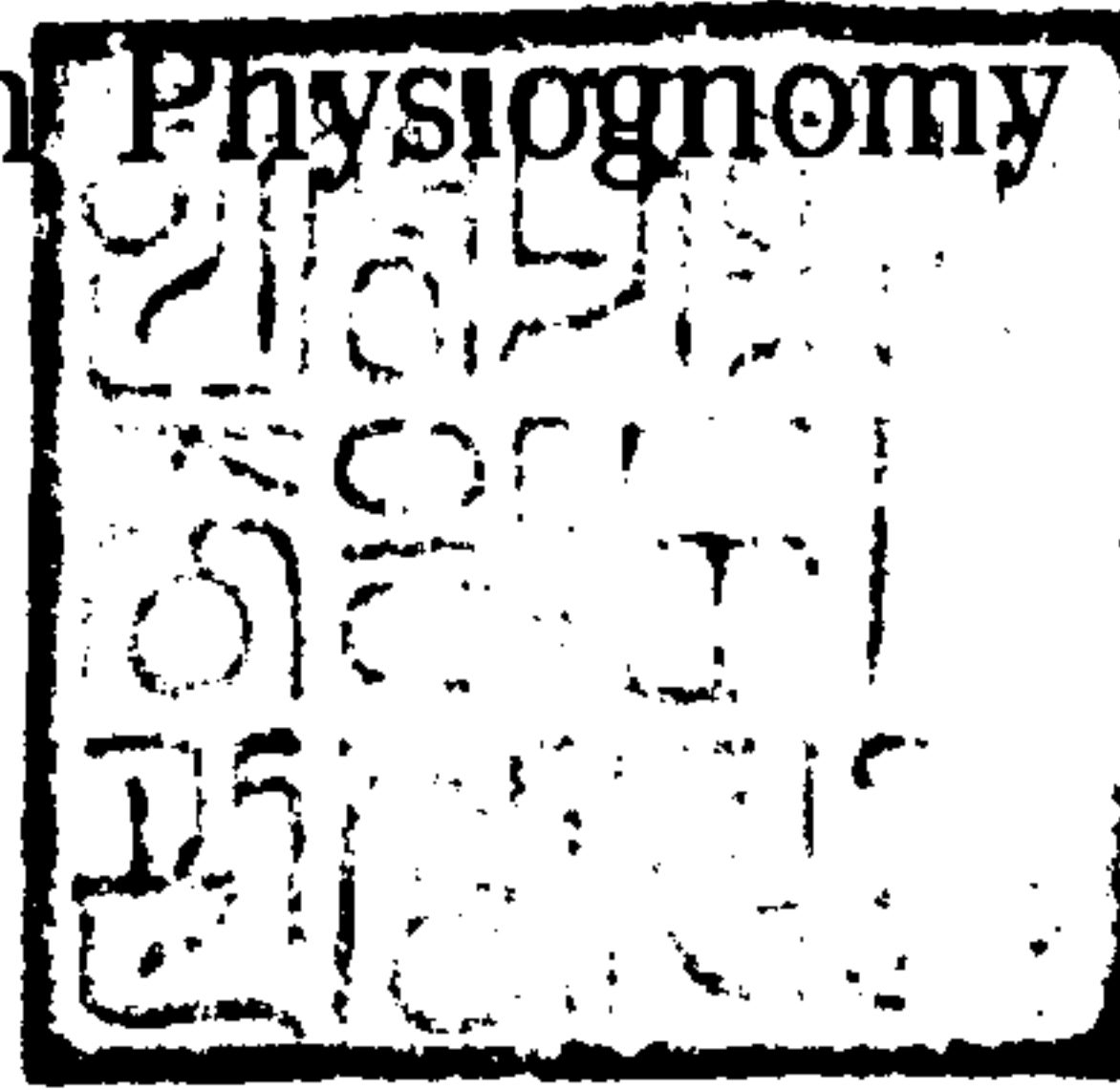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張禹植

눈 메이크업이 顔面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ffect of Eyes
Make-up on Physiognomy in Face



2000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權 敬 愛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張禹植

눈 메이크업이 顔面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ffect of Eyes
Make-up on Physiognomy in Face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8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 藝術學科

扮裝 藝術學專攻

權 敬 愛

權敬愛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0 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II. 메이크업과 인상학의 일반적 고찰	4
1. 메이크업의 개념과 의의	4
2. 인상학의 범주와 인상의 기본적 요소	9
III. 얼굴의 이미지와 눈의 형태분석	24
1. 얼굴의 이미지 분석	24
2. 얼굴의 형태 분석	31
3. 눈의 이미지와 분석	50
4. 눈의 형태 분석	54
IV. 인상과 관련한 눈 메이크업과 교정의 테크닉 분석	69
1. 눈 메이크업의 기본 테크닉	70
2. 눈 형태에 따른 인상과 기본적인 유형별 교정	79
V. 結 論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表 目 次

표 1. 이상적인 얼굴형	38
표 2. 눈의 형태 분류	60

그림 目 次

그림 1. 직업과 관련된 얼굴 모형	34
그림 2. 인상학으로 본 얼굴	35
그림 3. 호감형	36
그림 4. 평범형	36
그림 5. 비호감형	36
그림 6. 12궁 부위도	37
그림 7. 얼굴부위 명칭	37
그림 8. 얼굴의 형태	41
그림 9. 둥근형	42
그림 10. 타원형	42
그림 11. 사각형	42
그림 12. 역삼각형	43
그림 13. 다이아몬드형	43
그림 14. 긴형	43
그림 15. 얼굴의 균형	45
그림 16. 얼굴의 황금비율 메이크업 기본 원리	47
그림 17. 얼굴길이에 관한 비교 분석	49
그림 18. 눈의 외형	54
그림 19. 인상으로 본 눈의 구조	55
그림 20. 눈의 각 부의 명칭	56
그림 21. 눈의 형태 분류	65
그림 22. 눈썹의 형태	67
그림 23. 눈썹의 기본 위치	71
그림 24. 아이샤도우 기본 터치 법	72
그림 25. 아이라이너 펜슬을 이용한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	74

그림 26.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1)	75
그림 27.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2)	76
그림 28. 균형안	79
그림 29. 큰 눈	80
그림 30. 작은 눈	81
그림 31. 쌍꺼풀이 있는 눈	82
그림 32. 쌍꺼풀이 없는 눈	83
그림 33. 속쌍꺼풀 눈	84
그림 34. 미간이 넓은 눈	85
그림 35. 미간이 좁은 눈	86
그림 36. 안구가 튀어나온 눈	87
그림 37. 안구가 움푹 들어간 눈	88
그림 38. 둥근 눈	89
그림 39. 가느다란 눈	90
그림 40. 눈꼬리가 올라간 눈	91
그림 41. 눈꼬리가 처진 눈	92
그림 42. 짙은 눈	93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는 외모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메이크업(Make-up)으로 자신의 외모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 한다. 특히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효과, 즉 자기의 이미지가 좋아짐에 따라 그 가치는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메이크업은 시대와 문화권내에서의 통용되는 미의 개념에 부합되도록 선천적으로 타고난 용모를 수정·손질함으로써 심리적인 자신감과 안정을 주며, 여기에 매체로 수용되는 것이 화장품이다¹⁾. 현대사회에서의 메이크업은 그 사람의 성별·연령·건강·품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복·헤어스타일 등과 함께 새로운 색상·형태·질감을 창조하는 오늘날 토탈 패션의 한 분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메이크업이 단순히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인상에 접목시켜 타고난 얼굴의 운세를 변화시키게 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개인의 성격과 스타일의 표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까지 표현해 주고 있어 적절한 메이크업은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큰 몫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외모 중에서도 특히 얼굴을 통한 일차적인 판단이 가장 많은

1) 이화순, 한국여성의 Make-Up 造形性에 관한 研究 -얼굴형에 적합한 化粧色調와 線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3, 27쪽.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굴은 선천적인 외모는 물론, 표정이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메이크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옛부터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관심의 초점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인간 개인의 운명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였다. 한 개인의 인상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에게 어떤 공통의 이미지를 형성한다²⁾.

메이크업과 인상에 대한 과거의 논문들은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고³⁾, 메이크업과 인상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왔기 때문에⁴⁾ 메이크업이 인상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외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을 창출하기 위하여 메이크업과 인상의 기초개념을 고찰하고, 메이크업에 따른 눈의 형태를 집중 분석하여 눈 메이크업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존문헌과 국내외 학술논문 그리고 저널 등을 통하여 일반이론과 함께 우리나라의 메이크업(Make-up)에 따른 인상의 효율성 등을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문헌뿐만 아니라 실무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사람의 인상을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관상(觀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상이라 하면 주로 얼굴만을 보는

2) 오근재, 영상기호로서의 눈의 표정에 관한 연구: 인상학적 담론에 근거한 얼굴형과 구조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1999. 2, 123쪽.

3) 李炘河, 눈썹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48~49쪽.

4) 왕석구, 왕석구의 톡톡 튀는 메이크업, 진리탐구, 1999, 149~151쪽.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관상은 얼굴뿐만 아니라 수상과 골격, 머리, 팔, 다리, 가슴, 등, 배, 허리, 모발(털), 또 국부까지 몸 전체를 골고루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상의 범위를 사람의 얼굴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메이크업과 관련을 갖고 있는 인상의 범위를 사람의 얼굴로 제한하였으며 인상이 갖는 철학적인 방향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주로 메이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고, 2장에서는 메이크업의 개념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한 인상학의 범주와 인상의 기본적 요소, 즉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얼굴과 눈의 형태와 이미지 분석을 위해 생활 속의 인상판단과 인상학적 얼굴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얼굴 형태를 인상학적 형태분석과 메이크업에서 보는 얼굴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눈의 이미지와 형태 분석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눈의 이미지 분석에 따른 인상학적 분석, 의학적 분석, 영상기호로서의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눈의 형태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눈의 부분별 명칭과 인상학과 메이크업에서 다루는 눈의 형태를 눈의 대소, 어미의 각도, 눈의 균형성 여부, 양안의 간격과, 쌍꺼풀의 유·무, 두 눈의 다른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표적인 눈의 형태를 15가지 모양으로 분류하여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인상을 바꾸는 눈 메이크업의 실재를 위해 먼저 눈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기법, 즉 아이 샤도우, 아이라인, 마스크라, 눈썹을 설명하고, 또한 눈 형태에 따른 인상과 유형별 교정을 눈의 크기, 쌍꺼풀의 유무, 미간의 넓이, 안구의 돌출, 눈의 모양, 눈 꼬리의 모양, 짝 눈 등을 근간으로 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기본적인 유형별 교정의 변화에 대해 정리를 했다.

5장은 이상에서의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종합된 내용을 정리하고, 눈 메이크업이 사람의 인상을 유형별로 교정, 변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메이크업과 인상학의 일반적 고찰

1. 메이크업의 개념과 의의

1) 메이크업의 개념

영어의 메이크업 (Make-up)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쥬(Maquilage)' 등으로 표현한다⁵⁾. 현재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는 호칭이 20세기 미국의 할리우드 전성기 때 맥스 팩터(Max Factor)가 대중화 시켰다.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랏슈(Richard Crashou)가 시의 구절에서 “메이크업이란 여성의 매력을 높여 주는 행위”라 하여 최초로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단어는 대중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선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페인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1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16-17 세기를 통하여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라 불렀고 그 후에 백납 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이라고 하였다. 프랑스어인 '마꾸아쥬'는 원래 분장을 뜻하는 연극용어였으며 투알레트는 1510년경 영국에 전해져 '토일렛'으로 변한 말로서 화장을 포함한 치장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메이크업은 인간만이 하는 특유한 것으로 인간이외의 고등영장류는 메이크업하는 일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피부의 외관이나 색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은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사회적 욕구의 표출로서 피부에 색을

5) John Ligget, The human Face, New York: Stein and Day, 1974, p.51.

칠하거나 문신을 넣기도 하고 형태를 바꾸기도 해 왔다.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화장품과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개성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의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메이크업의 의미는 인간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행위뿐만 아니라, 미의식 속에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업을 포함하는 것이다⁶⁾.

또한 메이크업은 피부 및 근육의 생리기능을 높여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성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⁷⁾.

이상 메이크업의 개념을 넘어서 20세기의 메이크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외적인 치장의 수준에서 나아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인간의 내면까지 관리하는 위생학적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메이크업은 인체의 일부에 색상을 부여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뿐 아니라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고유 미와 개성미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얼굴의 상처, 흉터 등 여러 가지 결점을 커버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가능케 한다. 메이크업은 이러한 정신적 건강함을 주는 것 뿐 만 아니라 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⁸⁾. 따라서 본래 타고난 얼굴을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하는 것이 얼굴의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겠다.

6) 강병석,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4, 7쪽.

7) 박정훈,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개성 연출을 위한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0, 6쪽.

8)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15쪽.

2) 메이크업의 의의

오늘날 메이크업이 토탈 패션 개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세기의 현대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복잡하고 대중화된 현대사회의 인간은 타인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서로의 안면인지를 떠난 대인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토탈 패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나아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오늘날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미적 본능중 하나인 메이크업은 신체보호, 종교적인 욕구 충족,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에 와서 인간들은 외모를 통해서 성, 연령, 문화, 지위, 직업, 사회적 역할, 개성, 교제 태도, 느낌 등을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자신을 잘 어필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의 토대가 되는 피부는 감정 표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격노, 수치, 공포를 느낌에 따라 피부는 새파랗게 되거나 붉어지거나 땀이 나기도 하고 털이 곤두서는 등 다양하게 변화한다. 또한 자기 표현의 다양한 형태로 투쟁, 연애, 복수 등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한다.

한편,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pocker face)고 한다. 다행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여러 가지 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색을 화사하게도, 창백하게도, 또 건강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병색이 있는 사람이 이를 커버해 주는 제품을 사용하

여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고 기미, 주근깨, 흉터 등을 감추어 주는 등 겉모습을 바꾸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해준다. 즉, 메이크업은 외적 매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다 높이 평가하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메이크업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나 한시간 이내로 매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메이크업 후 자기 자신이 육체적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보인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외출하고 싶다는 사회적 자신감을 갖는다. 이처럼 메이크업은 단순히 외양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자신감을 주고 보다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인생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들기도 한다.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결과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직장에서도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되고 인기가 있으며 사교적일 뿐 아니라 강한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매력적인 사람은 확실히 능숙하게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음 자체가 매력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젊으면서도 매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젊음도 매력도 없는 것은 심리적 황폐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매력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을 가꿈으로써 얻어지는 매력적인 자세는 바로 젊음과 직결되므로 항상 탄력 있는 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매력이 겉모습에만 국한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인 충실함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을 동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영이나 외식(外飾)이 아니라 참된 아름다움만이 자신은 물론 가정, 직장,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누구나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편견을 버리고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인간애에 기본을 둔 자세가 요구된다. 혹 자신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개개인에게 준 특성을 잘 깨달아 자신감을 갖고 외면과 내면을 잘 메이크업하여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해 볼일이다.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 즐거운 생활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얼굴 모양, 표정은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자신을 보다 자기답게 나타내주는 얼굴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인상관리 방법, 즉 의도적인 표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은 맨 얼굴의 자신과는 다른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다 활발한 대인행동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발한 대인행동이 그 여성에게 자신감이나 자기 충족감을 부여하는 파급적 효과도 생각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이란 자신을 표현하는 거울과도 같아 외형적인 미적 효과 외에 타인과의 의사 전달, 예의 표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메이크업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개성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의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물리적 역할로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표현과 미화효과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심리적 역할로 인물의 성격, 사고방식, 가치추구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면의 묘사를 위해서이고, 셋째는 사회적 역할로 무언의 의사전달(인상), 사회적 관습 및 예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인간에게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인상학의 개념과 인상의 기본적 요소

1) 인상학의 개념과 범주

동양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역술은 수상학, 골상학, 족상학, 모상학, 인상학 등의 시각적 판단 분야와 음양오행사상을 활용하여 인간의 운세를 판단하는 사주학이라는 비 시각적인 분야로 나뉜다. 사주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운세판단이고 수상에서는 두뇌활동과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과 정서의 판단은 인상학에서 다룬다.

사람의 상(相)을 관찰하여 복분, 명분, 재수, 운수, 성격, 진로, 인간관계와 같은 운명을 판단하는 일이 관상이다. 여기에서 상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며, 관찰에서 얻어진 결과도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흔적을 살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찰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한다.

예부터 인상학은 지도자의 학문으로, 제왕이나 재상들이 필수적인 학문 분야로 널리 배워 왔다. 또 인상학을 배우면 자기의 좋은 얼굴을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인상학은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과학화되고 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흉악범의 몽타주를 작성할 때도 인상학은 크게 활용되고, 한방 의학(韓方醫學)에서 불문진법(不聞診法)의 하나로 관형찰색(觀形察色)을 응용하고 있다. 또 현대의학에서도 진단 시 인상학을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을 이끄는 기업인이나 경영자가 상학(相學)에

관한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생활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인상학은 단순한 운명 예지의 기술(技術)뿐만 아니라 생활과 교양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인상(人相), 즉 사람의 상을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관상(觀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관상이라 하면 주로 얼굴만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얼굴뿐만 아니라 수상과 골격, 머리, 팔, 다리, 가슴, 등, 배, 허리, 모발(털), 또 국부까지 몸 전체를 골고루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동양 인상학은 통계학문으로서 얼굴을 작은 우주로 알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인상의 기본원리(基本原理)는 음양오행(陰陽五行)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얼굴을 나누어 보는데, 그 방법으로는 좌우 상칭 구분법, 삼정구분법, 궁 구분법, 오관구분법, 세목구분법, 오행구분법 등 다양하다. 한 예로 궁구분법에 의한 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부모궁만은 남녀에 따라 반대 위치에 있는데,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다. 인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얼굴 부위를 자로 재는 것이 특징이다. 세조 때의 유명한 인물인 한명회의 얼굴상을 자로 평가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인상학적 방법은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부터 정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⁹⁾.

관상을 보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타고난 인상을 봐주는 데 있지 않다. 풍수지리를 잘 살펴 터를 정하고 집의 방향과 문 틀 곳을 정하는 것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극히 과학적인 원리에서 시작되듯, 사람의 타고난 골격과 이목구비, 피부 빛깔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매우 합리적이다.

9)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994, 146쪽.

“타고난 관상이 좋으면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상은 아니다. 아무리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인상도 자신이 만들어 가기 나름인 것이다”¹⁰⁾.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실상(말씨, 태도, 옷차림 등)과 허상(눈빛, 음성 등)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가령 입 꼬리가 처진 사람이라면 자꾸 웃는 습관을 기르고, 미미한 얼굴이라면 볼 터치를 해줘 직장 운을 나타내는 광대뼈를 도드라져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인상학은 대인관계에서의 화술, 표정관리, 몸가짐, 걸음걸이까지 무척 광범위하며,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완해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인상학에서는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으로서 사람 개개인의 지닌 특성이 있어 운명도 가지각색이며, 자신이 숙명적으로 타고난 형태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자격의 윤곽이 판단될 수 있다. 인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와 눈 코, 등 각 부위와의 균형을 본다. 즉, 얼굴의 미추(美醜)를 주로 눈과 코 등으로 정해지는데, 신상학(神相學)에서는 그 토대가 되는 얼굴의 모양과 각 부분과의 균형을 중시한다. 이 경우의 균형이란 얼굴 전체의 모양에 균형이 잡혔느냐 아니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얼굴 전체에서 받는 인상에 눈이나 코 등 각 부위가 알맞게 조화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2) 인상학의 기원

인상학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유럽에서는 그리스에서 비롯되었다.

10) 주선희, 삶과 꿈, 42쪽.

중국에서는 기원전 2300년경에 생겨났고, 공자의 일문(一門)에도 인상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수학자 피타고라스(Pitagoras)·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도 인상연구가였다고 한다. 중국의 인상학은 달마대사(達磨大師)가 불교의 전파를 위해 인도에서 건너와 승산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정진한 뒤 제자들에게 구전으로 전수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달마상법(達磨相法)이다. 중국의 동주(東周) 때 숙복(叔服)이 최초로 골상학을 연구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¹¹⁾. 고포자(姑布子)에 이어 제3대제 전수 자는 초(楚)나라의 당거(唐舉)였는데 그가 처음으로 기색¹²⁾을 보는 방법을 연구하여 이것으로 관상이 완성되었다. 그 뒤 허부(許負)라든가, 관로(管輅), 달마(達麻), 여동빈, 마의선생(麻衣先生)등이 이 계보를 이었는데, 마의선생의 제자인 희이(希夷)에 이르러서야 상학 전부를 발표한 「신상전편(神相全篇)」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그를 상학의 증시조라 칭한다. 그 뒤를 이은 원(元)나라 때에는 태종(太宗)황제의 스승으로 있던 벽안도사(碧眼道師)가 가장 유명하다. 명(明)나라 때에는 유장(柳莊)이라 불리던 원충철(元忠徹)이 가장 이름을 날렸다. 이와 같이 인상학의 뿌리는 중국이며 3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평화로운 시대보다는 전란의 시대, 화해의 시대보다는 갈등의 시대가 많았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은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인상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인상학을 연구하고 계승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인상학이 도래된 것은 지금부터 1400년 전 신라 선덕여왕 때 당나라로 유학간 승려들이 불교의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달마대사(達磨大師)의 상법(相法)을 배워온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고려 사람 혜징(惠澄)이 유명하였고, 고려말의 무학대사(無學大師), 조선 명종 때의 남사고(南師古), 이천

11) 김문기, 얼굴로 보는 평생 운명학, 27~30쪽.

12) 氣는 피부 속에 차 있는 기운을 말하고, 色은 피부 표면에 나타나 보이는 색깔을 말한다.

년(李千年), 이토정(李土亭), 정북창(鄭北窓) 등이 상학을 연구하고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³⁾.

인간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앞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미지(未知)의 미래(未來)를 예지(豫知)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해내고 집대성한 것이 '역학(易學)'인데 인상학도 그 뿌리는 '역학'에 두고 있다.

미래를 예지하는 '역학'이라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으로부터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장래를 알아내는 것이 인상학이기 때문에 역학에 뿌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상학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인상의 기본적 요소

(1) 이마

사람의 얼굴 중에서 이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켜 흔히 간판이라고도 말한다. 이마는 얼굴의 최상 부위를 차지하는 넓은 자리로서 얼굴 중의 으뜸가는 곳이다. 인상학에서는 이곳을 매우 중요시하여 먼저 이마를 살펴보고 운세의 대강을 점치기도 한다.

고미야 스스케는 이마는 그 사람의 관록과 복덕을 상징하고 지혜와 심령, 수명과 출생 등 여러 가지 인생운의 고삐를 쥐고 있다. 으뜸가는 정상의 의미를 나타내며, 훌륭한 이마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상위권의 운세를 타고난 사람이다. 따라서 고관대작이나 큰 인물 중에는 이마가 잘 생기고 훌륭

13) 申一, 觀相學全書, 동양서적, 1977, 32쪽.

한 사람이 많다.

이마란 머리털이 난 아래 부분부터 눈썹에 이르는 사이를 말한다. 이마를 상 중 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윗 부분은 인간의 추리능력, 즉 지능과 상상력의 발달도를 나타내고 중간은 기억력을 그리고 아랫부분은 직관을 관장한다고 한다. 이상적인 이마의 형태는 첫째 흉터나 점이 없고, 피부의 살결이 두꺼우며 넓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가지가 빠져도 이상적인 이마라고 할 수 없다¹⁴⁾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윤명중은 이마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며, 대머리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 시대를 움직였던 정치가는 물론 경제·사회·문화·과학·예술·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야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그 시대에 크게 성공했던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머리였거나 이마가 매우 잘 생겼다고 하고 있다¹⁵⁾고 말한 바 있다. 얼굴 가운데 이마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정현우는 인간의 지능이 어느 정도 뇌수의 발달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마는 인상학적으로 지능의 발달은 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상학적으로 이마를 관찰할 때는 모양·경사각도·색상·주름살 등을 주로 하여 본다고 하고 있으며¹⁶⁾, 김성현은 이마의 빛깔은 주황색으로 윤기가 나고 해맑아야 명예와 재물이 생기고 직위가 튼튼해지며, 기쁜 소식에 접하게 되며,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좋은 이마는 일이 잘 풀려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고, 이마를 전체적인 얼굴과 비교하고 그 조화 여부를 살필 수 있다.

14) 고미야 스스케저·정현우 편역, 사랑의 인상학, 명문당, 1995, 112쪽.

15) 윤명중, 얼굴의 미학, 동학사, 1989, 61쪽.

16) 정현우,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인상학, 자유시대사, 1994, 64쪽.

17)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1992, 168쪽.

(2) 눈썹

사람의 이마 밑에 있는 눈썹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다. 눈썹은 형상에 따라 인간의 성격과 명운을 달리하고 지배하며 상징한다. 눈썹은 수명의 장단과 형제간의 인연, 친밀과 소원, 또 지혜의 현우, 즉 총명도를 살피고 빈부의 상을 가려내며 노후의 고독을 예견하고 나아가 정력의 강약과 이성관계를 떠보는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눈썹은 중요한 미모의 포인트이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할 때 눈썹을 그리고 다듬는다. 그만큼 눈썹은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심을 갖는 곳이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 눈썹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눈썹이 없는 사람은 우둔한 형, 짙은 눈썹은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며 비밀스럽고 음흉한 자, 죽 곧은 눈썹은 현명한 사람, 미간이 넓은 눈썹은 인자하고 뜻이 깊은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바보스러움을 나타낸다. 눈썹이 짧은 사람은 횡포하고 잔인한 형이고 처진 눈썹은 인색한 형, 위로 올라간 눈썹은 용맹한 기상을 나타낸다. 가늘고 초생달 같은 눈썹은 연약하고 부드러우나 때로 사기꾼을 뜻하기도 한다¹⁸⁾.

최영순은 첫인상에서 눈과 눈썹의 특징은 그 얼굴을 기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좋은 눈썹은 숨은 재주를 나타내며 지혜와 도량이 있어 26세부터 38세 사이에 흥한다. 그러나 평생동안 나아가고 들어감에 신경 쓰고 절제하며 순서를 잘 지키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윤명중은 눈썹은 너무 시커멓게 보이거나 너무 얇게 보여도 좋지 않고, 좌우의 균형이 잡히고 깨끗하게 나 있어야 좋은 눈썹이라고 한다. 그

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刊, 분장, 공연 예술서적 전문출판사 예니, 공연예술총서 ⑤, 1996, 26쪽.

19) 최영순, 가정인상학, 명문당, 1989, 55쪽.

리고 그는 계속하여 이런 눈썹을 갖고 있으면 일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고, 형제간의 우애도 깊으며, 자식복도 좋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은 대부분 필요 없는 부분의 털을 뽑아버리고 마음대로 눈썹을 그리기 때문에 태어난 눈썹의 원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우나 눈썹을 그릴 때에는 자기 취향도 좋지만 운세가 좋은 눈썹을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김성현은 눈썹이란 눈의 상부에 위치하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얼굴모양을 균형 잡는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보소관(保壽官)이라고 하며, 눈썹의 모양은 눈에서 높이 자리하고 드물면서 팽팽하고 가지런하여 끊어짐이 없이 길어야 하고 수기(秀氣)가 있어야 한다. 또한 눈썹 끝이 위로 향한 듯한 초승달 모양이면 총명·부귀를 갖출 수 있고 형제자매간에 화목하다고 하고 있다²¹⁾.

따라서 인상학에서는 눈썹은 길고 청수하며 완만하게 굽어 둥글고 짙으며 결이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을 양상으로 치고 있다.

(3) 눈

눈이란 만물을 관찰하고 감지하는 시각기관의 통칭으로서, 감찰관이라고 한다. 또한 눈은 정신이 머무는 곳이며,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눈이야말로 심상이 표출되는 부위이다. 눈은 현재의 운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위이므로, 성격을 비롯하여 안정감의 유무, 끈기와 인내력의 강약, 담력의 대소, 지모의 정도, 품성의 선악, 침착성의 여부, 경륜과 지도력의 정도, 간사함의 여하, 호색의 정도, 병고의

20) 윤명중, 앞의 책, 117쪽.

21) 김성현, 앞의 책, 176쪽.

진단, 관재와 형액의 유무, 수명의 장단, 부부간 연분의 소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정신적인 감응 상태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분장술에 관한 책에는 쌍꺼풀진 눈은 낭비가 심하고 바람둥이이며, 눈 끝이 위쪽으로 올라간 눈은 횡포스럽고 잔인하며, 눈 끝이 아래로 처지면 우둔하고, 바보스럽고, 큰 눈은 선량하고 부드러우나 겁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²²⁾.

이정환은 우선 눈은 맑아야 하고, 눈이 맑다는 것은 핏발이 서 있지 않고 힘이 있어 보이며 빛이 있다는 것이다. 눈이 맑은 사람은 성격도 진취적이고 명량하여 감정도 안정되어 있으며, 남성인 경우 직장생활에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여성인 경우 부인과 질환이 없다고 하고 있다²³⁾.

정현우는 눈 크기의 표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지만, 상식적인 감각으로 밖에 말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남녀 모두 큰 눈을 가진 경우는 예외가 없을 정도로 정열적이나 사랑에 관해서는 역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타입이다. 그렇지만 눈의 크기는 자기 현시욕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의 표현인 예술 분야는 극단적으로 말해 눈이 작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눈동자의 크고 작음도 감각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눈동자가 큰 편이 인생의 파란도 적고 운세도 좋다고 한다²⁴⁾.

또한 윤명중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가, 편안한 가를 알 수 있고, 또 슬프거나 괴로운 표정을 읽을 수도 있고, 스쳐 가는 눈길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²⁵⁾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보면 그만큼 눈은 자기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

2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刊, 앞의 책, 25쪽.

23) 이정환, 얼굴보고 사람을 아는 법, 도서출판 상아, 1995, 53쪽.

24) 정현우, 앞의 책, 91쪽.

25) 윤명중, 앞의 책, 85쪽.

(4) 코

코는 얼굴의 중심부에 위치한 돌기부로서 기능상으로는 첫째, 외계의 공기를 흡수하여 폐장으로 보내는 기공이며 관문이다. 그것은 혈액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생체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또 냄새를 맡는 후각 작용을 수용한다. 또한 오관 중의 하나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은 잠시도 호흡을 멈춰서는 생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코는 폐와 직결되어 있으며 폐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여파는 코에도 나타난다. 한편 코는 산맥의 분수령과도 같이 인간 운명을 가늠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고 성숙한 중년기의 운세를 상징하며 명예와 출세, 수명과 재록을 나타내며 얼굴에서 가장 먼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코는 옆으로 봐서 그 높이와 길이가 문제가 되며 살집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코는 얼굴 전체의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또 높이는 길이의 절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길면 '긴 코' 낮으면 '낮은 코' 라고 말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콧날이 곧고 우뚝하며 콧망울이 두둑하고 코끝이 봉긋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명예를 얻으며 재복도 있는 사람이다.

코는 혈색이 좋고 윤기가 있으며 살집이 두둑하고 콧날이 곧고 높은 것을 길상으로 본다. 반면에 작고 낮으며 콧등이 움푹 들어갔거나 비뚤어지고 빈약한 것은 좋지 않으며 빈천상으로 보고 있다. 또 코는 그 사람의 의지와 명예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콧대가 세다는 말을 곧잘 한다. 이는, 코가 높고 오뚝한 사람은 의지가 굳고 자존심이 강한 경향이 있는 사람을 두고 표현하는 말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코는 미모를 좌우하는 주요한 포인트이다. 일찍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센

티미터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코와 여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코 하나에 따라서도 한 여인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귀엽고 복스러우며 곧고 오뚝한 여성의 코는 보기에 아름답다우며 눈길을 끈다.

오늘날 용비술에 의한 성형수술로 코를 높이고 모양을 고치고 하는 데에서도 코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엿볼 수가 있다. 윤명중은 「얼굴의 미학」에서 코를 다치는 것은 운명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도 같다. 차질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도 코는 다치지 말아야 한다. 남녀간에 코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굴곡이 있으며 순탄치 못한 인생길을 더듬게 된다. 윤명중은 코는 본래 얼굴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적인 발상으로는 그 사람 자신으로 본다. 그래서 코가 크고 힘차게 뻗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운세도 좋고 코가 낮은 사람의 운세는 신통치가 못하다고 보고 있다²⁶⁾.

최영순은 얼굴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코는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관 중에서도 심판관격이다. 산(嶽)은 높아야 하고 흙(地)은 두꺼워야 하는 고로 높고 살집이 좋은 코는 상격으로 친다²⁷⁾ 고 한다. 또한 김성현은 코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나 자존심의 상징적 표상이라고 전제하고, 재물의 빈부, 理想의 高低, 사업의 성패, 비밀 준수 여부, 신체의 건강상태, 성품의 형태 등을 나타낸다²⁸⁾. 따라서 코의 모양은 두둑하고 길며, 낮지 아니하고 살이 쪼 있으며,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윤기가 있어야 한다.

26) 윤명중, 앞의 책, 29쪽.

27) 최영순, 앞의 책, 62쪽.

28) 김성현, 앞의 책, 208쪽.

....

(5) 입

입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 기관이다. 즉 입을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공급받아 생명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식욕은 생명력을 위한 인간 본능이며 그것을 주관하는 입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력의 강하고 약함을 알 수 있다. 또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의사 소통은 입을 통한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며 인간 감정의 표출구이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자는 사람 입과 눈을 보고 그 뜻을 알아낸다.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는 입은 저절로 벌어지고 웃음이 나온다. 반면에 분노와 증오를 느꼈을 때는 입은 굳게 다물어지고 입가에는 노기가 서린다. 그리고 입은 애정의 기관이기도 하다. 남녀간의 애정의 표현은 서로의 입술과 입술을 마주 대는 키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애정을 표시하고 그것을 감지한다. 그런 만큼 입은 미각과 함께 촉각도 발달된 곳이다.

김성헌은 입은 감정과 의지를 직접 표현하기도 하는 곳이며, 입을 보고서 생활력, 언어구사 능력, 상하관계, 성격, 애정이나 성욕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입은 큼직하고 입시울이 뚝뚝하며 입술이 가지런하고 틀어지지 아니하며 이가 들어나 보이지 않아야 좋은 상으로 부귀를 누리고 형통함이 있어서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한다. 또한 입의 빛깔은 주로 입술의 빛깔을 말하며 빨간색이 최상이고, 푸른색은 재앙, 창백하거나 검은 색은 질병을 예지하며 일시적으로 자주색, 회면서 붉은 색·황적색 등을 띠게 되면 좋은 일이 닥칠 징조라고 한다²⁹⁾.

29) 김성헌, 앞의 책, 234쪽.

최영순은 자존심 있는 인격자도 먹어야 하고 언어로 표현해야 의사소통이 되며, 미각·촉각·배설의 작용을 나타내는 곳으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³⁰⁾. 따라서 입은 적은 입보다는 큰 입이 좋으며 두꺼운 입술이 얇은 입술보다 인정이 있고 신의도 두터우며, 건강과 생명력·의욕 등을 보고, 또 가정운과 여성의 정조관념도 알 수 있다.

(6) 턱

턱은 얼굴의 맨 아랫부분으로서 하정에 속하며 인생의 만년 운을 나타내는 곳이다. 그리고 턱은 체력(건강)과도 관계가 있으며 인내력과 의지력의 강약을 말해주고 있다. 입을 다물고 굳은 결심을 할 때는 턱에 힘이 주어져서 그 모양도 달라진다. 사람의 턱 모양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 유형은 둥근 사람, 모난 사람, 넓은 사람, 뾰족한 사람, 짧은 사람, 긴 사람, 각아낸 듯 경사진 사람, 또 턱 끝이 앞으로 내민 사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턱 모양은 각각 그 특성을 달리하며 인간의 운세와 성격을 지배하고 가능하다.

이정환은 턱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하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광택과 살집에 따라서도 성격과 운세를 살펴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부하운·저택운·자식운·건강운 등의 척도로 사용된다고 한다³¹⁾. 그리고 윤명중은 턱에 대해서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만년의 운세를 보기도 하며, 중년 이후의 사람에게는 턱이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되는 곳이다. 또한 턱은 상학에서는 지각(地關)이라고 해서 글자

30) 최영순, 앞의 책, 165쪽.

31) 이정환, 앞의 책, 30쪽.

그대로 토지나 집(住居)에 관한 일들을 판단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지위도 올라가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좌해 줄 좋은 부하가 있어야 순조롭기 때문에 하관이 좋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정현우는 얼굴이 가름한 고전적인 동양미인 중에서 턱이 뽀족하고 메마른 형을 흔히 볼 수 있다고³³⁾ 한다. 그러나 이런 상은 심미안 등 예술적 감성은 발달된 타입이지만 반면에 물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돈을 쓰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어떻게 벌어야 하는 지는 생각해 본 일도 없는 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턱이 오동통하게 둥근형을 이런 상을 대체적으로 가정적인 성격으로 남편운·자식운도 좋으며, 물질적으로는 일생동안 별 불편을 겪지 않는다.

(7) 귀

귀는 사람의 몸에서 오관 중의 하나로 감각기능 중 청각작용을 주관하는 곳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상학에서는 이것을 일명 채청관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어떤 음향을 감지하는 것은 바로 귀의 작용이며 그 기능의 핵심은 고막이다. 귀에 이상이 있으면 제대로 듣지 못하여 상대와의 의사 소통에 불편함은 물론 자신의 신체 보호에도 지장이 있다.

얼굴의 중간 부분 양쪽 옆에 붙어 홍색이 좋고 윤곽이 뚜렷하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귓구멍이 크고 살집이 두꺼우며 약간 단단한 편이 좋다. 또 눈썹 위치보다 낮은 것을 양상으로 하고 있다. 흔히 귓불이라고 부르는 수주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귀상으로 여기며 이것이 두껍고 굳고 길

32) 윤명중, 앞의 책, 183쪽.

33) 정현우, 앞의 책, 205쪽.

면 복귀라고 하여 동양 상학에서는 장수와 부귀, 복록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성헌은 귀가 뇌의 작용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뇌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귀의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면 뇌의 활동도 장애를 받는 등 귀와 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귀는 유전성, 소질, 총명함과 어리석음 등을 나타낸다³⁴⁾. 또한 이정환은 귀는 사회활동과 초년의 운세, 두뇌회전을 판단하는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귀는 눈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좋고, 낮은 곳에 위치할수록 안정되게 생활한다³⁵⁾고 한다. 따라서 귀를 보고 도량, 재능, 지혜, 덕, 부귀, 수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34) 김성헌, 앞의 책, 160쪽.

35) 이정환, 앞의 책, 84쪽.

Ⅲ. 얼굴의 이미지와 눈의 형태분석

1. 얼굴의 이미지 분석

1) 얼굴의 일반론

사람이나 동물 등 모든 사물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상징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표정의 변화가 풍부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은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속마음을 감춘 얼굴, 잘 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천진난만한 얼굴 등의 갖가지 모습을 감정의 희·노·애·락에 따라 무한한 표현이 가능하여 '천의 얼굴'로 표현하기도 한다³⁶⁾.

얼굴은 성별, 지역, 민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역사적 상황과 사회 경제적인 여건, 영양상태 등에 따라 그 모습과 상태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상징이다. 사람이나 동물 등 모든 사물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상징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인상은 마음속의 감정을 나타내는 곳이다. 즉, 좋은 마음(심상)은 인상을 좋게 만들고, 꼭 미인이 아니라도 예쁜 마음은 얼굴을 좋은 인상으로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미인이란도 운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상학의 개념을 정리하여 인상학적으로 좋은 얼굴은 어떤 얼굴이며, 메이크업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선 얼굴이 나타내는 가치(Face Value)에 의해 전부를

36)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994, 3쪽.

판단하기 쉬운데, 얼굴이라는 것은 성별, 연령, 건강, 풍요를 알 수 있는 언어 이외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얼굴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³⁷⁾는 말은 자신의 얼굴에서 내뿜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곧 자신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며 사람됨을 생각한다. 옆면의 얼굴이 아닌 정면의 얼굴에서 더욱 그렇다. 구체적인 언행이 배제되고 이목구비의 개성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얼굴의 표정일수록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³⁸⁾.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헤어스타일, 얼굴형, 얼굴의 선들, 즉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얼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눈이 크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눈이 큰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전해질 것이고, 눈이 크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눈이 큰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서양인 중에 유난히 코가 큰 사람을 보았을 때 외국인은 코가 크다는 이미지로 뇌에 전달되면서 “모든 외국인은 코가 크다”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만큼 얼굴에 있어서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들의 형태 변화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란 상, 표상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는 말로 가시적 형태나 울동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는 말로 가시적 형태나 울동 등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분위기, 감각 연상 등 총체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인간의 지각,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지각이란 투입되는 자극에 의해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또는 개인의 자극물을 선택, 조직화, 해석하여 세계의 참모습으로 전환하는 과정³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조지 캡스는 「시각언어」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에

37) Buddy Westmore, 「The Westmore Beauty Book」, USA.

38) 옥미나, 얼굴표정 표현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쪽.

39) 송요섭, 현대소비자 행동론, 법문사, 1986, 200쪽.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단순한 감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매카니즘이며 외적자극과 내적인 힘의 결합화의 의지로 자체조직을 상대적 안정성으로 유지하려는 개체의 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⁰⁾.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의 인상 판단능력을 길러야 하고, 또 메이크업 과정에서도 활용해야 본인이 의도하는 메이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여긴다.

2) 인상학적 얼굴 이미지 분석

사람 내면의 개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것은 바로 얼굴이다. 그 사람이 지닌 모든 내면적인 것, 그 영혼과 정신,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이 결국 인상 에다 진한 각인을 남긴다. 인상이야말로 그 사람의 역사가 담긴 형상화된 이미지다. 사람의 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며, 사람됨을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켜 '간판이라고도 말했다. 이 말은 얼굴이 사람을 나타내고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정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 말⁴¹⁾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얼굴상을 가지고 본 인상의 예⁴²⁾이다.

40) Gyorgy Keps. 시각언어 -유한대-, 대광서림, 1983, 16쪽.

41) 안태영, 安龜의 얼굴사전, 명문당, 1995, 25쪽.

42) 김성현, 앞의 책, 71~72쪽.

- 웃는 상은 남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행운을 가져다 준다.

- 우는 상은 재능이나 기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협조로 성공하기가 어려우며 고독하고 고생을 자초하여 역경 속에 빠져든다.

- 남성으로 여성적인 얼굴 모습이면 성격이 나약하고 추진력이 없어서 성공하기 어려운 상이다.

- 여성으로 남성적인 얼굴 모습이면 성격이 과격하고 활동력이 좋아서 스스로 고달픔을 자초하며, 과부가 되기 쉬운 상이다.

- 얼굴이 넓으면 대담하고 행동적이며, 좁으면 세심하고 견실하며 지성적이다.

- 얼굴의 좌우가 매우 심하게 다르거나 틀어져 있으면 이중인격자의 상이다.

이처럼 인상에서 보는 얼굴크기, 색 또는 좌우가 다른 모양도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상징이 되는데, 인간의 희·노·애·락은 얼굴에서 나타난다. 즉,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며 눈물이 솟고 또한 근심이 있으면 불안해 하며 한숨을 짓기도 한다. 분노한 사람은 안색이 변하고 얼굴은 굳어진다. 즐겁고 희망찬 일에는 용기가 솟으며 얼굴은 밝아지고 웃음이 핀다. 이것을 감정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환희의 얼굴, 비애의 얼굴, 분노의 얼굴, 증오의 얼굴, 질투의 얼굴, 선망의 얼굴, 후회의 얼굴, 우수의 얼굴, 번민의 얼굴, 결의에 찬 얼굴 등등 이 모든 것은 내적인 요소인 정신과 일치하며 그 표출의 상인 것이다.

또 얼굴 모양도 둥근 얼굴, 모난 얼굴, 긴 얼굴, 작은 얼굴, 넓은 얼굴, 마른 얼굴, 두툼한 얼굴 등 형상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운명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⁴³⁾.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 곧 내면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단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겉보기와는 달리 착하다” 또는 “겉보기 보다 불량하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인상과 마음의 차이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겉으로 나타나는 인상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마음의 상(心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옛말에도 “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잘 쓰는 것만 같지 못한다(觀相易 不如心相)고 하였듯이⁴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얼굴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삶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상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 보다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던 것이다.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한 노자(老子)의 가르침과도 같이 한국인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얼굴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인상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千態萬象)으로서 사람 개개인이 지닌 특성이 있어 운명(運命)도 가지각색이며, 자신의 숙명적으로 타고난 형태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운곽이 판단될 수 있다⁴⁵⁾고 보고 있다.

인상을 보는 방식이란, 사람은 대자연의 영기를 받고 태어났으므로 모든 것을 자연과 비교하여 생각하면 가장 쉽게 풀리는 것이다. 상의 모든 조건이 자연의 원리에 부합되면 선상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상이라 한다. 사람의 모습이

43) 안태영, 앞의 책, 26쪽.

44) 申 ·, 앞의 책, 34쪽.

45) 申 ·, 앞의 책, 32쪽.

대자연의 모습과 이치에 너무나도 일치하므로 사람을 소우주라 보는 것이고, 상법은 바로 우주만물의 이치를 상에 부합시켜 가며 가려 보는 학문이다⁴⁶⁾.

인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와 눈, 코, 등 각 부위와의 균형이다. 즉, 얼굴의 균형이 선결문제이다. 균형이란 얼굴 전체의 모양에 균형이 잡혔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얼굴 전체에서 받는 인상에 눈이나 코 등 각 부위가 알맞게 매치 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인상학에서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을 얼굴로 보고, 얼굴은 그 사람의 자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법적으로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재주 있고 똑똑하고 부귀하며, 못생긴 사람은 어리석고 둔하고 빈천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상학적으로 보는 얼굴은 앞의 기본적인 요소에서도 살펴 본 이마, 눈, 코, 입, 귀, 눈썹 등이 균형을 갖추며, 그들이 만들어 내는 감정적 요소들이 긍정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웃는 이미지, 성격이 좋아 보이는 이미지의 얼굴이 그 사람의 운명도 밝게 할 수 있다. 얼굴상과 마음씨가 조화를 이룬 얼굴로 자신의 인생을 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활속의 인상판단

어떠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로부터 와 닿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느낌이 마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전 처음 상면한 사이에서 첫눈에 느끼는 바를 첫인상이라고 한다. 이때의 인상은 웃는 낯이기를 더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하기에 편안하기를 바라게 된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면한 후 그 소감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착하게 생겼

46) 신기원, 초보자를 위한 인상학, 대원사, 1991, 9쪽.

더라 앙칼지게 생겼더라 등의 표현은 인상을 익혔다는 것이고, 성실해 보이니 채용해도 괜찮겠다, 불량하게 생겼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등은 실제로 관상(인상)을 활용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려고 선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관상의 활용인 것이다.

영화나 연극에서 배우들의 배역이나 분장에서 관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소설에 등장한 인물묘사도 관상과 거리가 있어서는 독자의 공감을 살수 없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주위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TV에 비친 인물에 이르기까지 인상을 판단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상의 판단을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인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첫 인상이나 맞선, 직업선택을 위한 면접 등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일들이다. 첫 인상이 나뉘었던 사람의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 맞선이나 면접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인상 에 의해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거나, 취직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다. 특히, 현대의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생각해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얼굴에서 나타나는 첫인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메이크업과 인상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인상학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좀 더 나은 인상을 주기 위한 끊임없는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 자체를 긍정적이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다.

2. 얼굴의 형태 분석

1) 얼굴의 특성과 유형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크게 둥근형, 네모형, 세모형으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형을 세분하고 혼합하여 분류상 12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원형, 즉 얼굴의 둘레가 둥근 모양으로 둥근 사람의 상은 인상학적 혹은 이미지를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다. 얼굴의 형태는 이마 상단부, 상부, 중부, 하부 등 네 등분의 비율에 따라 넓은 얼굴, 좁은 얼굴, 긴 얼굴, 짧은 얼굴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러한 얼굴 형태는 다시 표준형 얼굴(계란형 얼굴), 삼각형 얼굴, 원형 또는 각형 얼굴, 사다리꼴 얼굴, 직사각형 얼굴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얼굴은 골상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머리부분)과 안면골(얼굴부분)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뇌라고 부르는 두개골은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를 총칭하며 인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령에 따른 변화는 그다지 없는 편이다. 안면골은 광대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의 형태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얼굴 골격의 기본적인 구조, 생김새의 배열, 음영 등은 메이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름다움은 각각의 부분이 합해져 나타나므로 전체 이미지에 미치는 균형(proportion)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려면 자신의 얼굴형을 알아야 한다. 우선 인상학적 얼굴 형태와 메이크업에서 보는 얼굴형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상학적 얼굴형태

사람의 얼굴모양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둥글고 어떤 사람은 모나며, 어떤 사람은 길고 또 어떤 사람은 턱이 뾰족하다. 이와 같이 사람은 십인십색(十人十色)으로 각기 다른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운명도 달라진다. 그리고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원래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상학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정 짓고 있으며, 얼굴모양을 한자(모양)의 그것과 유사하게 연관지어 열 가지 글자를 붙여서 명명하고 있다. 즉, 이것을 <십자상법(十字相法)>이라고 하며 사람은 누구나 이 열 가지 유형(十字面相)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둥근 얼굴을 가진 사람을 원자(圓字)면상이라고 하고, 네모난 사람을 전자(田字)면상이라 하며, 이마가 넓고 아래턱이 좁은 사람을 갑자(甲字)면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식별상 그 사람의 얼굴모양(형상)이다. 즉, 위에서 말한 원자 면상이나 갑자 면상이나 또는 전자 면상이나 등이다. 그리고 골격과 피부의 착색, 이목구비의 대소와 특징들이다. 이것들만 보아서도 바로 그 사람의 인상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은 십자면상 중 어느 것인가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특징에 따라서 인생일대의 영고성쇠와 길흉화복 또 재력과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며 인간운세의 소장(消長)과 부침(浮沈)이 표징 된다. 따라서 면상(얼굴)은 바로 그 사람의 내재적 심성까지를 포함하여 대표하고 말해주는 인간의 상인 것이다. 그래서 안태영은 십자상법이라 하여 열 가지 유형의 얼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⁷⁾.

47) 안태영, 앞의 책, 111쪽.

이렇게 인상학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용모나 모형이 아닌 또 다른 각도에서 분리하고 운기를 판단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풍모별 분류에 의한 것이다. 먼저 풍채를 감지하고 얼굴로부터 풍기는 맛과 분위기에 따라서 솟아오른 얼굴, 흘러내린 얼굴, 퍼져난 얼굴, 감싸든 얼굴, 바라진 얼굴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⁴⁸⁾.

사람의 얼굴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그 틀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운기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틀의 종류수를 늘리게 되면 그 특성이 개개인의 사실에 접근되지만 너무 복잡하여 혼동되기 쉬우며, 또한 틀의 종류 수를 줄이게 되면 간편한 반면, 그 특성이 사실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복잡하지도 않고, 특성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형별로 둥근 얼굴, 네모진 얼굴, 긴 얼굴, 이마가 뾰런 얼굴(△형), 턱이 뾰런 얼굴(▽형), 둥글고 가름한 얼굴, 마름모 얼굴, 넓적한 얼굴, 혼합형과 부정형 얼굴로 나타내었다⁴⁹⁾.

48) 김성헌, 앞의 책, 102쪽.

49) 김성헌, 앞의 책, 95~101쪽.



그림1. 직업과 관련된 얼굴모형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47쪽

위 그림은 인상학에 따른 직업별 얼굴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⁵⁰⁾.

50) 국립민속박물관 편, 앞의 책, 147쪽.

A. 얼굴의 세 부위

① 이마

이마는 눈썹 위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난 부분까지.

② 뺨

눈썹 아래에서 코끝까지

③ 턱

코끝에서 턱 끝까지

B. 얼굴의 넓이

④ 이마의 넓이

관자놀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마를 가로지르는 넓이

⑤ 광대뼈의 넓이

광대뼈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뺨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넓이

⑥ 턱 뼈의 넓이

턱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넓이

⑦ 얼굴의 길이

이마의 한가운데에서 턱의 맨 끝에까지 이르는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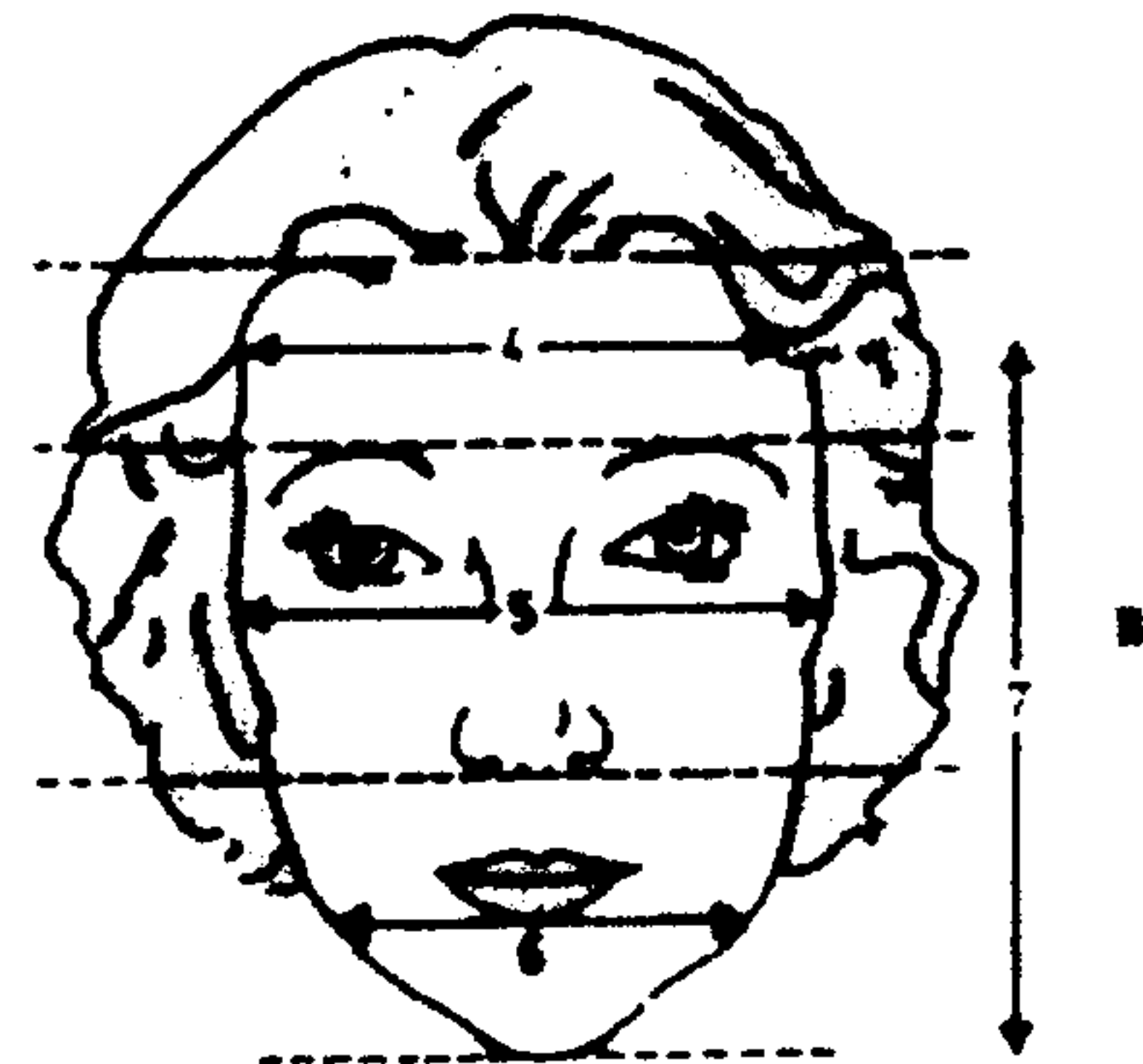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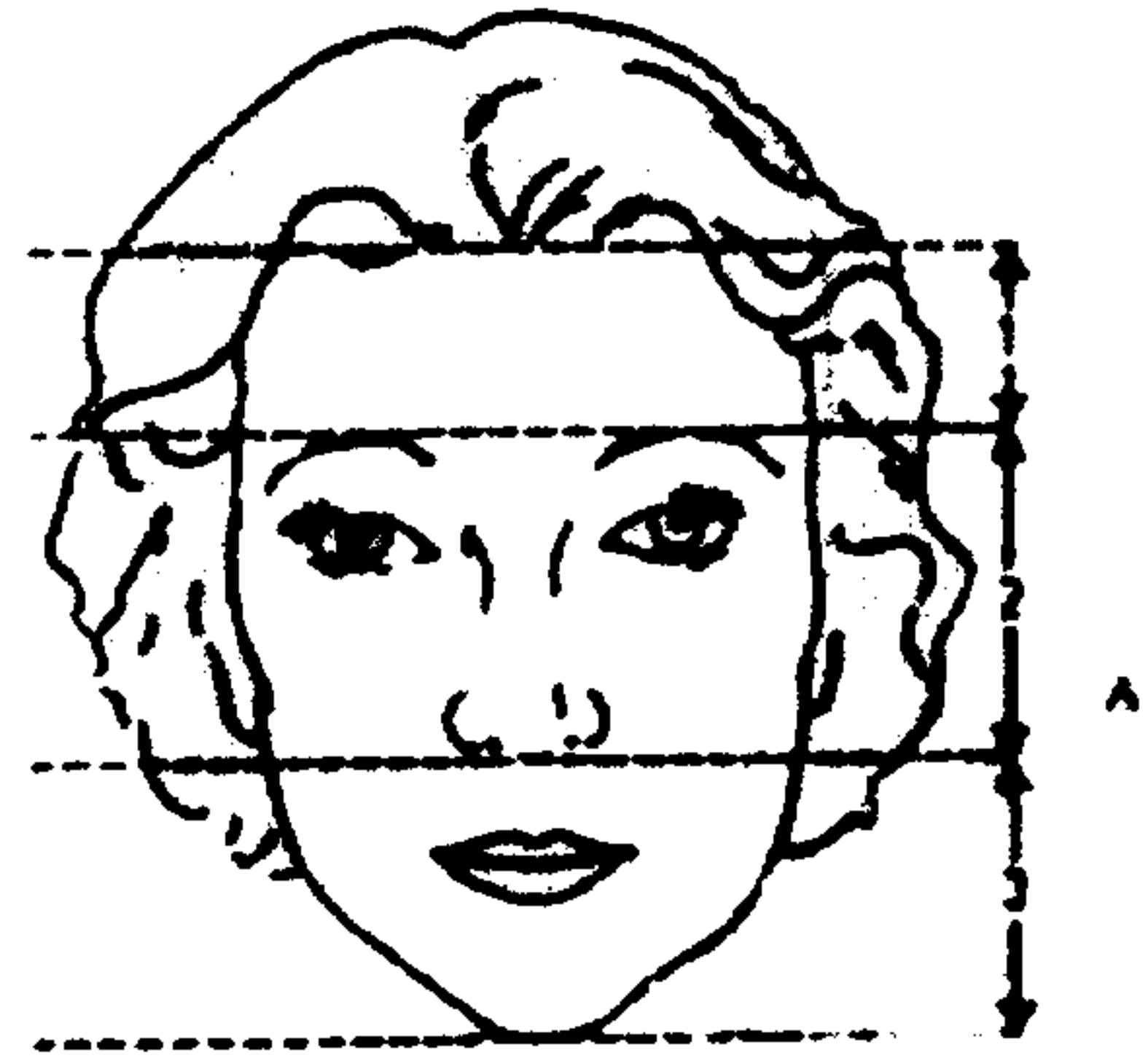


그림2. 인상학으로 본 얼굴

여기서 잠시 얼굴의 부위에 대한 세부 부위와 넓이 그림을 참고하였다. 이마의 넓이, 미간, 얼굴의 길이 등의 비례를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얼굴의 기본형태를 파악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실제 일반인의 얼굴을 호감형, 평범형, 비호감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 치수까지 연구한 자료⁵¹⁾를 보면, 호감형의 경우가 다른 두 경우보다 형태나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51)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낫」, (주) 사계절 출판사, 2000, 61쪽.



그림3. 호감형



그림4. 평범형



그림5. 비호감형

출처 :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주)사계절출판사, 6쪽

다음에 제시되는 얼굴형태 분류의 두 가지 예를 보자.

인상학은 단지 얼굴의 상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등 온 몸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점법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얼굴의 상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인상의 기본원리는 음양오행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얼굴을 나누고 있다⁵²⁾. 얼굴 각 부분 명칭마다 길흉이나 운세를 보는 기준이 각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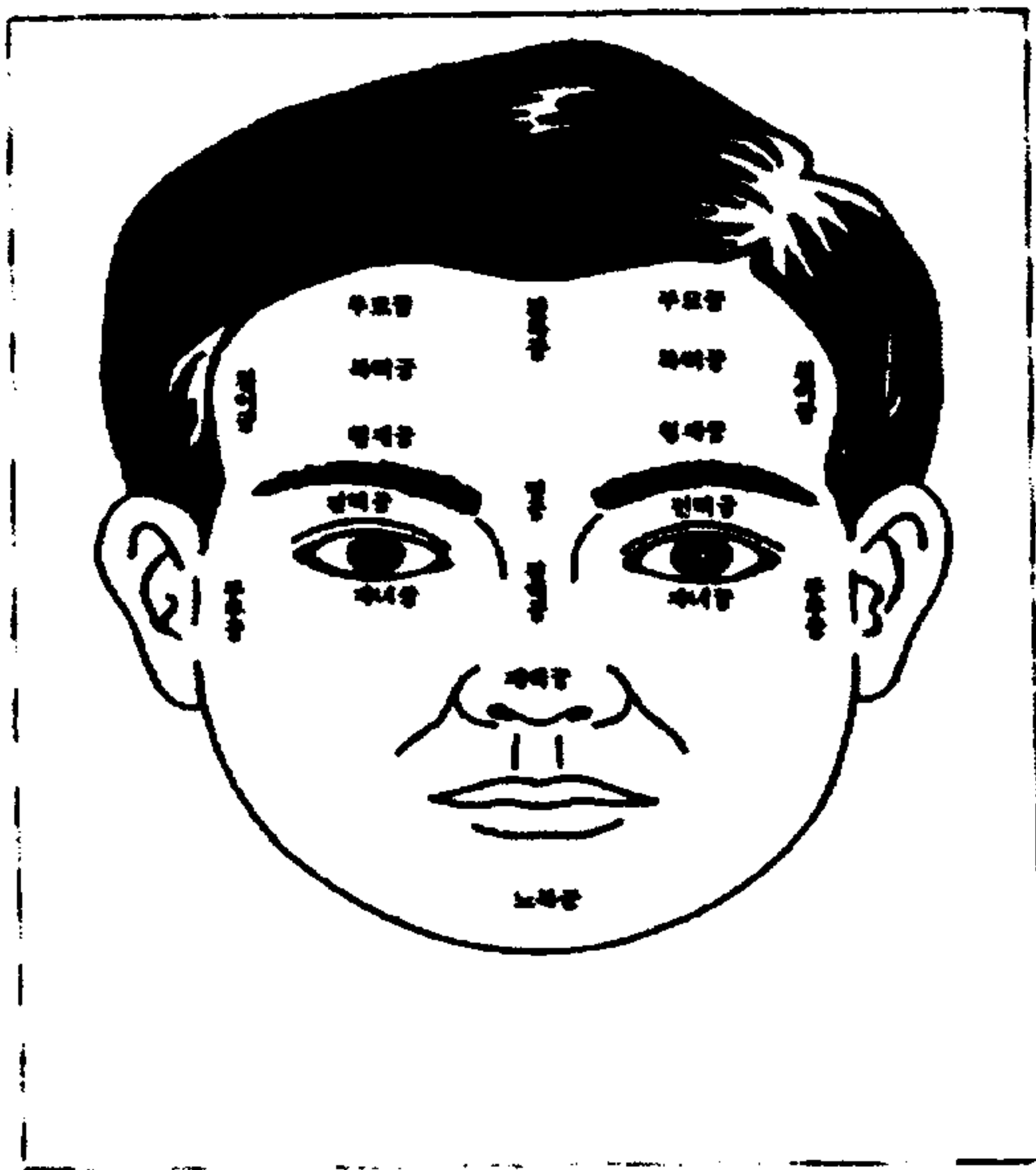


그림6. 12궁 부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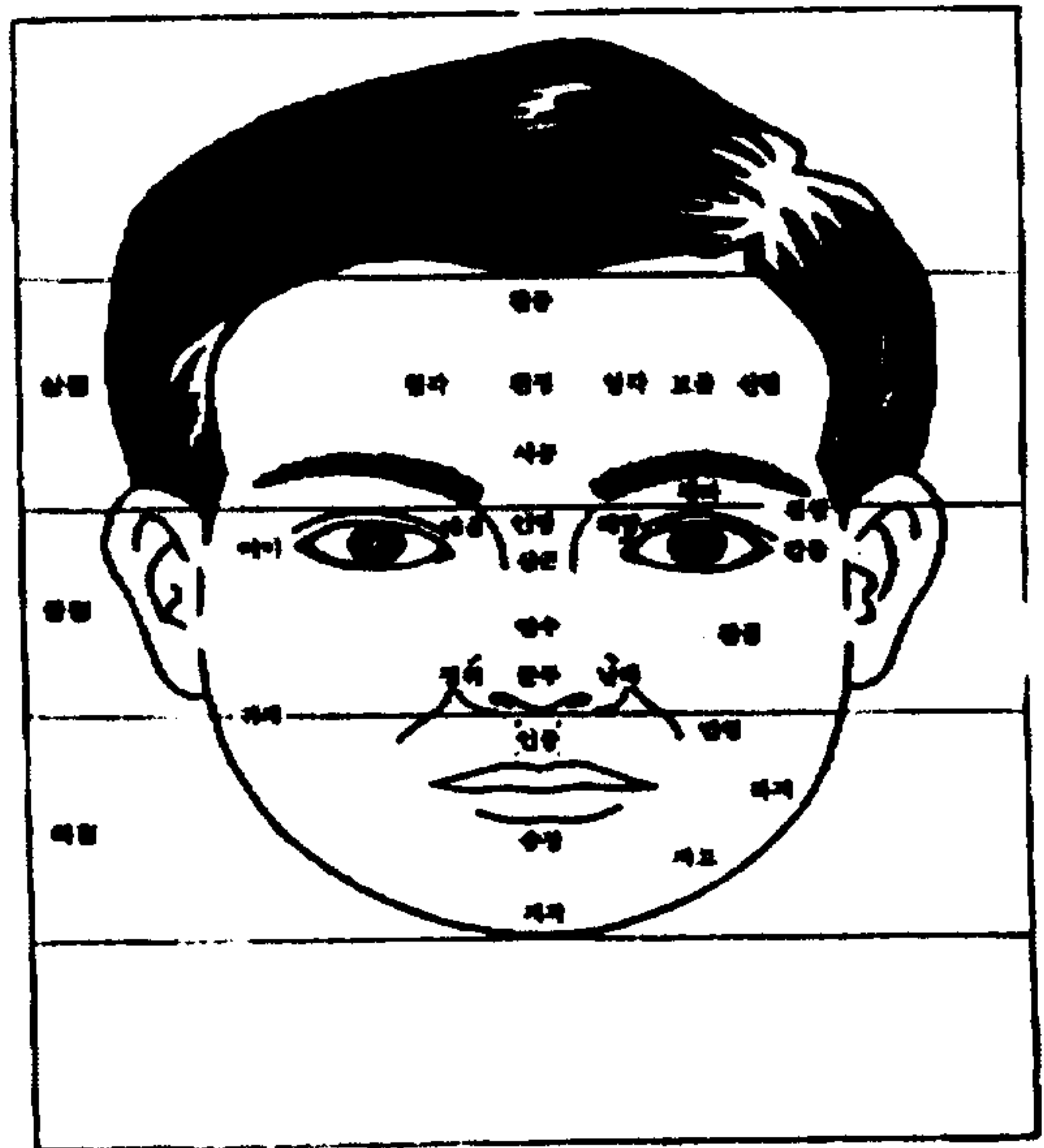


그림7. 얼굴 부위 명칭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49쪽

한 예로 궁구분법에 의한 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부모궁만은 남녀에 따라 반대에 위치해 있는데,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다. 즉 이러한 얼굴 형태는 곧 인상학에서 운세를 보는 근거로 직접 반영된다.

52) 이 방법으로는 좌우상칭 구분법, 삼정 구분법, 궁 구분법, 오관 구분법, 세목 구분법, 오행 구분법 등 다양하다.

3) 메이크업 관점에서의 얼굴형태

인간 얼굴의 평균 길이는 18.6cm, 넓이는 12.95cm 라고 한다. 이 얼굴에서 눈이나 입을 수정하기 위해 1밀리터 아주 미세한 변화만 주어도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우선 자신의 얼굴특징이나 장점, 결점을 파악한 후 적합한 색과 명암을 조화시켜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화장법이다.

얼굴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형태는 두 눈과 코 그리고 입이다.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형태는 턱과 두 뺨, 이마이다. 이 형태들은 지방의 정도에 따라 둥근 느낌이거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거나 뚜렷이 각이 지거나 뾰족하기도 할 것이다.

표1. 이상적인 얼굴형

- 얼굴의 길이 : 18.6cm
- 목 둘레 : 30cm
- 미간의 넓이 : 3.3cm
- 귀의 길이 : 5.7cm
- 입술 길이 : 4.6cm
- 콧망울의 위치 : 눈썹에서 1/3 되는 지점
- 입술의 위치 : 정면을 향했을 때 눈동자 안쪽에서 내려오는 선
- 입술의 비율 : 1(위) : 1.5(아래)
- 눈의 머리 : 콧망울에서 일직선
- 눈썹 꼬리 : 콧망울에서 눈꼬리를 지나가는 45° 되는 지점
- 얼굴의 넓이 : 12.95cm
- 이마의 넓이 : 12.65cm
- 콧망울 길이 : 3.4cm
- 눈의 길이 : 3.35cm
- 눈썹의 위치 : 이마에서 1/3 되는 지점

얼굴형은 타원형, 육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근형, 서양배형, 다이아몬드형이다. 이들의 기하학적 얼굴형은 세가지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짧은형, 중간, 그리고 긴 형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한가지 형태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지녔기에 어떤 얼굴의 형태라고 구분 짓기 위해서는 얼굴 형태의 기본이 되는 형태들로 분류할 수 있다⁵³⁾.

또 다른 몇몇은 얼굴형태를 7-8가지 유형으로 각자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Davis는 얼굴형을 계란형, 정사각형, 등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 직사각형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⁵⁴⁾. 또 이혜성은 여성의 얼굴유형을 직사각형, 등근형, 타원형,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다이아몬드형, 서양배형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⁵⁵⁾.

Louise Picard Vila⁵⁶⁾도 얼굴형의 수정을 위한 메이크업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얼굴형은 계란형, 등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저자는 7가지 유형의 얼굴형 중 계란형이 표준적인 미인형으로 메이크업의 기준형이 되고 모든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한 형이지만 경우에 따라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피부미용과 헤어스타일을 위한 얼굴분석을 목적으로 했던 신지현⁵⁷⁾도 얼굴형을 7가지 즉, 계란형, 원형, 사각형, 긴형, 삼각형, 역삼각형, 마름모형으로 분류하였고, 긴 얼굴이 표준형인 계란형에 근접해 보이도록 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제안하였다.

53) 이경하, 눈썹형태에 따른 얼굴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3쪽.

54) Marian L.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 new Jersey, 1980, pp.8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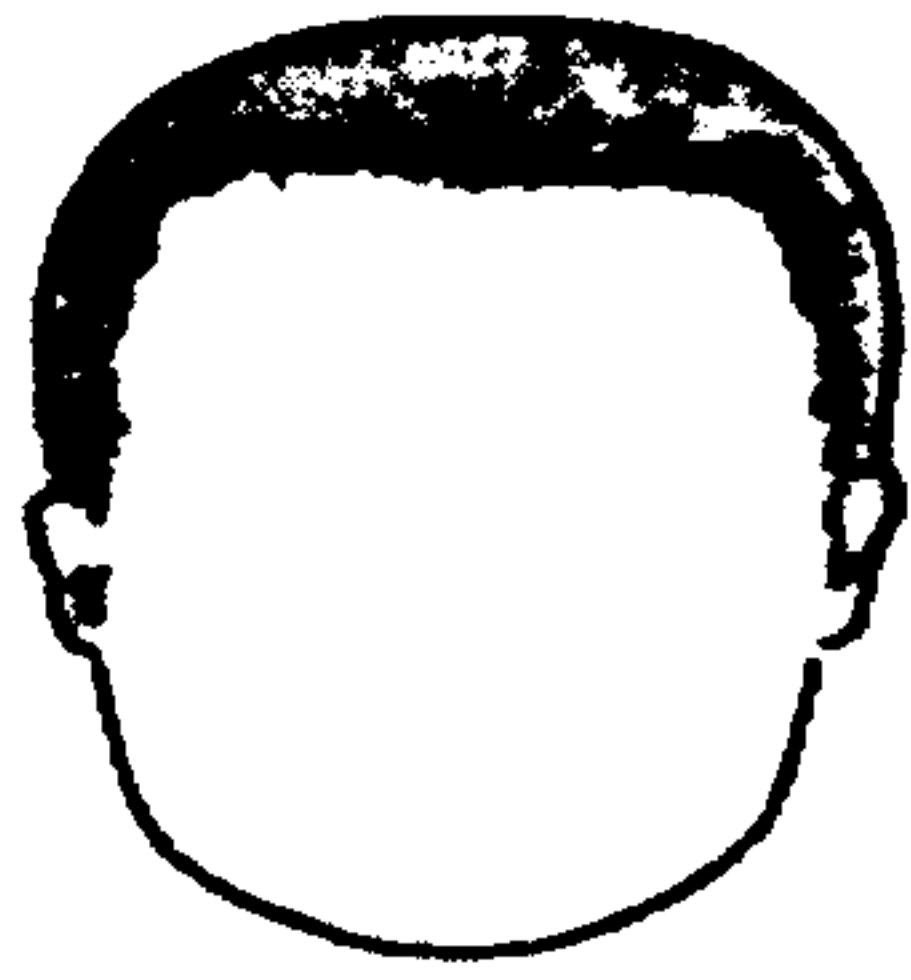
55) 이혜성, 메이크업, 정문각, 1996, 21~23쪽.

56) Louise Picard Villa는 make-up artist이면서, 'COMETOLOGY'의 著者이다. Cosmetology (The art of making up), gage educational publishing co.,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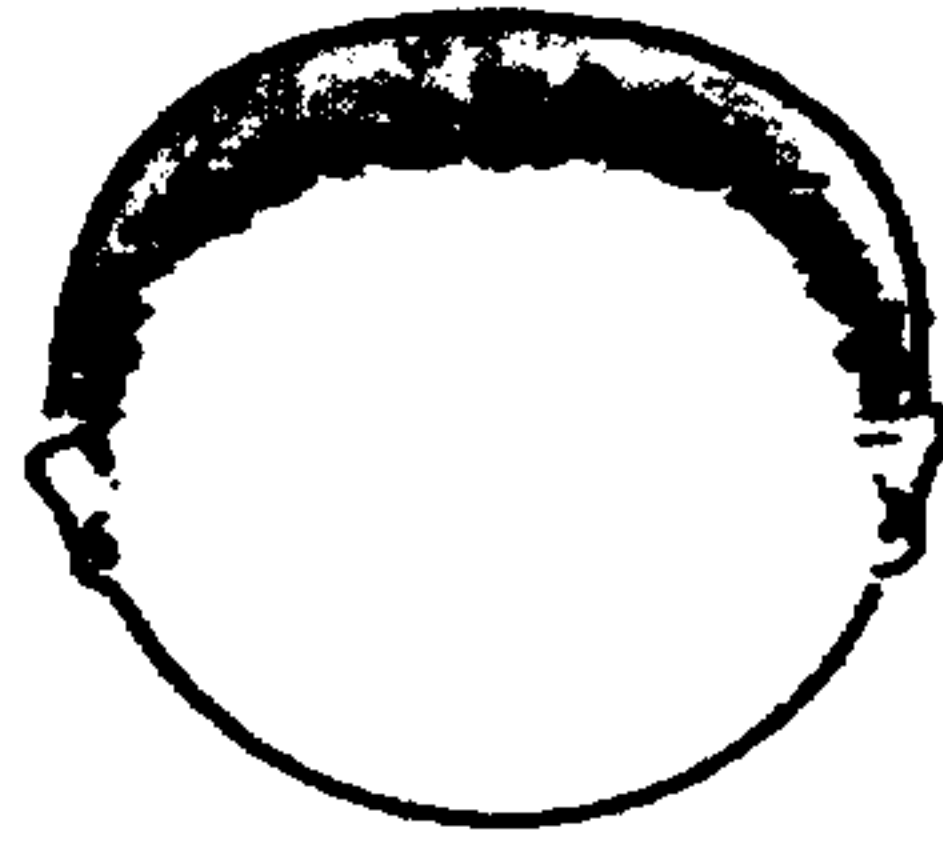
57) 신지현, 신 미용학개론, 수문사, 1997, 326~329쪽.

- 계란형 : 이마선은 턱선 보다 약간 넓으며, 완전한 균형을 갖춘 얼굴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다.
- 등근형 : 불과 턱선이 넓고 헤어라인이 등글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짧은 형이다.
- 긴 형 : 긴 코의 소유자이며 얼굴 전체적으로 사각의 좁고 긴 얼굴형이다.
- 사각형 : 헤어라인과 볼 선이 직선적이며 이마가 넓고 사각의 턱선과 전체적으로 얼굴이 네모난 형이다.
- 역삼각형 : 이마가 넓고 크며 양미간이 넓고 턱선이 좁으며 광대뼈가 높게 자리잡은 얼굴형이다.
- 삼각형 : 헤어라인이 일정치 않으며 넓은 턱선, 양쪽 광대뼈 사이가 좁으며 양미간이 좁은 얼굴형이다.
- 다이아몬드형 : 좁은 이마, 높고 불거진 광대뼈, 좁고 뾰족한 턱을 가진 얼굴형이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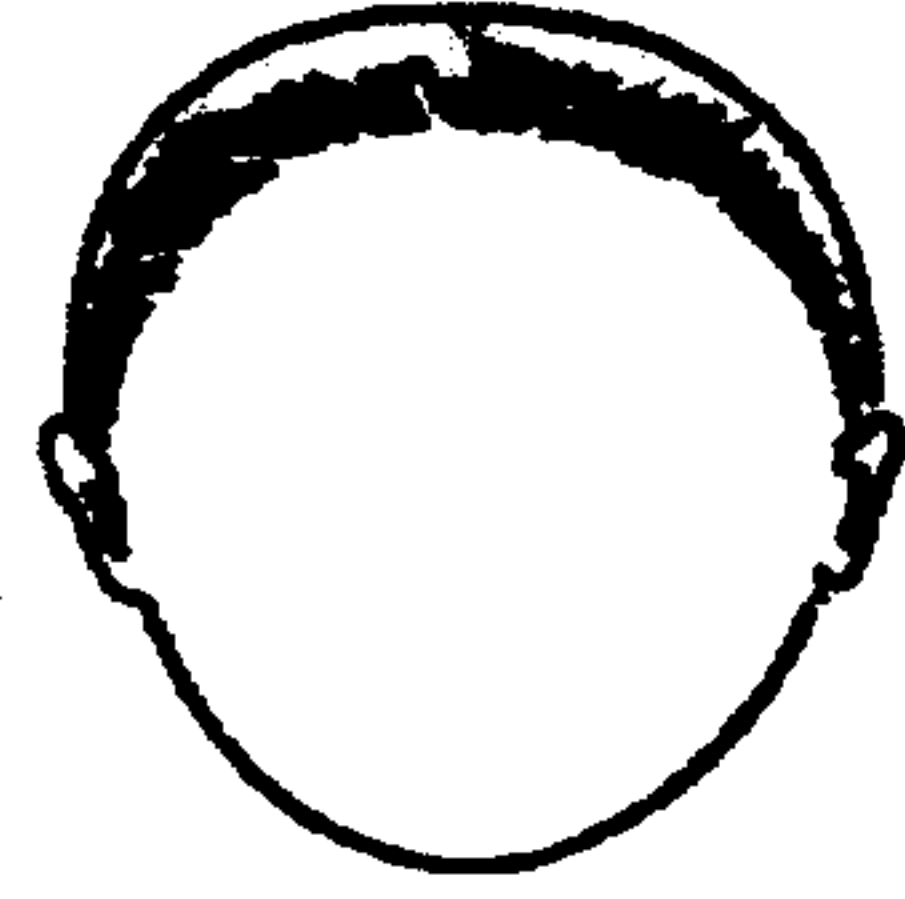
58) 강경화,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32~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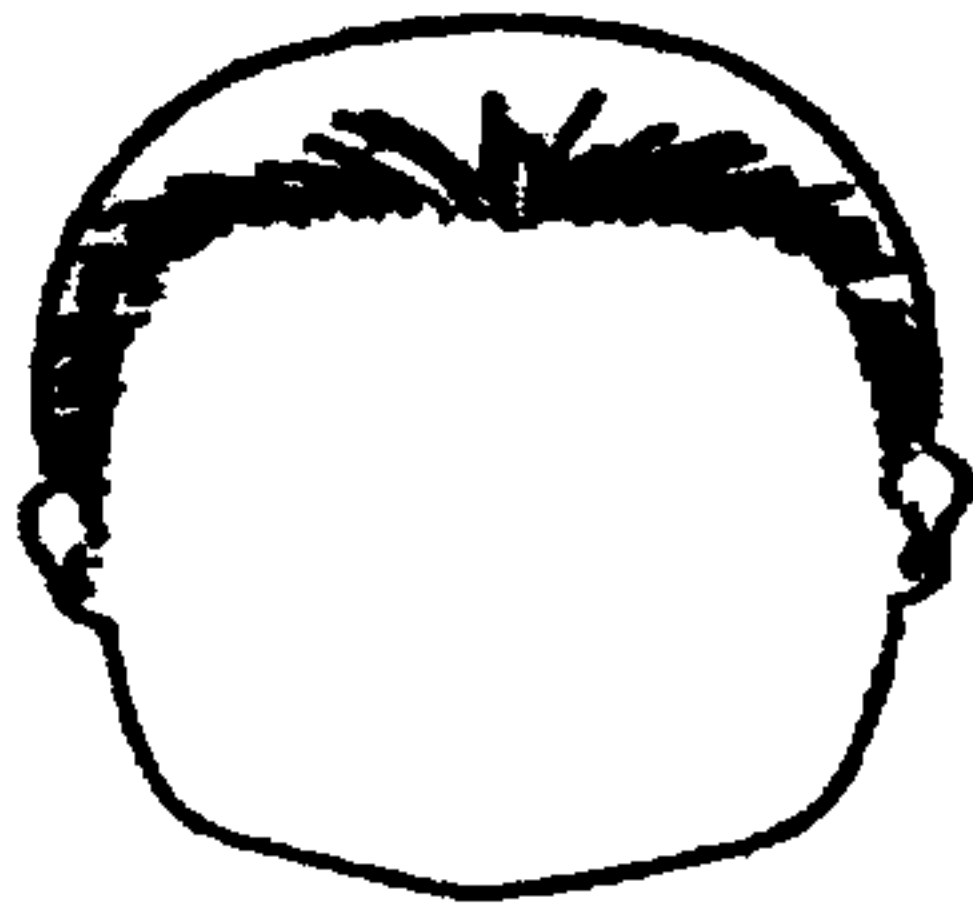
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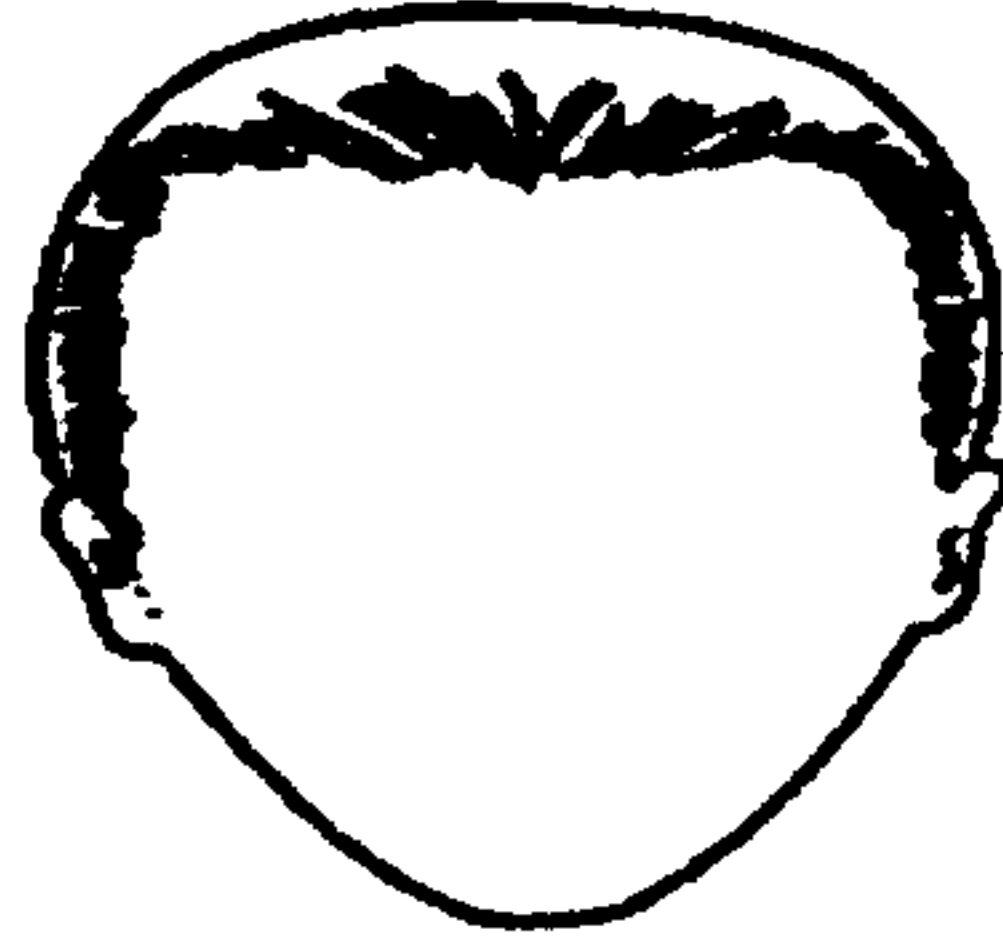
동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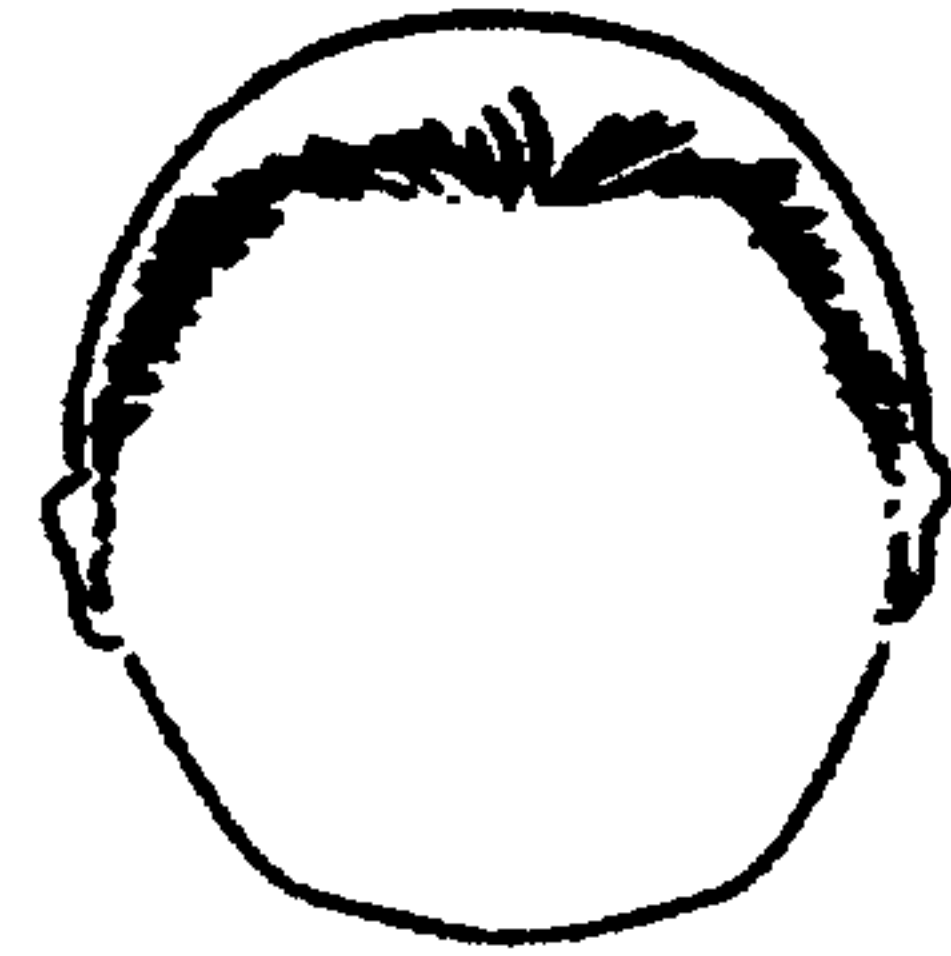
표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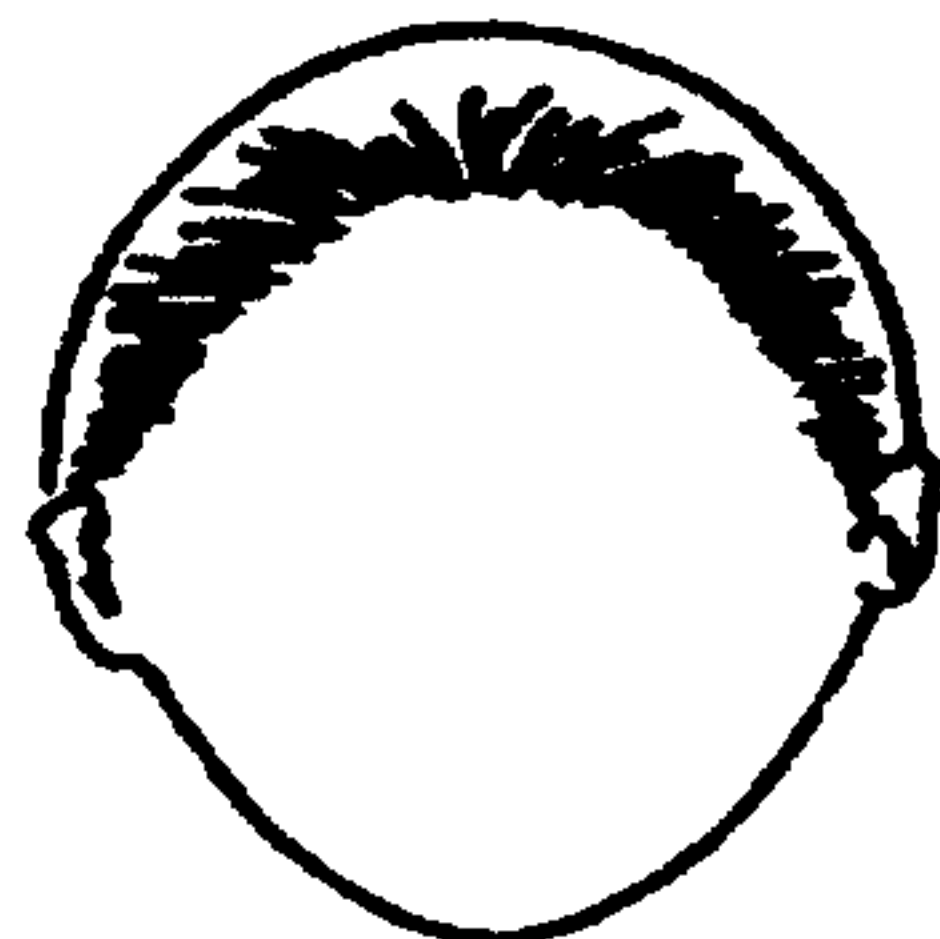
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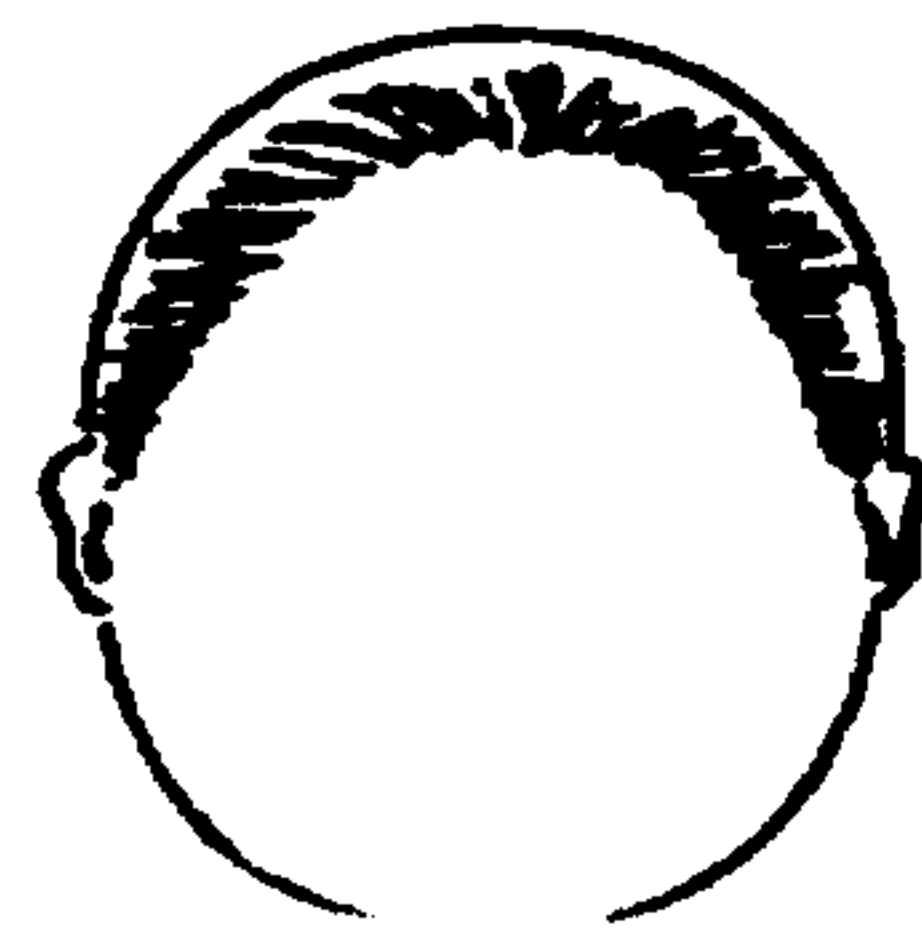
삼각형



육각형



서양배형



다이아몬드형

그림8. 얼굴의 형태



그림9. 둥근형(Round face)

얼굴형을 수평방향으로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중앙부분이 넓어보이는 형을 말한다. 헤어라인은 둥글게 보이며, 양턱은 짧고 각이 없으며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얼굴형은 짧게 보이며, 얼굴 넓이의 길이가 거의 같아 보인다.



그림10. 타원형(Oval face)

타원형은 중간 부분이 넓어 보이고 아래 부분은 좁아보여 매우 이상적인 얼굴형이라 말할 수 있다. 헤어라인은 둥글며 타원형은 이마와 얼굴 길이의 넓이보다 보통 길게 보인다.



그림11. 사각형(Square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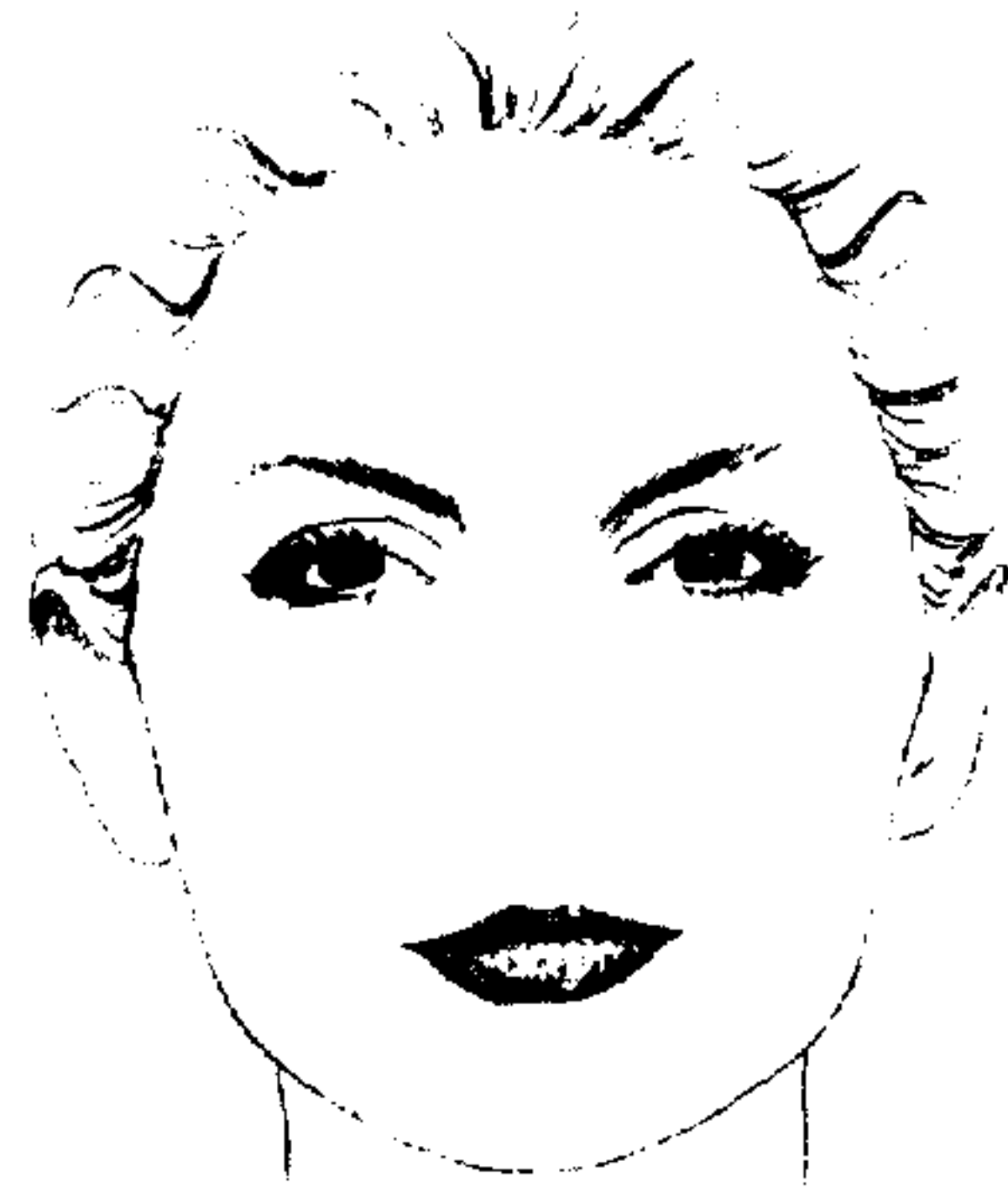
사각형은 얼굴을 3등분하면 넓이가 거의 같아 보인다. 헤어라인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턱은 각이 있어 돌출 되어 보인다.

따라서 사각형은 이마와 턱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얼굴형은 짧으며 얼굴의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등하다.



역삼각형의 얼굴은 윗부분 이마가 넓으며 아래턱 부분이 좁고, 뾰족한 선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헤어라인 부분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얼굴형은 얼굴 면적보다 길이가 짧게 느껴지는 얼굴이다.

그림12. 역삼각형 (Uninverted Triangular face)



얼굴 중앙부분이 넓으며 돌출된 형태로 얼굴 상하 부분이 좁은게 특징이다. 다이아몬드형의 양턱은 약간의 각진 것 보다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얼굴에 속하는 형이다.

그림13. 다이아몬드형 (Diamond face)



얼굴 3등분의 넓이는 거의 동일하며 전체적으로는 길쭉한 얼굴형이다.

긴얼굴형은 대부분 이마나 턱이 발달해 있으며, 코가 긴편이다.

그림14. 긴형 (Oblong face)

출처 : 한명숙,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저자는 메이크업의 실례까지 들어 보이며 그 형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해놓고 있다.

이러한 얼굴 형태에 대한 더 以前의 研究는 1930년대 미국 헐리우드의 Westmore家 형제들이 골상학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얼굴이 일반적으로 7가지 형태 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계란형, 장방형, 정방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이 그것인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기본형을 합친 형일 수도 있다.

계란형 얼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얼굴의 폭보다 길이가 약간 길고 눈, 코, 입의 균형이 적합하여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표준적인 비율(Proportion)을 가지고 있다.

긴 얼굴은 길이가 아주 길고 가는 형태로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의 길이가 폭의 두배가 되기도 하며 둥근 얼굴은 길이와 폭이 거의 동일하고 이마와 턱 부분이 아주 둥근 느낌을 준다. 한편 사각 얼굴은 둥근 얼굴처럼 얼굴의 길이와 폭은 같지만 턱 선과 헤어라인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고 가장자리 선이 또렷하게 각져 보인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얼굴은 광대뼈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가장 넓고 이마와 턱 선이 좁아 끝이 더 뾰족하게 보인다.

턱 선이 아주 좁고 이마가 넓은 형태인 역삼각형 얼굴은 되도록 삼각형 얼굴의 형태로 메이크업하는 것이 보기 좋다.

삼각형 얼굴은 턱 선이 가장 넓고 이마가 좁다.

자신의 얼굴 형태를 아는 것은 메이크업의 기본인 만큼 반드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얼굴형을 만들기 위한 메이크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신의 원래 얼굴형이다.

위의 모든 분류들의 통계를 내어 보면 얼굴형은 타원형,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형태가 타원형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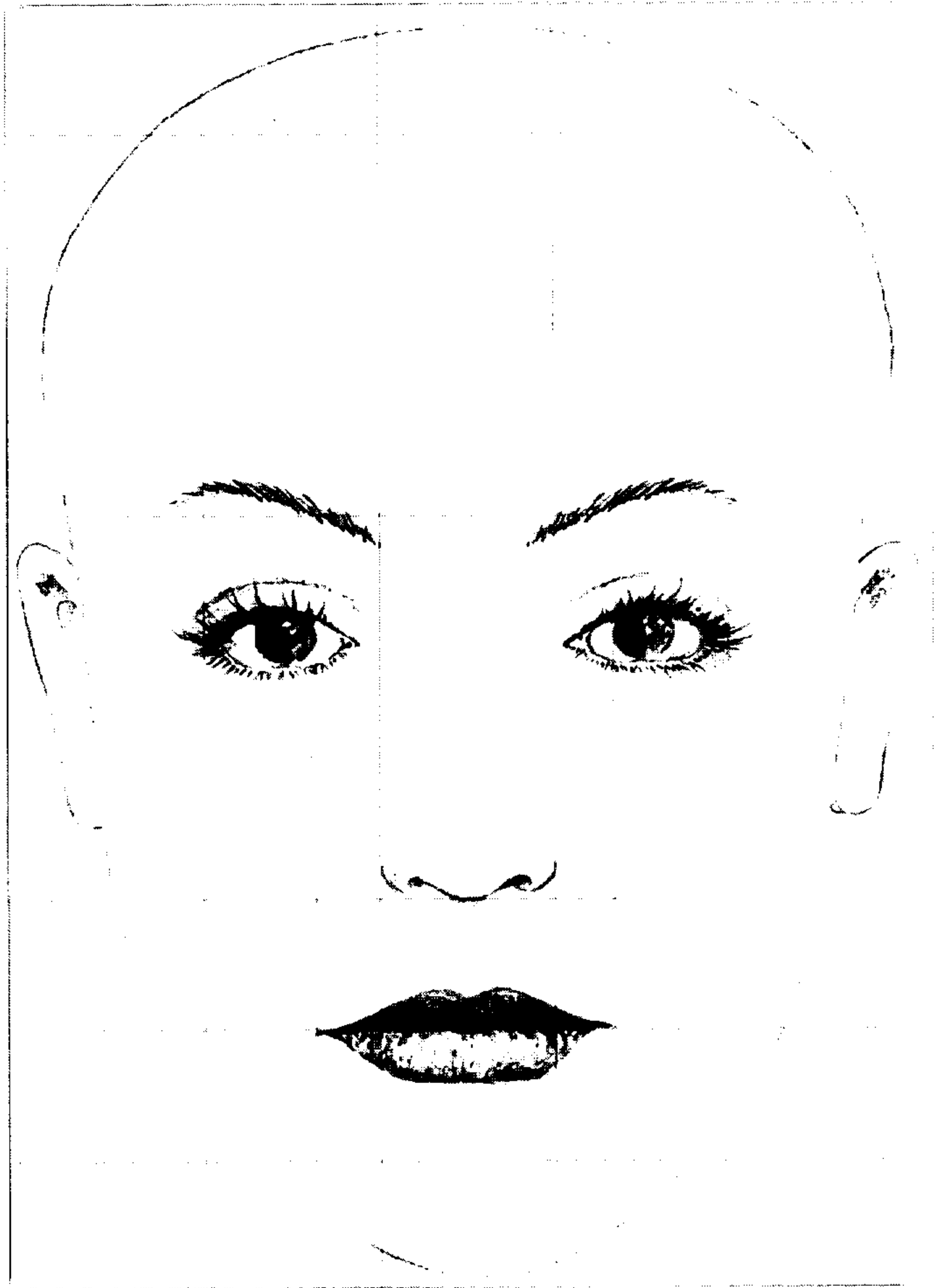


그림15. 얼굴의 균형(Face proportion)

① 얼굴의 폭

얼굴정면을 가로로 분할하면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콧망울까지, 턱끝까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진다.

② 얼굴의 길이

얼굴정면을 세로로 분할하면 헤어라인에서 눈꼬리까지, 눈꼬리에서 눈앞

머리까지, 눈앞에서 반대 눈앞머리까지, 눈머리에서 눈꼬리까지, 눈꼬리에서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누어진다.

③ 눈썹

이상적인 눈썹의 위치는 이마에서 1/3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④ 눈머리의 위치

눈머리는 콧망울에서 일직선으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점에 위치한다.

⑤ 눈썹의 길이

눈썹의 길이는 45° 각도로 콧망울에서 눈꼬리를 지난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⑥ 눈과 눈사이의 거리

이상적인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눈의 길이와 같다.

⑦ 콧망울의 위치

콧망울의 위치는 이마에서 2/3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⑧ 콧망울의 넓이

콧망울의 넓이는 입술넓이의 약 1/2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⑨ 입

입술은 모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눈동자 안쪽선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이며 이상적인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1:1.5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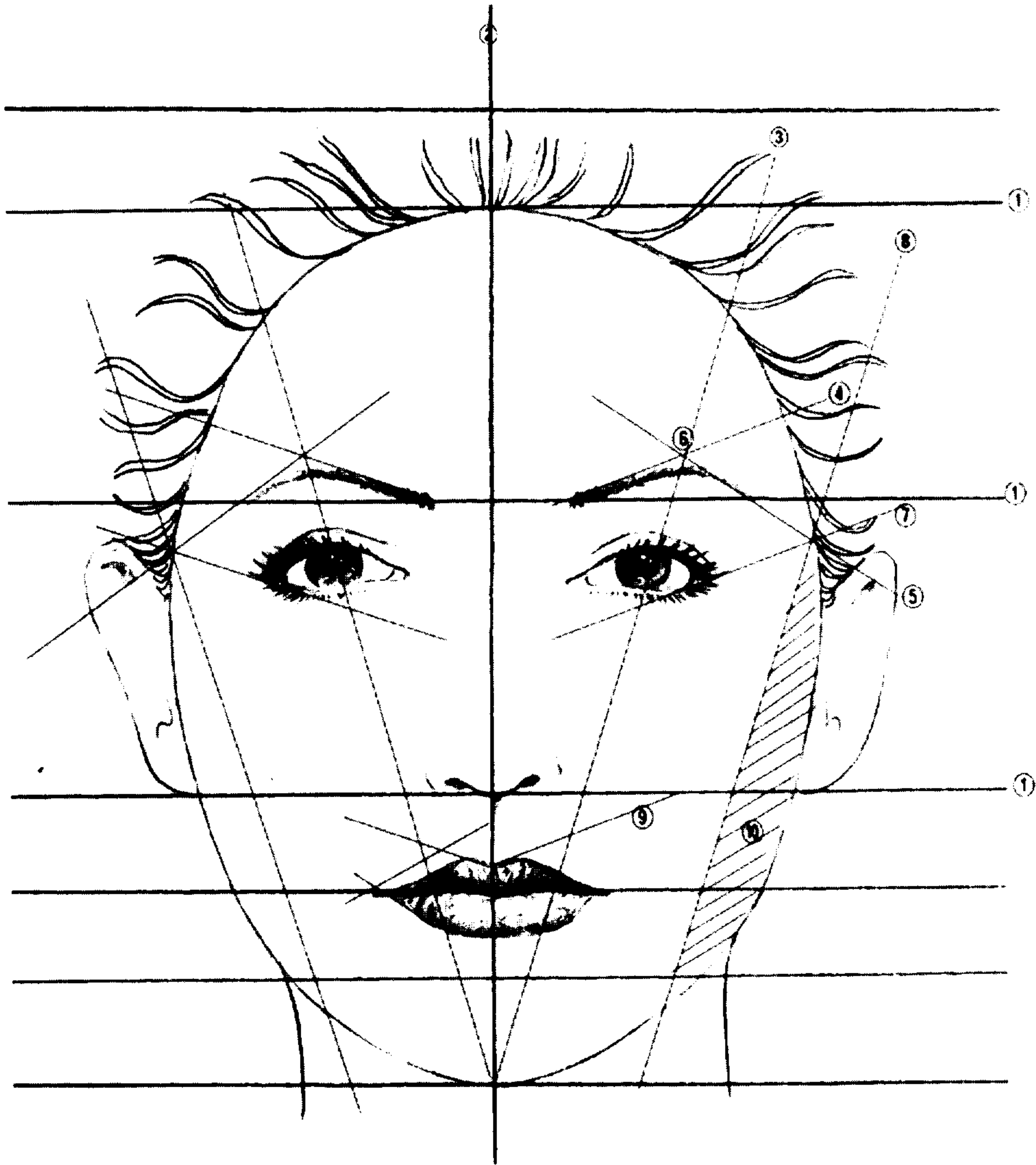


그림16. 얼굴의 황금비율 메이크업 기본원리

- ① 헤어라인에서 눈썹선, 눈썹선에서 콧망울선, 콧망울에서 턱끝선까지를 수평으로 3등분한다.
- ② 이마중심에서 턱중심까지 얼굴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 ③ 턱 중앙끝에서 눈동자 중심을 지나는 부분까지 선을 긋는다.

- ④ 눈썹의 상승방향으로 선을 긋는다.
- ⑤ 눈썹산에서 내려오는 하향선을 긋는다.
- ⑥ ③④⑤의 만나는 점을 눈썹산으로 결정한다.
- ⑦ ④번선의 각도로 눈밑 언더라인선을 긋는다.
- ⑧ ⑦과 ⑤번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③번선과 같은 각도로 관자놀이에서 턱선까지 향하는 선을 긋는다.
- ⑨ ④번선의 각도로 윗입술의 윤곽선을 정한다.
- ⑩ ⑧번선의 바깥쪽부분으로 어둡게 표현한다.

얼굴 인식에서 얼굴 이미지가 갖는 특징으로는 분류될 얼굴의 수가 엄청나며 거의 무한하다. 또 모든 얼굴은 두 개의 눈, 하나의 코, 하나의 입, 두 개의 귀를 가지는데 이들의 위치는 거의 유사하며 대부분의 얼굴들이 비슷하다. 결국 얼굴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눈이나 코, 입 등이 그 뚜렷한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류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얼굴 길이, 폭,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 둥글고, 각지고, 짧고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면 무난하다.

다음에 그림을 참고하면⁵⁹⁾,

59) 이경하, 앞의 책,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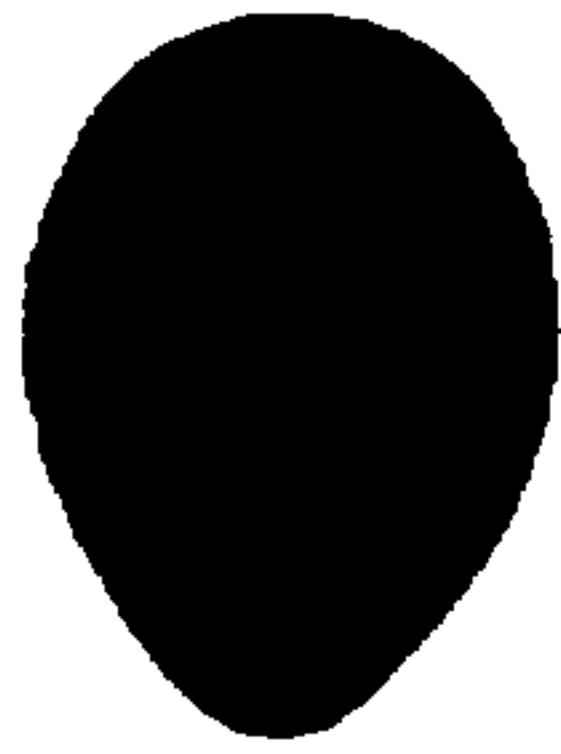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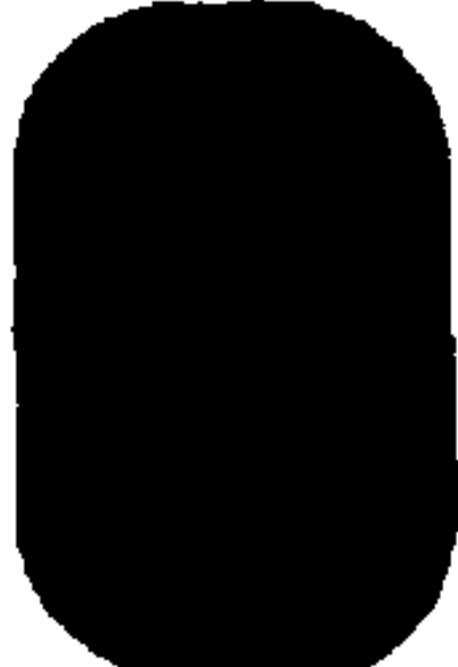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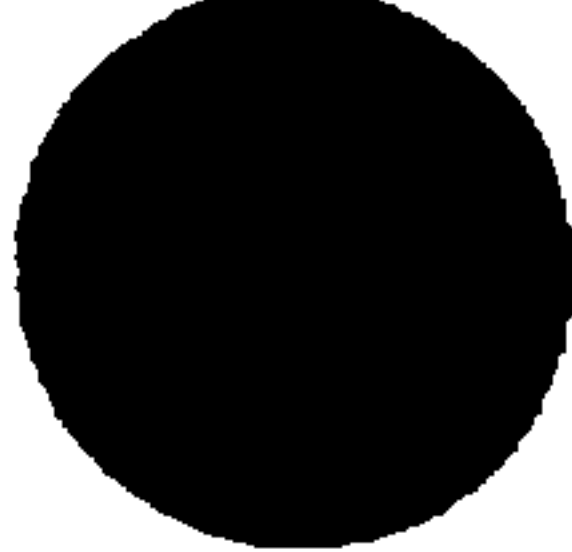
	보통 얼굴	긴 얼굴	짧은 얼굴
타원형			
육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사각형			
둥근형			

그림17. 얼굴길이에 관한 비교분석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의 형태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데 얼굴 골격의 기본적인 구조, 얼굴 생김새의 배열, 음영 등 모두가 메이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아름다움은 각 부분 부분이 합해져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그것이 전체 이미지에 미치는 균형(proportion)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형을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메이크업을 알려 주기 때문이고⁶⁰⁾, 또한 인상학과 메이크업의 조화를 꾀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는 것이다.

3. 눈의 이미지와 분석

눈의 이미지에 대한 기록은 인상학이나 의학 또는 두뇌인류학에서도 많은 부분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여 인간의 생각을 담아 보여주는 거울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눈은 인간에게 있어 첫인상이나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 요소가 된다. 강덕구는 신체어 어휘소의 다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는데, 그 어휘소 중에서 눈에 대한 많은 다의 구조를 밝힌 바 있다⁶¹⁾. 즉, 유사지각이나 인접지각에 의한 정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신체 어휘소로 눈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눈이 인간의 신체에서 차지하는 이미지의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눈에 대한 인상학적 이미지, 의학적 이미지, 영상기호로서 가지는 이미지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하였다.

60) 이화순, 앞의 책, 34쪽.

61) 강덕구, 한·일어 신체어 어휘소의 다의 구조 연구: 얼굴·눈·머리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5, 30쪽.

1) 인상학적 분석

인상학에서는 눈의 이미지를 눈매, 쌍꺼풀의 생김, 흰자위의 많은 정도 등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눈두덩이나 눈 꼬리, 누당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보는 눈의 이미지보다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⁶²⁾.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은 팔자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속눈썹이 많은 여성은 손재주가 좋다는 등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으며 점의 유무(有無), 위치(位置)에 따라서도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기도 한다. 즉, 일반적인 눈의 이미지를 균형안에 비교한다면 비 균형안일수록 다양하고 색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눈이란 만물을 관찰하고 감지하는 시각기관의 통칭으로 감찰관이라고 한다. 눈은 정신이 머무는 곳이며, 눈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비추이게 된다⁶³⁾.

한편 눈을 보고서 현재의 운기를 알아내는 지표로 삼았다. 즉, 성격, 안정감의 유무, 끈기와 인내력의 강약, 담력의 대소, 지모의 정도, 품성의 선악, 침착성의 여부, 경륜과 지도의 정도, 간사함의 여하, 호색의 정도, 병고의 진단, 관재와 형액의 유무, 수명의 진단, 부부간의 연분의 소밀 등도 알아보는 단서로 삼았다.

오근재의 경우도 인상학에 대한 정의를 논하면서 눈, 코, 입 등은 얼굴의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얼굴 표면의 표지물이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과 입이라고 한 바 있다⁶⁴⁾. 이처럼 눈의 이미지는 인상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62) 윤명중, 얼굴에 나타난 당신의 인생·당신의 미래, 동학사, 1999, 87~114쪽.

63) 김성현, 앞의 책, 192~193쪽.

64) 오근재, 영상기호로서의 눈의 표정에 관한 연구: 인상학적 담론에 근거한 얼굴형과 구조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1999. 2, 124쪽.

2) 의학적 분석

일반적으로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많은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으로서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눈으로 건강을 판단하는 일은 인상학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인상으로 본 질병들이라 하여 “건강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⁵⁾.

사실 눈의 안구 운동이나 흰자위, 눈동자, 눈썹 등의 색깔은 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들도 선명한 정도나 눈빛의 광채 등으로 개인의 건강을 짐작한다는 것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

의학정보 1976, 8월호에 나타난 「허결의 눈의 이상으로 알 수 있는 전신질환」이란 연구에서 보면, 의학 분야에서 눈을 건강의 지표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허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전신질환에서 우리 눈은 중요한 정보를 주고, 때로는 미리 경고를 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다룬다면 눈 자체의 생명인 시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체의 생명까지도 긴박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⁶⁶⁾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눈은 마음의 창」이기도 하면서 「건강의 창」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의학자나 인상학에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인 것이다.

65) 김성현, 앞의 책, 303쪽.

66) 허결, 눈의 이상으로 알 수 있는 전신질환, 의학정보, 1976. 8 참조.

3) 영상기호로서의 분석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일이나 비디오, TV 화면 등에 등장 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영상에 비치는 모습은 실제의 모습을 아주 객관적이거나 혹은 현실과는 다르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TV 수상기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비자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일치된 좋은 인상에 대한 이미지 편차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즉,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기본형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그러한 실제 연구를 오근재는 “영상기호로서의 눈의 표정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인상학적 담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눈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얼굴에서 눈은 개인의 이미지와 표정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 간격, 크기, 구조, 빛 등이 이미지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연구한 결과 그는 작은 눈이 보다 큰 눈, 균형 잡힌 눈, 정상적인 눈이나 어미가 약간 아래쪽으로 흐르는 눈, 미간이 넓은 눈, 삼백안이나 사백안이 아닌 눈, 자궁안이 아닌 눈(작눈) 등이 좋은 이미지를 송출하는 눈이라고 증명하고 있다⁶⁷⁾. 물론 이 경우는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없는 일반적인 영상에서의 연구 결과이다.

이렇게 볼 때 영상기호로서의 전체 이미지 속에서도 눈이 차지하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67) 오근재, 앞의 책 참조.

4. 눈의 형태 분석

1) 일반적인 눈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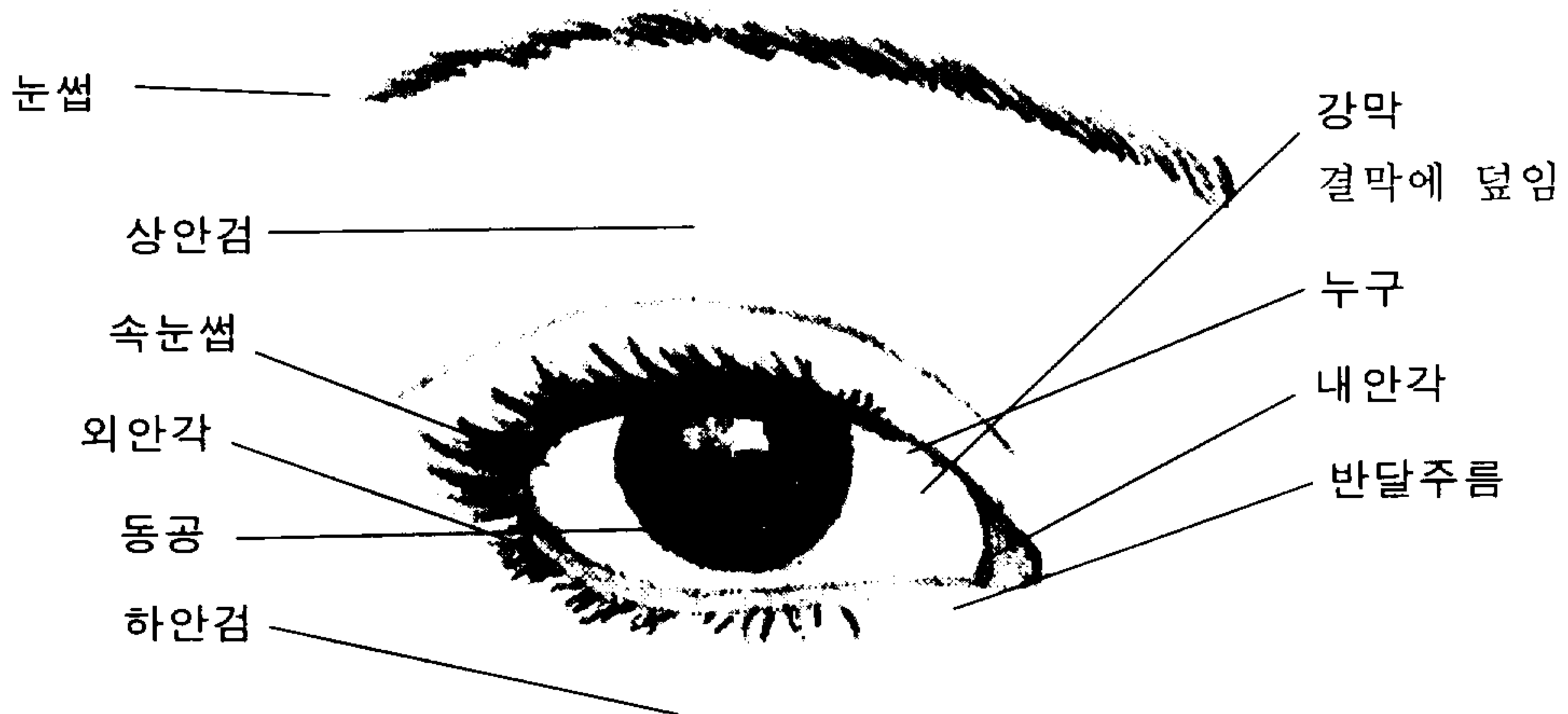


그림18. 눈의 외형

출처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94, 637쪽.

위에서 보면 눈의 부분별 명칭은 주로 의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어지지 않으며, 동공 · 각막 · 속눈썹 · 눈썹 등의 일부 명칭만이 익숙할 뿐이다. 또 눈의 형태 속에 눈썹을 포함해서 다룬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인상학이나 메이크업에서는 눈썹을 별도로 분리해서 다루거나, 눈 화장 이후 별도의 화장술을 통해 조화를 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의 형태를 논할 때는 눈썹까지 함께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메이크업이나 인상학에서도 눈과 눈썹을 하나의 구조로 통일하여 다룬다면 앞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2) 인상학에서 불리는 눈의 형태

인상학에서 보는 눈의 각 부분 명칭은 약간 다르다. 인상학에서 불리는 눈의 각 부분의 명칭 중에도 잘 알려진 명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명칭이 있다.

다음 그림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림19>의 눈 머리, 어미나 <그림20>의 눈꺼풀 같은 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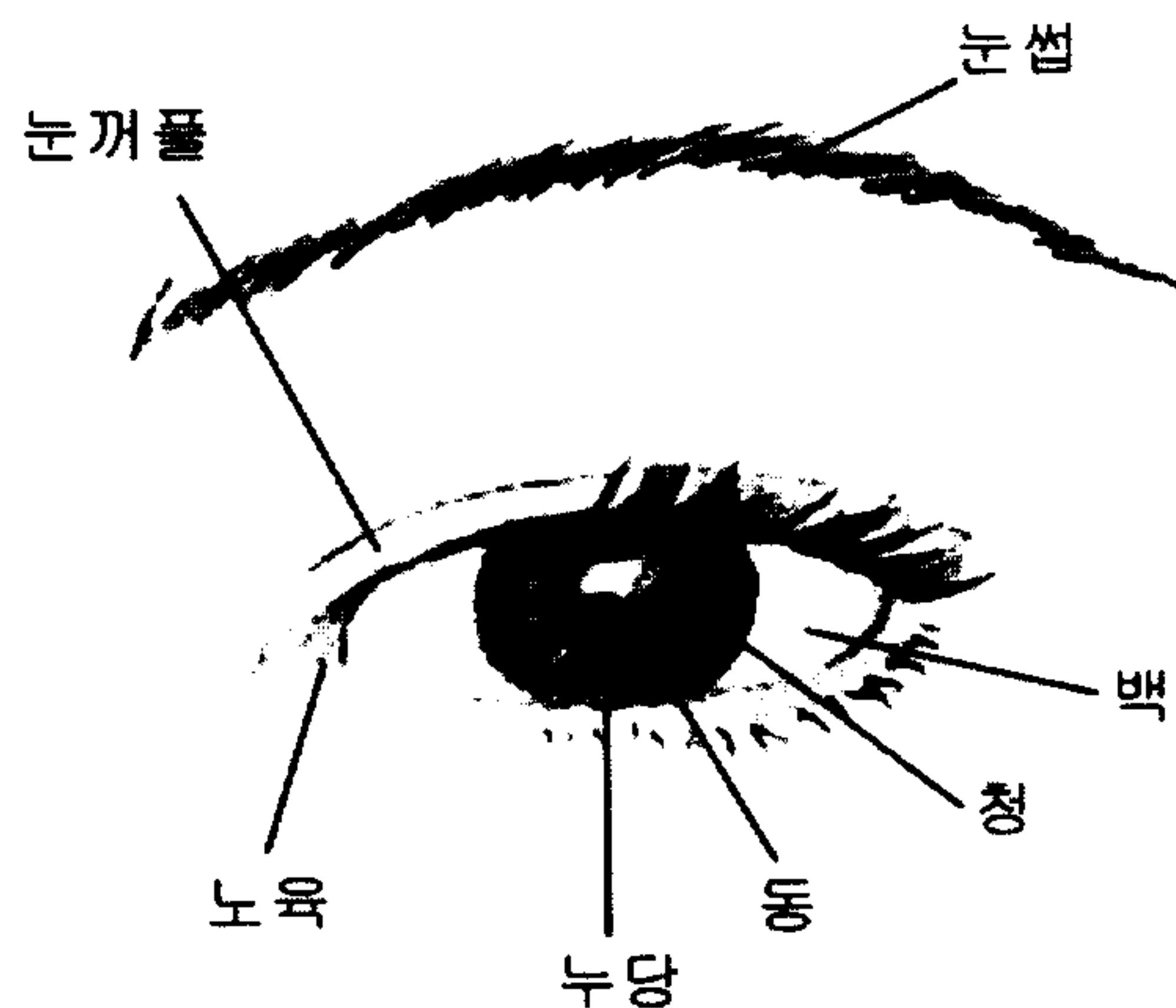


그림19. 인상으로 본 눈의 구조

출처 : 윤명중, 얼굴의 미학, 동학사,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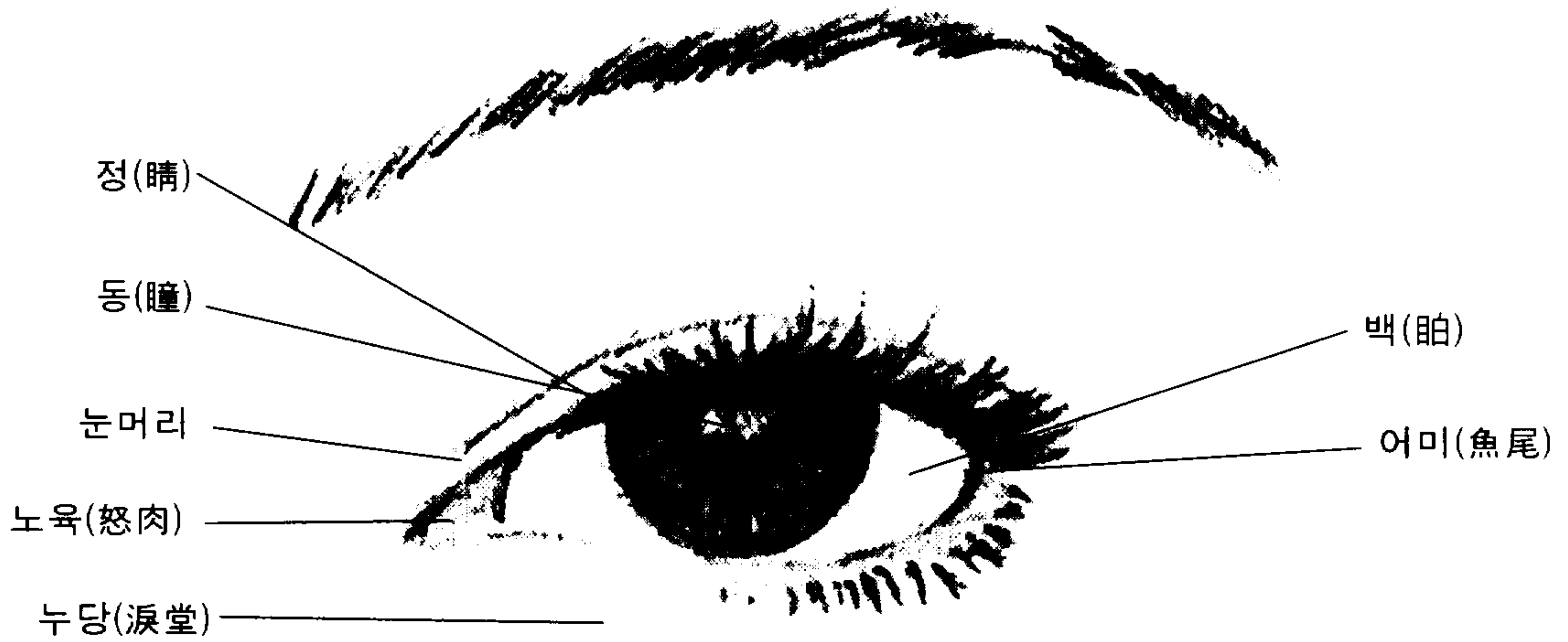


그림20. 눈의 각부의 명칭

출처 : 안태영, 안구의 얼굴사전, 명문당, 171쪽

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에도 인상학적 용어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불리는 명칭보다는 내용을 풀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흰자위나, 눈 두덩이, 눈 꼬리 등의 우리말 표현이 그것이다.

(2) 형태

인상학적으로 본 눈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눈의 형태는 눈 전체의 모양, 크기, 쌍꺼풀의 유무 등이 되겠으나, 여기서는 눈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함께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흰자위나 눈동자 색, 누당(淚當) 등을 포함한 각 부분별 명칭이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

고 있다. 여기서는 윤명중의 「얼굴의 미학」과 안태영의 「얼굴사전」을 근거로 눈의 형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⁶⁸⁾.

① 눈 전체의 모양 : 눈 전체의 모양이 둥글거나 가느다란 경우를 말한다. 눈의 모양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길흉이 다르다고 한다.

② 미간의 넓이 :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지나치게 넓은 눈, 좁은 눈, 눈이 하나정도 더 들어갈 정도의 눈으로 나눈다.

③ 눈의 크기 : 눈 전체의 크기에 따라 큰 눈과 작은 눈으로 구분한다. 크고 자신 있는 눈이 목소리도 크고 운세가 발전적이라고 한다.

④ 눈동자의 색깔 : 눈동자의 색깔은 검게 보이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갈색이거나 줄무늬가 있어 노랗게 보이는 눈이 있다.

⑤ 흰자위의 색깔 : 흰자위가 사방으로 드러나는 눈을 사백안, 세 방향으로 드러나는 눈을 삼백안이라 하며, 하 삼백, 상 삼백의 눈도 있다. 또 흰자위의 빛깔이 푸른 빛을 띠는 눈을 경계하고 있다.

⑥ 쌍꺼풀의 유무와 생김새 : 쌍꺼풀이 있고 없느냐의 경우와 쌍꺼풀의 생김새가 각기 다른 경우가 있다. 쌍꺼풀이 이중, 삼중으로 되었거나 눈 머리부터 하나로 붙거나, 그렇지 않고 떨어져서 벌어진 경우 등이 있다.

⑦ 눈 두덩이와 누당(淚當)⁶⁹⁾의 불룩한 정도 : 지방이 많아 눈 두덩이가 불룩한 경우와 움푹 들어간 경우다. 또 눈 아래·누당이 불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⑧ 눈 꼬리의 모양 : 눈 꼬리가 아래로 향하거나 위로 올라간 경우가 있다. 또 눈 꼬리 부분에 주름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도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⑨ 눈알이 튀어나온 정도 : 눈알이 지나치게 튀어나와 통방울 눈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⑩ 사마귀나 점의 유무 : 눈 주위에 점이나 사마귀가 있는 경우다. 점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운세가 다르다고 한다.

⑪ 속눈썹이 많고 적음 : 속눈썹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68) 윤명중, 얼굴의 미학, 동학사, 1989, 101~102쪽.

69) 눈 아래 반원형의 부분을 말한다. 즉, 눈의 하반부에 해당된다.

- ⑫ 눈 안에 수분이 많고 적음
- ⑬ 양쪽 눈이 서로 짝눈인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상학에서 보는 눈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점의 위치만 해도 눈 위에 있는가 혹은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운세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⁷⁰⁾.

3) 메이크업에서 다루는 눈의 형태

위에서는 인상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눈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과 인상학에서 불리는 명칭이 약간씩 다른 점을 고려해서 메이크업에서 다루는 눈에 대한 부분적인 명칭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은 풀어쓴 우리말 중심으로 사용했다. 특히 메이크업에서는 점의 있고 없음이나, 눈에 수분이 많고 적음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또 한가지는 눈의 형태분석에 대한 뚜렷한 문헌이나 논문이 없고, 무분별하게 산적한 자료는 많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오근재의 「영상기호로서의 눈의 표정에 관한 연구」와 홍익대 강병석의 「메이크업 사례연구」, 한명숙의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아쥬 예술」이 좋은 자료가 되었다. 우선 눈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7가지 분류 기준을 정하고,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눈 형태를 제시하기로 한다.

70) 윤명중, 앞의 책, 112쪽.

(1) 눈의 형태

오근재의 경우 영상 이미지로서의 눈을 분석한 결과 작은 눈보다는 큰 눈이 좋고, 균형안이 좋으며 정상적인 눈으로 어미가 약간 아래쪽으로 흐르는 눈이 좋다고 했다. 명궁이 넓은 인물이 편안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고 있으며, 삼백안⁷¹⁾이나 사백안⁷²⁾의 인물을 피할 것과 크기가 서로 다른 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⁷³⁾.

이것은 인상학의 이미지와 많은 부분 닮아 있는데, 형태면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① 눈의 크기 : 전체적인 눈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 큰 눈과 작은 눈으로 나눈다.

② 쌍꺼풀의 유무 : 쌍꺼풀이 있고 없음에 따라 외꺼풀 눈과 쌍꺼풀눈으로 나눈다.

③ 미간의 넓이 : 미간이 넓은 눈과 좁은 눈으로 나눈다.

④ 안구 돌출여부 : 눈동자가 튀어나온 경우와 눈 두덩이가 수북하게 부은 경우를 튀어나온 눈(부어 보이는 눈)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움푹 패인 눈이 있다.

⑤ 눈의 모양에 따라 : 둥근 눈과 세모진 눈, 그리고 두 눈의 가운데 형태를 띠는 눈이 있다.

⑥ 눈 꼬리의 모양에 따라 : 눈 꼬리의 모양에 따라 위로 올라간 눈과 아래로 처진 눈이 있다.

71) 흰자위가 세 방향으로 드러나는 눈을 말한다.

72) 흰자위가 사방으로 드러나는 눈을 말한다.

73) 오근재, 앞의 논문, 122~126쪽.

⑦ 양쪽 눈이 서로 다른 경우 : 드문 경우이지만 두 눈의 생김새나 모양이 많은 부분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15가지의 경우는 메이크업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유형의 눈을 종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양분되는 형태 속에는 균형을 이룬 형태를 포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따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눈의 형태 분류

경우 분류기준	경우 1	경우 2	경우 3	경우 4 (짝눈인 경우)
크기	큰 눈	작은 눈	균형 안	
쌍꺼풀	없는 눈	있는 눈	속쌍꺼풀눈	
미간	넓은 눈	좁은 눈	균형 안	
안구돌출	튀어나온눈	움푹 패인눈	균형 안	
모양	둥근 눈	세모 눈	균형 안	
눈꼬리모양	올라간 눈	처진 눈	균형 안	

(균형안이란 일반적으로 <경우 1> 과 <경우 2> 의 중간 형태를 띤 것을 총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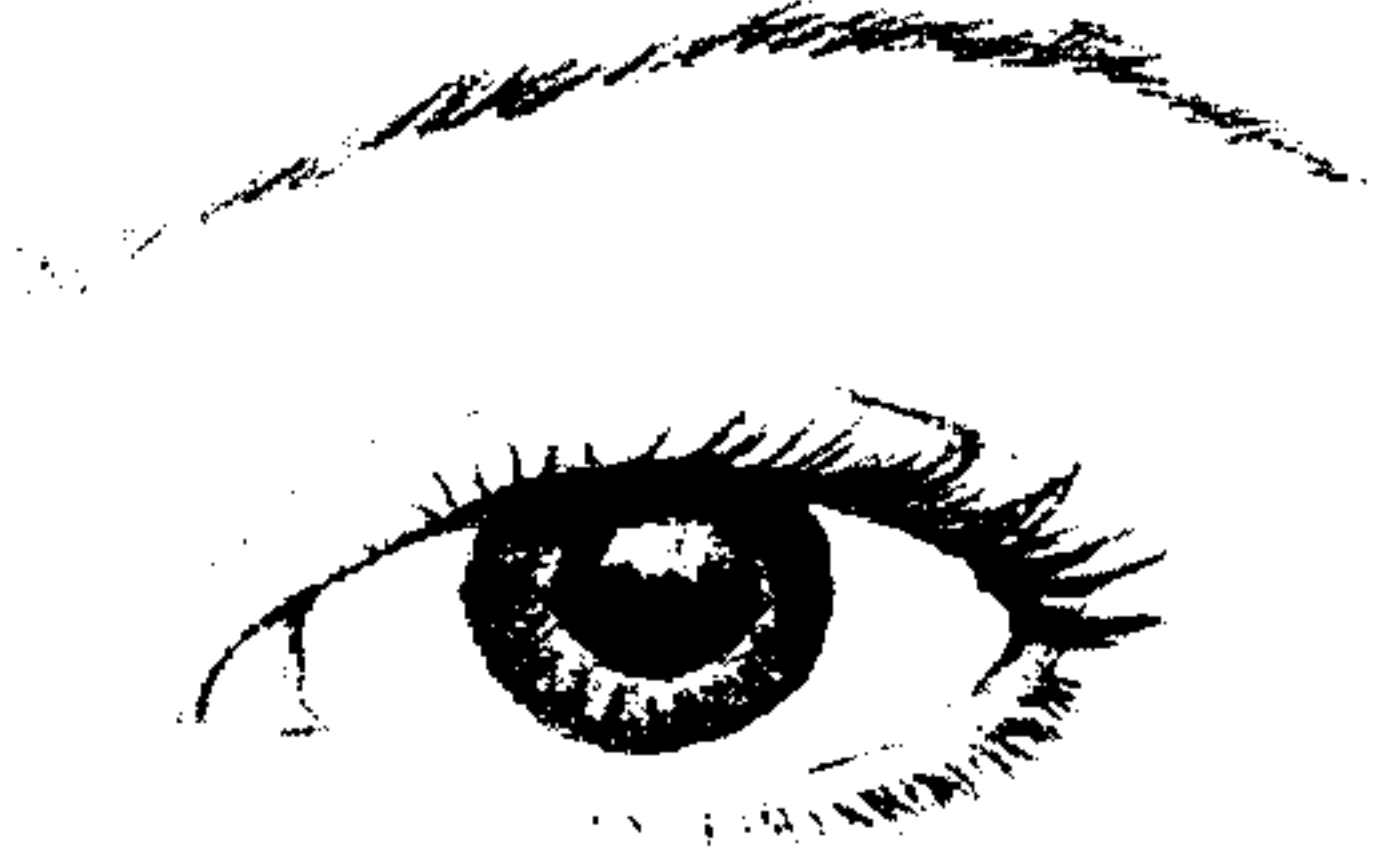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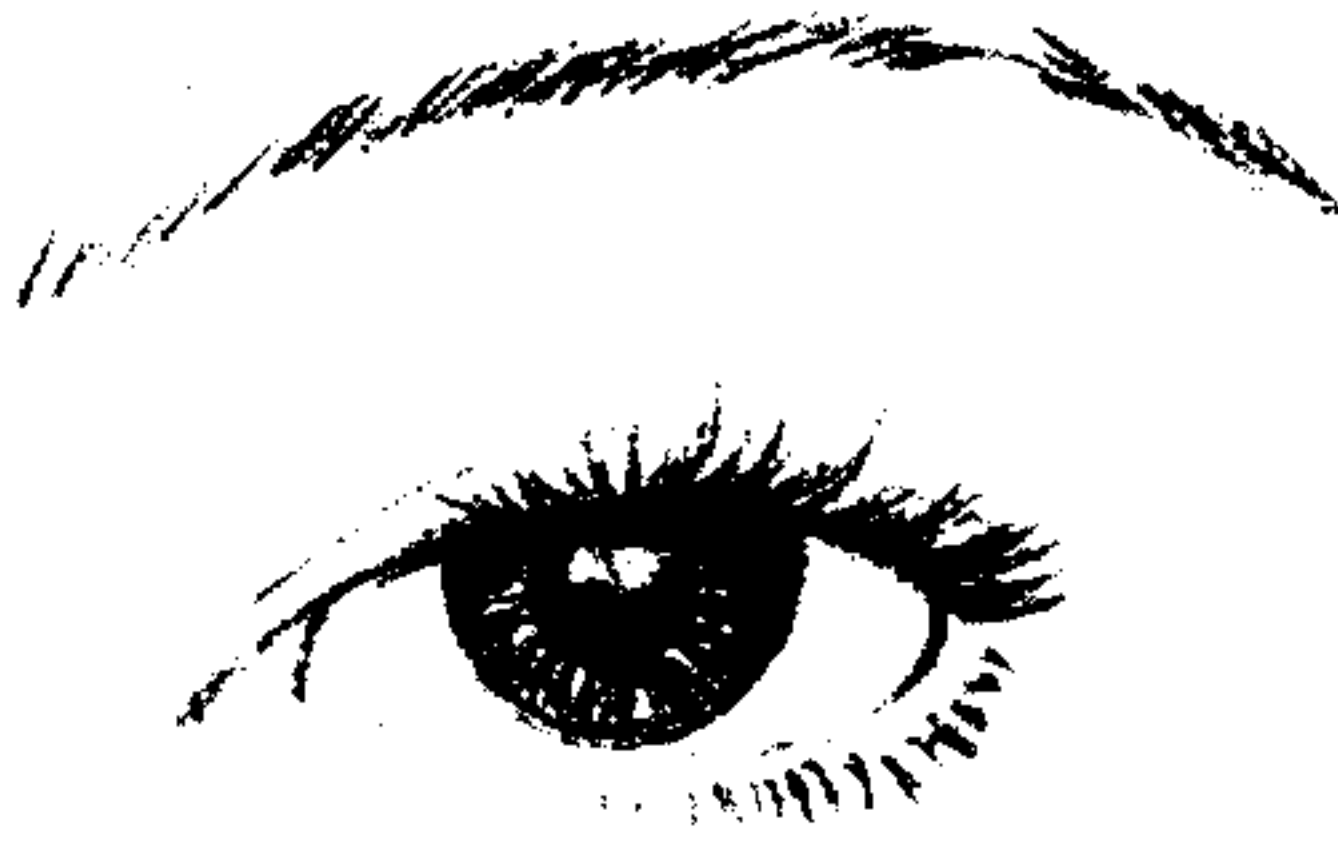

표 2에서 보았듯이 각각의 경우, 가능성이 모두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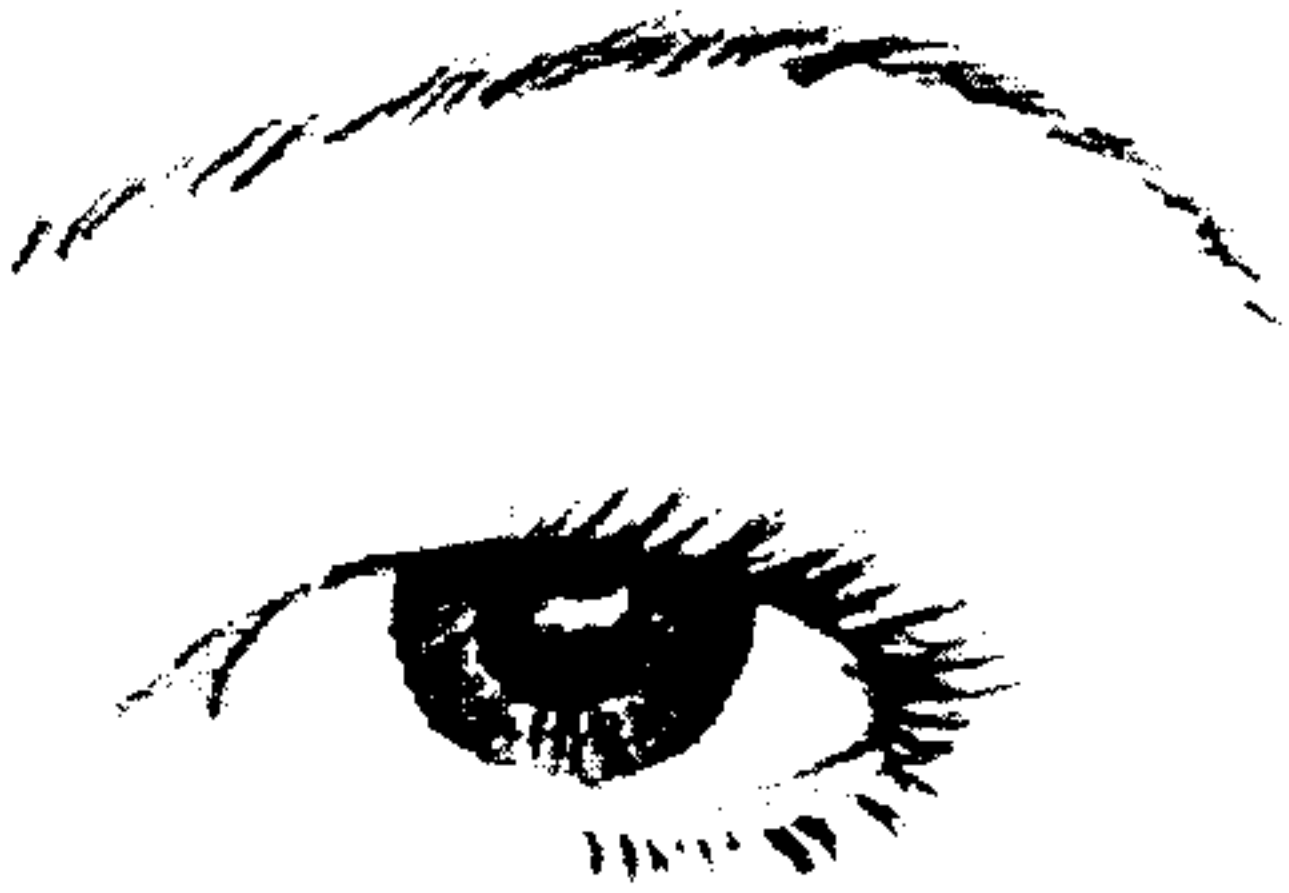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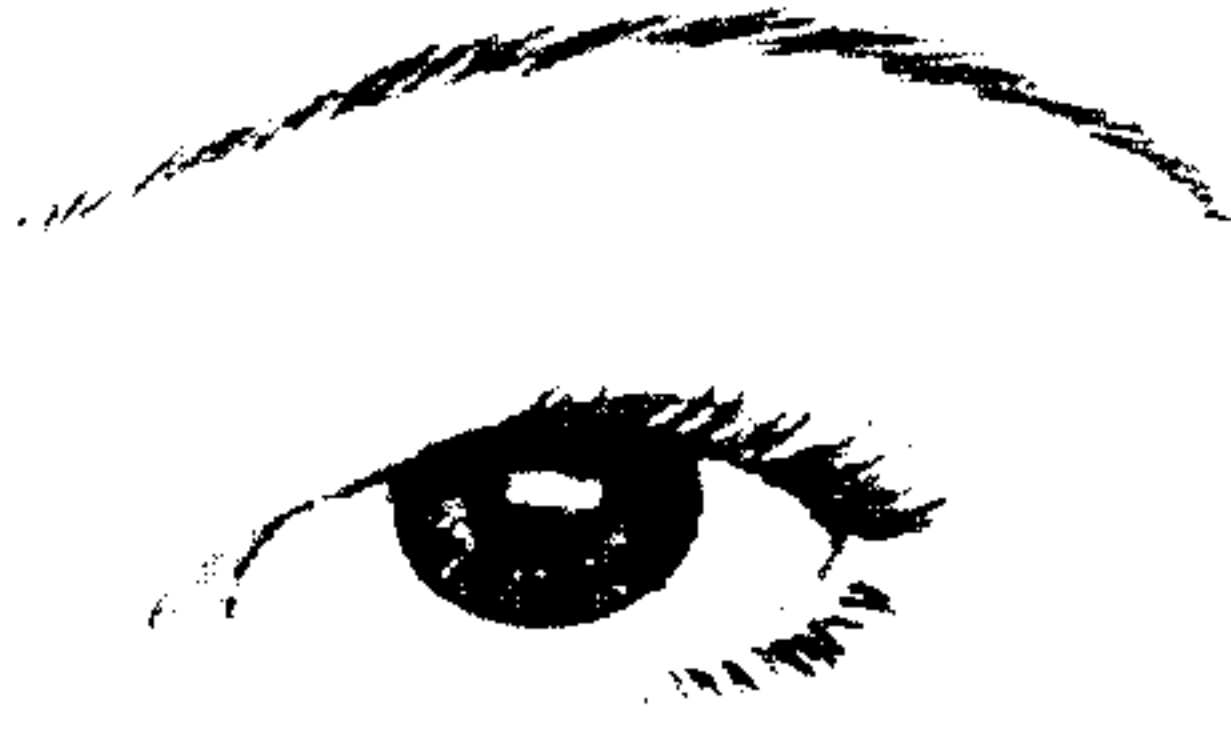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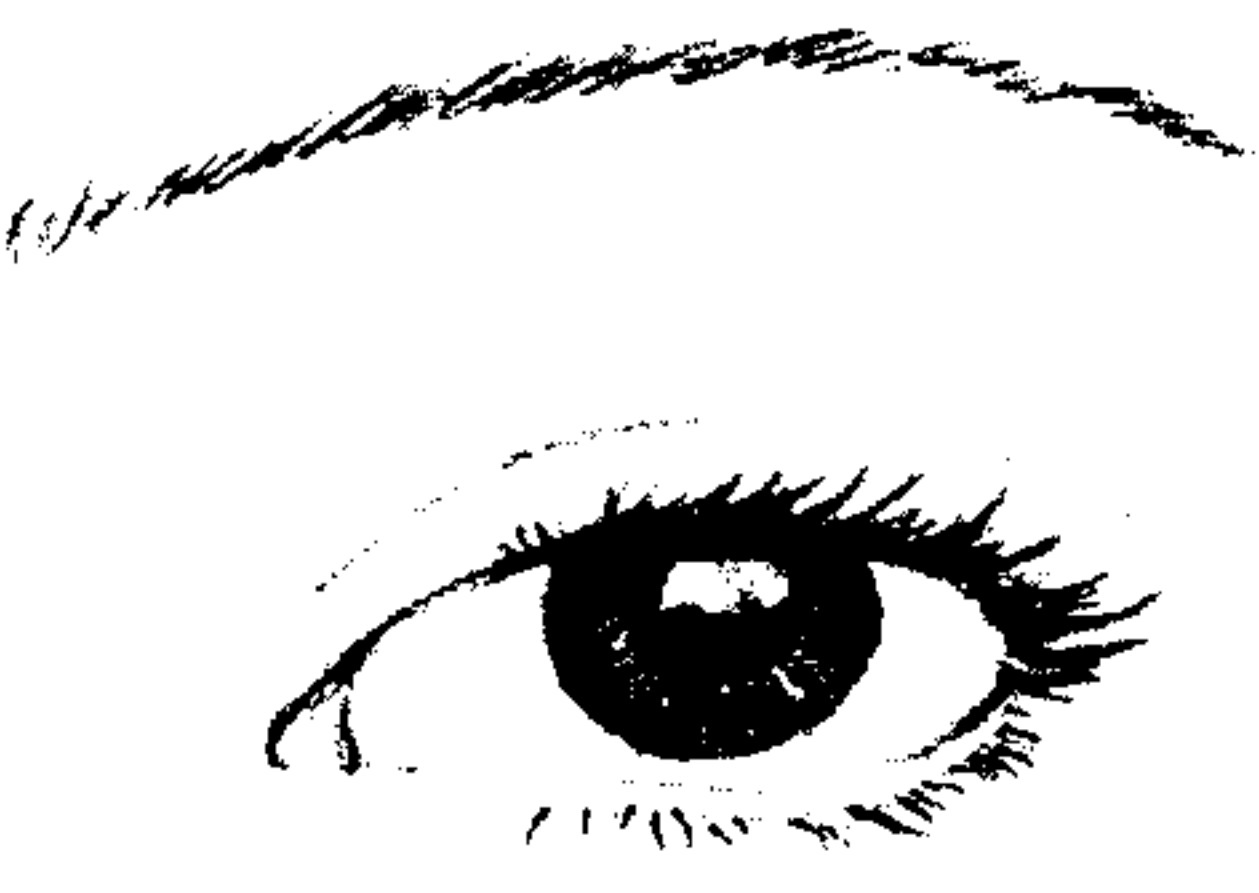

우선 <경우 3> 은 호형 안으로 바른 눈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경우 4> 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양 눈이 서로 다른 짝 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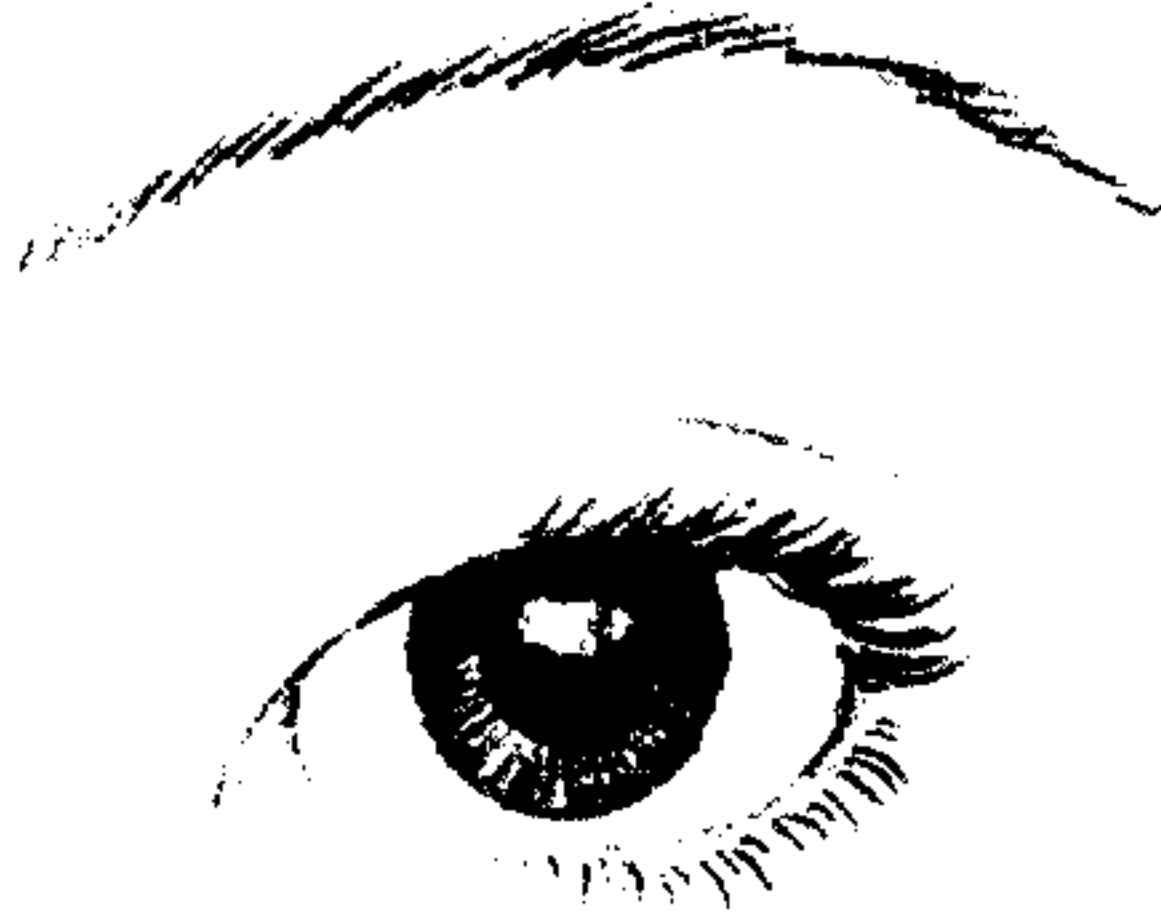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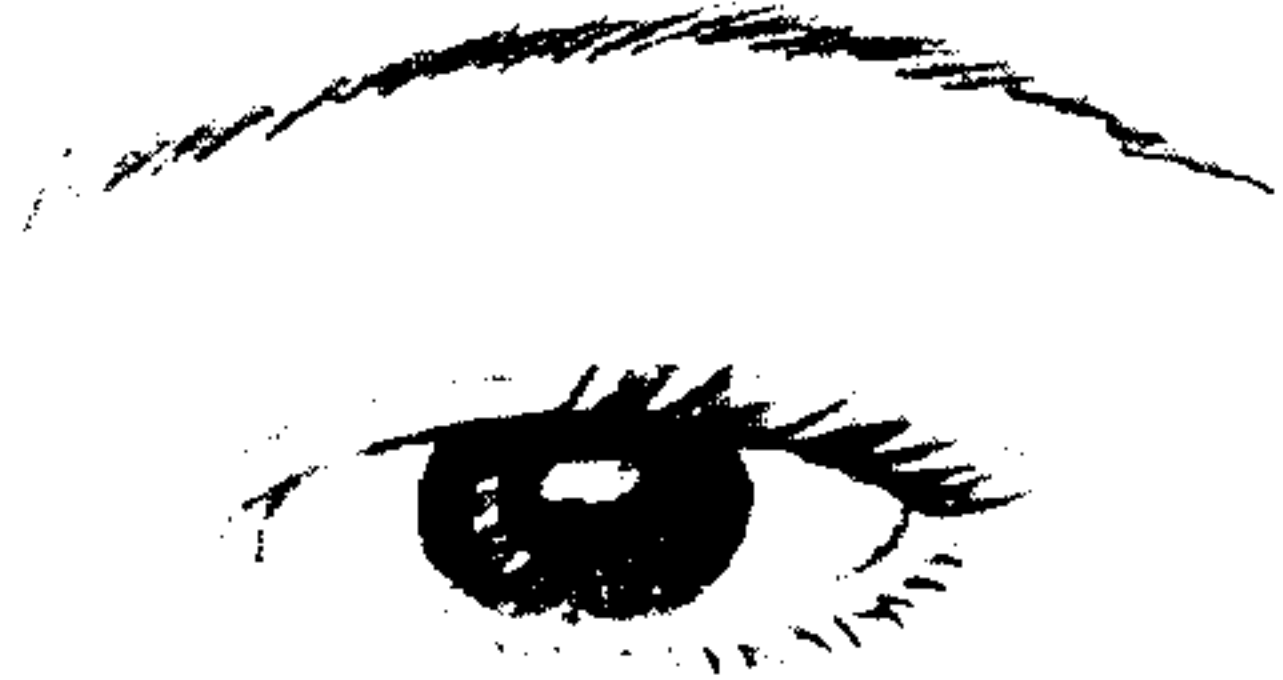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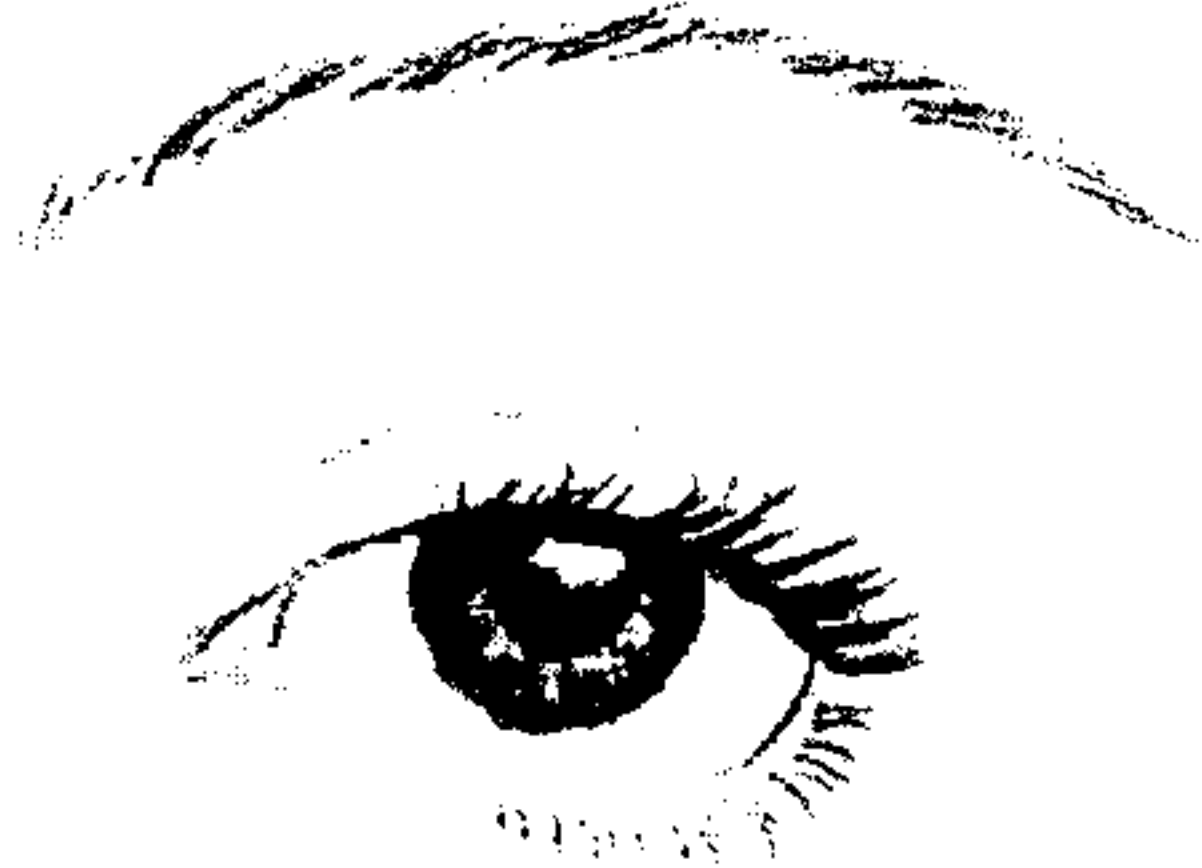

그렇다면 다음 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눈의 형태는 아주 많아진다⁷⁴⁾. 각 각의 눈은 적어도 한 가지 경우 이상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상학에서 지니는 운세의 향방을 메이크업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눈의 특성 중에는 균형안이 아니어서 오는 나쁜 이미지를 메이크업을 통해서 수정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운세를 불러올 수 있다.

74) 순열계산으로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경우 1> 에서만 120가지의 눈의 형태가 나온다. ($5 \times 4 \times 3 \times 2 \times 1 = 120$).

<p>균형안</p>		<p>우아하고 고상함, 인자함, 너그러움, 신선함, 총명, 희망 등의 인상</p>
<p>큰 눈</p>		<p>시원함, 명랑함, 사회성, 감수성, 정열, 풍부한 감정, 당황, 환상 등의 인상</p>
<p>작은 눈</p>		<p>의지, 인내, 귀여움, 소극적, 비밀, 편협, 답답함 등의 인상</p>
<p>쌍꺼풀 눈</p>		<p>밝음, 활발함, 서구적, 현대적, 성숙, 감수성, 슬픔 등의 인상</p>

외꺼풀 눈		순박, 담백, 청순, 내향적, 냉정, 고집 등의 인상
속쌍꺼풀 눈		상냥함, 안정, 다정다감, 귀여움 등의 인상
눈두덩이 나온 눈		건강, 의지, 고집, 심술, 통명스러움 등의 인상
눈두덩이 들어간 눈		부드러움, 섬세함, 현대적, 조숙함, 관찰력, 시원함, 피곤함 등의 인상

<p>등근 눈</p>		<p>명랑, 밝음, 경쾌, 놀람, 당혹, 불안, 공포 등의 인 상</p>
<p>가느다란 눈</p>		<p>섬세함, 예리함, 관찰력, 잔인, 냉정 등의 인상</p>
<p>처진 눈</p>		<p>온순, 순진, 비굴, 모자람 등의 인상</p>
<p>올라간 눈</p>		<p>주관적, 적극적, 날카로 움, 고집 등의 인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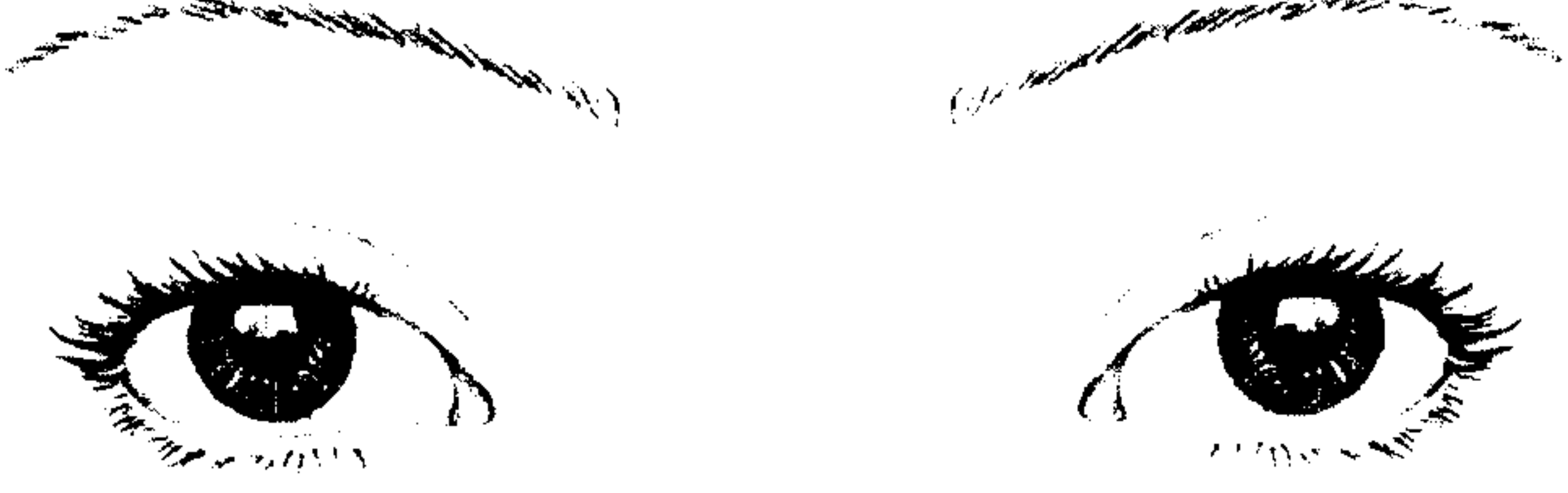


<p>미간이 넓은 눈</p>	
	<p>온화, 원만, 사교적, 낙천적, 비적극성, 무책임, 인내심 없음 등의 인상</p>
<p>미간이 좁은 눈</p>	
	<p>섬세, 재능, 소극적, 편협, 답답, 질투, 신경질, 비애 등의 인상</p>
<p>썩 눈</p>	
	<p>비애, 미성숙, 동정적, 불안, 모자람 등의 인상</p>

그림21. 눈의 형태 분류

(3) 눈썹의 형태

여기서 눈썹의 형태를 일부 고찰하는 것은 눈의 형태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눈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미학적 부분을 눈을 통해 많은 부분 조화를 꾀하고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눈썹 두덩이의 높고 낮음이나 색깔의 짙은 정도, 눈썹 채의 유무에 따라 인상학에서는 해석을 달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6가지 유형만 제시하였다.

① 기본형 눈썹 : 약간 위로 눈 모양을 하고 올라가다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내려온 경우.

② 직선적인 눈썹 : 일명 일자눈썹이라고 불리는 모양으로 눈썹의 시작부분과 끝 부분의 차이가 별로 없다.

③ 화살모양 눈썹 : 위로 솟은 정도가 심해 화살이 날아가는 모양으로 생긴 눈썹이다. 눈썹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높이 차이가 심하다.

④ 아치형의 눈썹 : 둥근 다리 형태의 눈썹으로 눈썹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높이가 거의 같다.

⑤ 각이 진 눈썹 : 눈썹이 평범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꺾여진 형상을 한 눈썹이다.

⑥ 처진 눈썹 : 일반적인 눈썹형태의 반대형상을 띠고 있다. 눈썹 시작선에서 아래로 완전히 처진 눈썹이다.







기본형	 <p>기본형</p>
아치형	 <p>아치형</p>
각진형	 <p>각진형</p>
직선형	 <p>직선형</p>
화살형	 <p>화살형</p>
처진 눈썹	 <p>처진 눈썹</p>

그림22. 눈썹의 형태

이 밖에도 인상학적으로는 김성현의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속에는 많은 종류의 눈썹을 제시하고 있다⁷⁵⁾.

75) 김성현, 앞의 책, 178~190쪽.

IV. 인상과 관련한 눈 메이크업과 교정 테크닉 분석

메이크업은 현대화장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그만큼 현대사회에 있어서 화장을 통한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근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이 밝게 열려서 운수 대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 모른다.

앞에서 메이크업과 인상학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눈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결국 메이크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근거에 의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메이크업을 통해서 눈의 형태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가 인상학적으로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지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기로 한다.

눈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지는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런 다양한 눈의 형태마다 기술적으로 가해지는 메이크업 테크닉이 다르다. 먼저 각각의 분류기준에 맞는 마스크라, 아이라인, 아이 샷도우, 눈썹의 기법을 알아보고 실제 눈의 형태에 적용해 보겠다.

눈 화장은 먼저 아이 샷도우를 발라 입체감과 아름다움을 주고 아이라인과 마스크라로 윤곽을 뚜렷하게 표현해 깊이감과 아름다움을 강조해 준다. 눈썹은 총체적인 얼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러 형태의 눈썹 가운데 표준형 눈썹은 어떤 얼굴형에도 잘 어울린다. 즉, 큰 눈, 작은 눈, 둥근 눈, 외꺼풀, 쌍꺼풀, 눈 꼬리가 올라간 눈, 처진 눈 등 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눈의 모양에 따라 사람의 인상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면 올라간 눈의 경우, 보통 사납게 보이지만 남편의

출세를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올라 간 눈의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봉인의 研究에 따르면 현대 우리 나라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피부화장과 눈 화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⁷⁶⁾.

우리 나라 사람들의 눈의 특징은 눈썹 밑의 골격이 깊지 않고 반반한 평면형을 이루고 있다. 자칫하면 우울하고 딱딱한 모습이 되기 쉽다. 이러한 평면적 얼굴의 특징을 무시한 채 서양인들의 깊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재현하기 위하여 눈꺼풀 전체에 진한 색의 아이샤도우를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얼굴의 정면은 강조되나 측면 얼굴의 액센트는 오히려 감소케 되어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자연스런 모습의 얼굴을 연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의 청아한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균형있는 얼굴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밝은 컬러를 이용하여 얼굴을 보다 명랑하게 보이게 하고 기타의 얼굴 부위를 적절히 보완하여 입체적인 얼굴을 표현하는 가벼운 느낌의 아이메이크업을 연출한다.

1. 눈 메이크업의 기본 테크닉

효과적인 눈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①눈썹 ②아이 샤도우③아이라인 ④마스카라 순서로 메이크업을 하되 얼굴은 앞으로 내밀고 목은 세우며 턱의 뾰족한 부분이 거의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앉아서 눈꺼풀을 잘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아이라인이나 눈의 기타 선을 그릴 때는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76) 김봉인, 化粧行爲의 주관성에 관한 實證的 研究,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6~42쪽.

1) 눈썹 테크닉

눈썹라인은 얼굴의 다른 윤곽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연출하고자 하는 눈썹라인의 모양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 눈썹의 색상

원래의 눈썹 색과 가장 가까운 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너무 진한 색은 얼굴의 액센트를 약화시키고 이마에 줄을 친근한 인상을 만들게 되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다른 색과 조화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눈썹 그리는 테크닉

눈썹용 솔을 사용하여 눈썹의 반대 방향으로 솔질을 한 후 다시 눈썹 방향으로 솔질을 한 후 다시 눈썹 방향으로 그리는 동작을 2~3회 실시한다. 눈썹 펜슬을 가늘게 꺾어서 눈썹이 나지 않은 부위에 3~4mm 정도의 짧은 라인을 비스듬히 그린다. 이는 굵은 눈썹 펜슬을 사용할 경우 눈썹 라인이 굵어지거나 덩어리가 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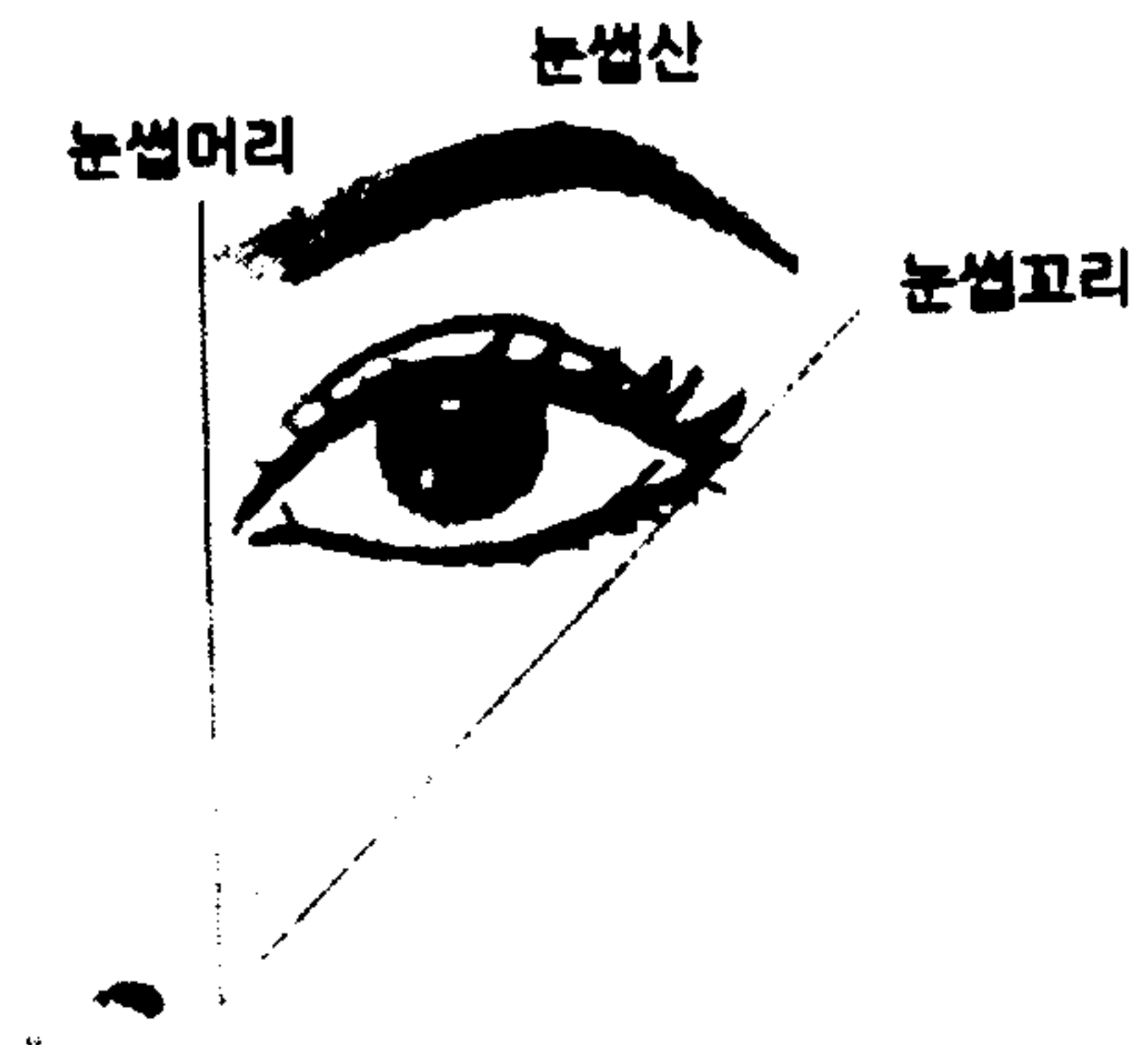


그림 23. 눈썹의 기본위치

2) 아이 섀도우 테크닉

눈꺼풀에 아이 섀도우를 바르는 목적은 색을 이용하여 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아이 섀도우는 단색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아이 섀도우 색상

밝은 색 아이 섀도우를 바른 부위는 튀어나와 보이고 어두운 색 아이 섀도우를 바른 부위는 들어가 보이게 된다. 따라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아이 섀도우를 서로 옆에 배치할 경우 상호 경계 면이 두드러져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연출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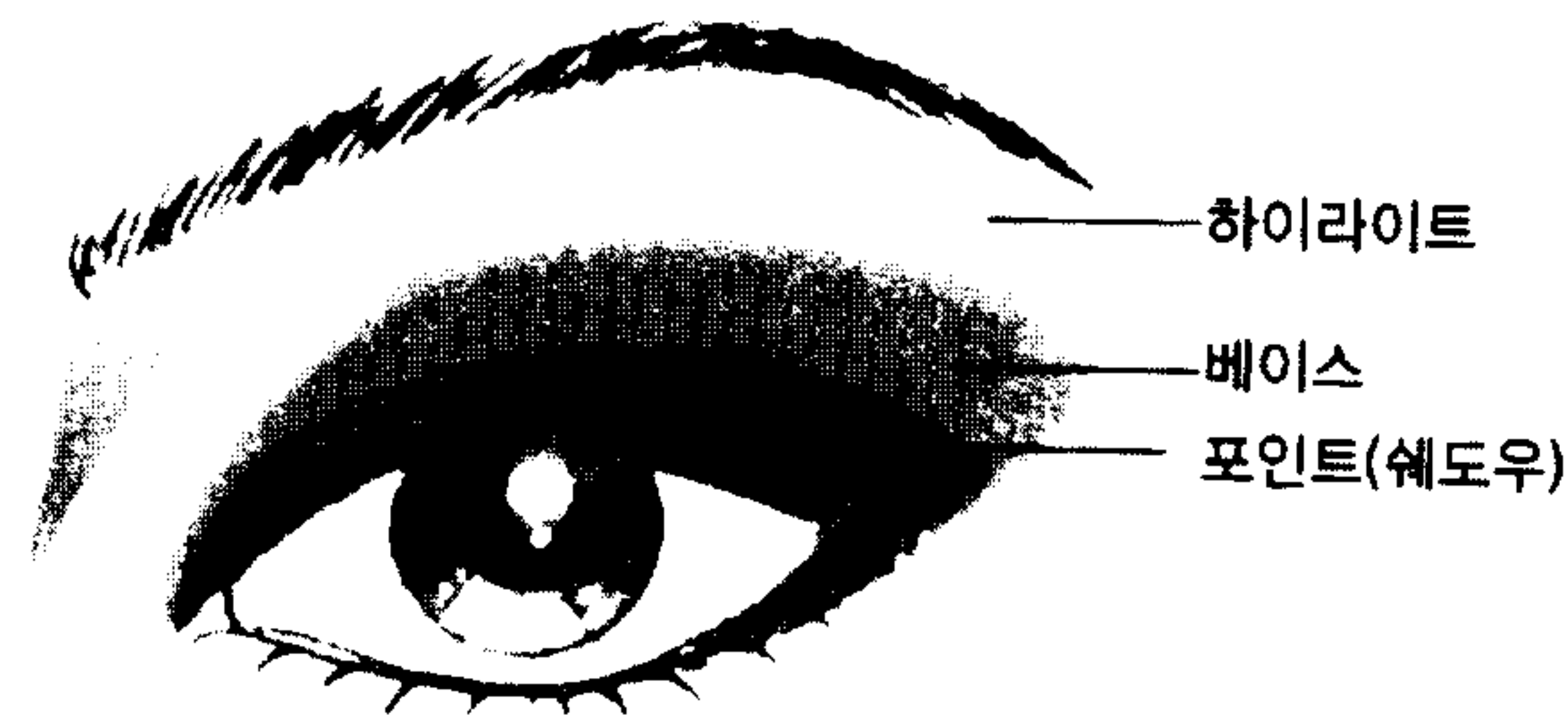


그림24. 아이섀도우 기본 터치법

(2) 아이 샤도우 바르는 테크닉

- ① 수정하려고 하는 형태 유무에 불구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밝은 색 아이샤도우를 위 눈꺼풀 전체와 아래 부분에 바르기 시작한다.
- ② 평평한 붓에 아이 샤도우를 발라서 눈 가장자리 뼈 주위에 발라준다. 이때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발라줄 경우 눈꺼풀에 아이 샤도우가 정확하게 발라진다.
- ③ 밝은 아이 샤도우를 펼쳐준 후 이보다 약간 진한 색 아이 샤도우를 발라서 두 가지색의 경계선을 잘 혼합한다.
- ④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밝은 색과 어두운 아이 샤도우를 눈의 내각1/4지점쯤에서 출발하여 속눈썹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발라준다.

3) 아이라인 테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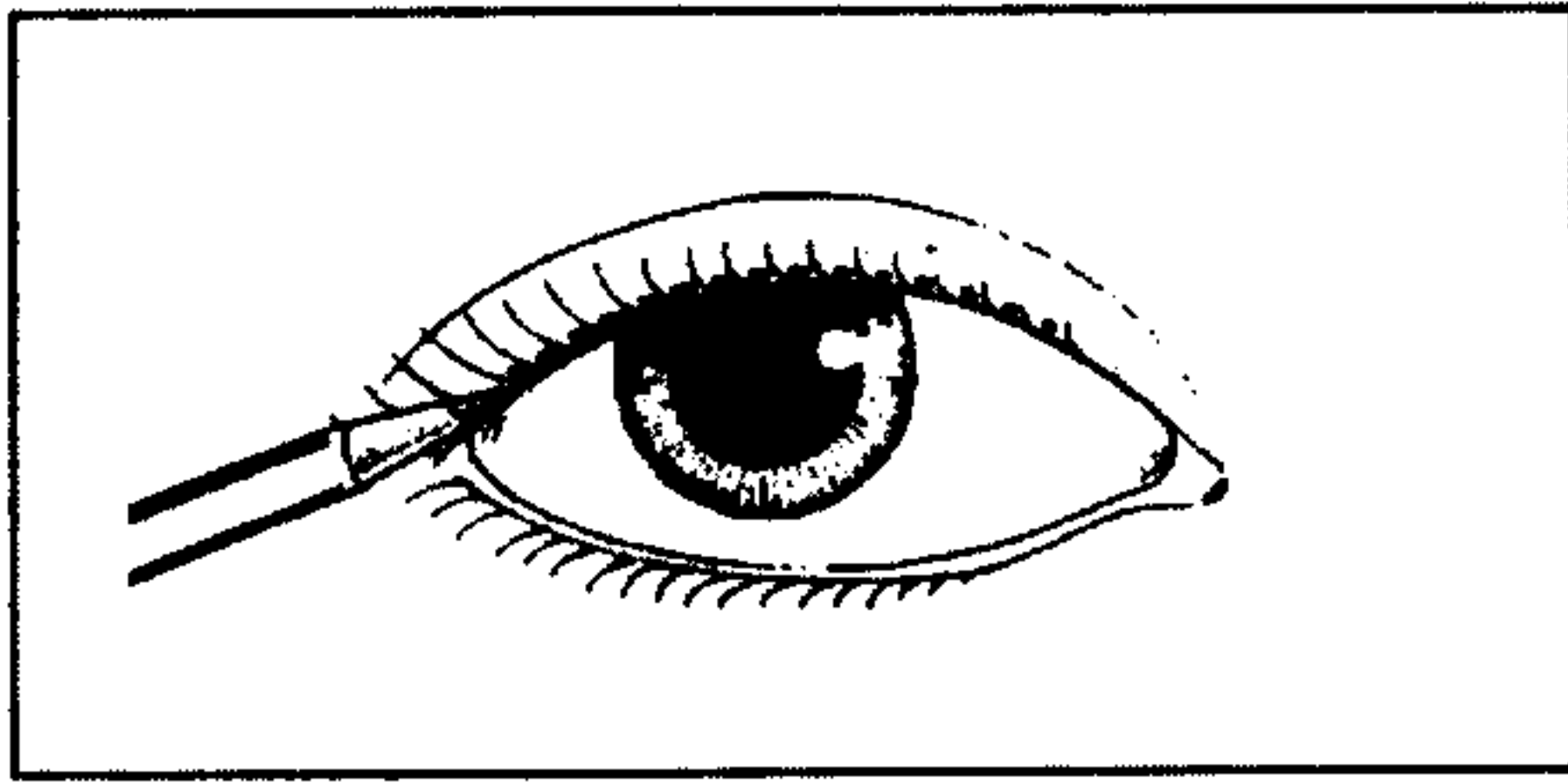
아이라인을 그리는 데는 눈꺼풀에 바르는 아이 샤도우나 눈썹펜슬, 아이 라이너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품의 선택은 개인의 취향, 개성 또는 표현하려고 하는 아이라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눈썹펜슬, 아이 라이너, 아이샤도우는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목적에 적당하다.

(1) 아이라인의 색상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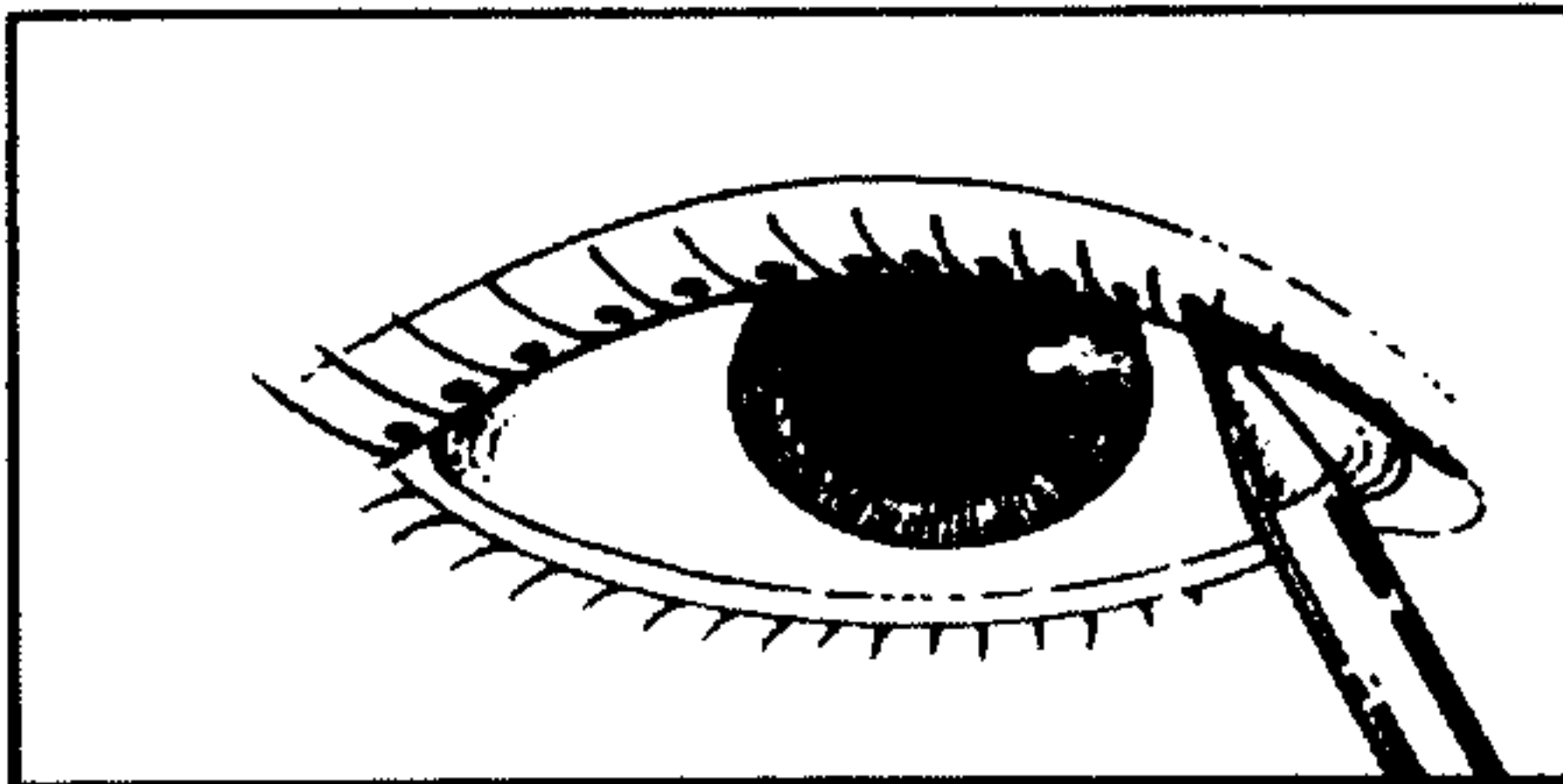
아이라인의 색이나 농도는 피부색에 따라 결정된다. 밝지 못한 피부에 농도가 짙은 색상의 아이라인은 어울리지만 피부가 밝은 경우에는 무거운 이미지를 주게되어 경쾌한 미가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밝은 피부에는 회색 및 갈색, 짙은 청색, 연보라색이 무난하며 피부색이 어두운 편인 동양여성들에게는 진

한 갈색, 검정색 등이 어울린다. 다만 검정색은 농도가 너무 진할 경우 얼굴의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진하지 않고 가늘게 그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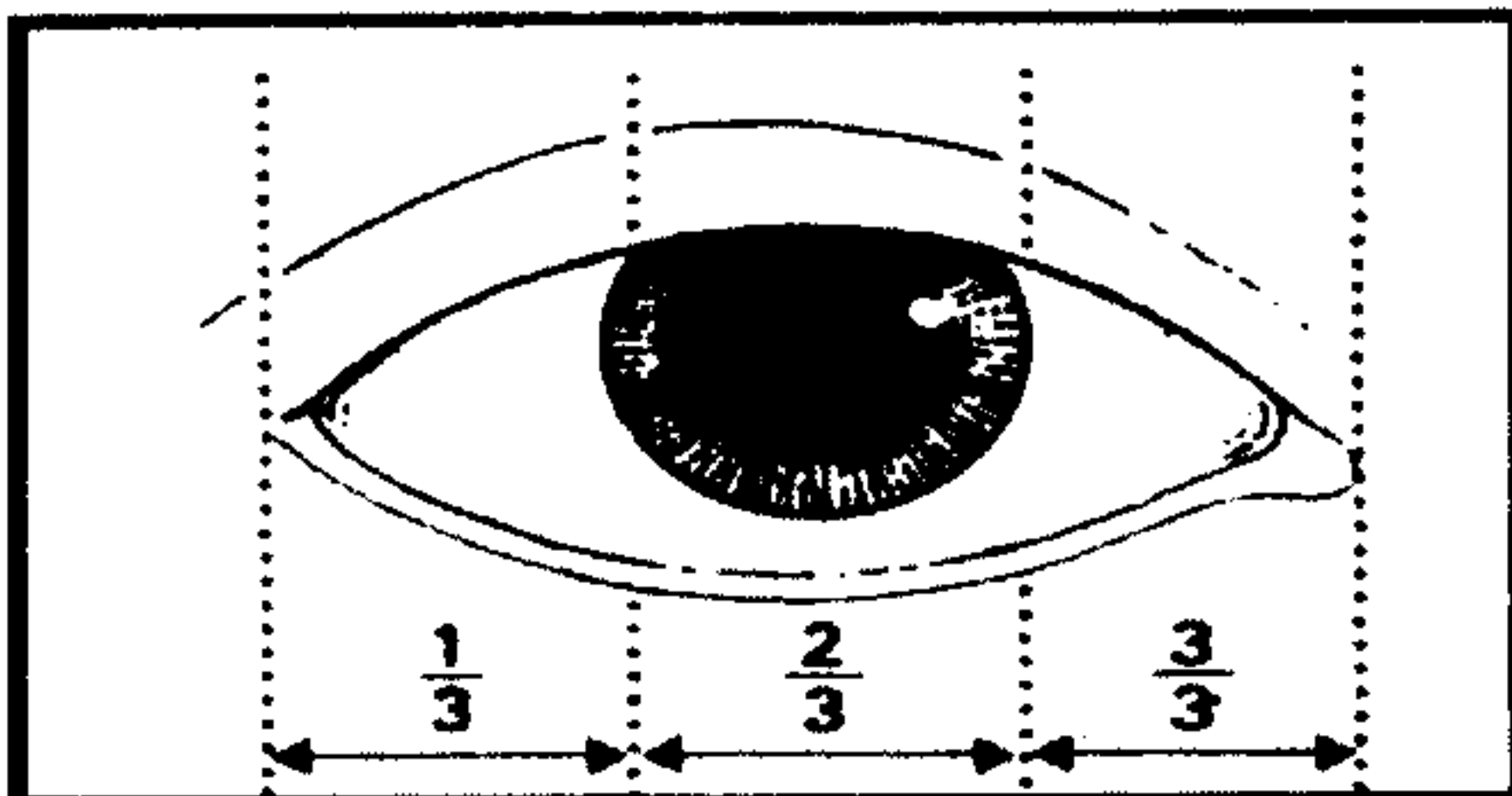
① 아이라이너 펜슬을 이용한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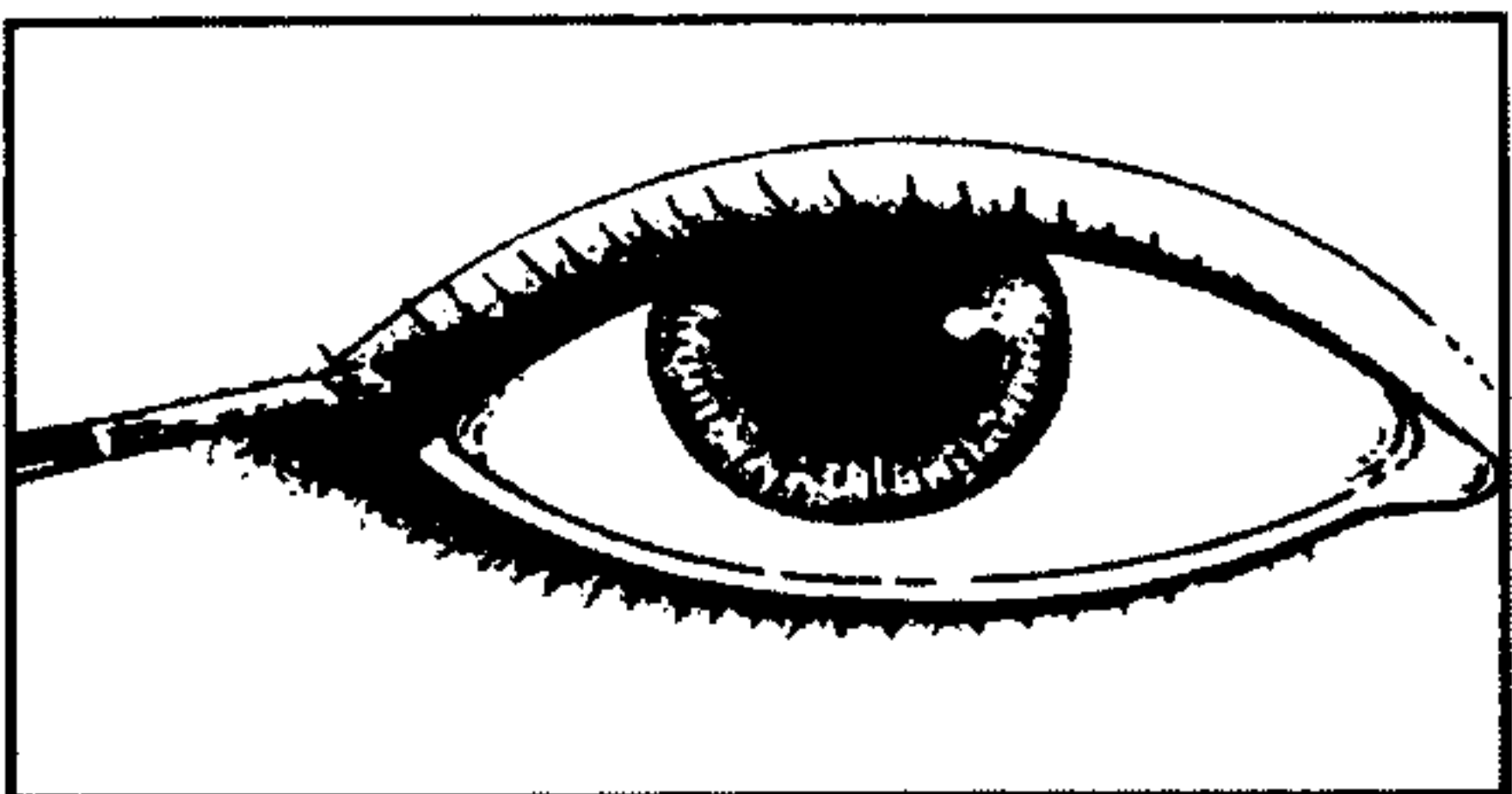
㉠ 눈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속눈썹 뿌리 부분에 아주 가는 점선을 표시한다.



㉡ 점선을 따라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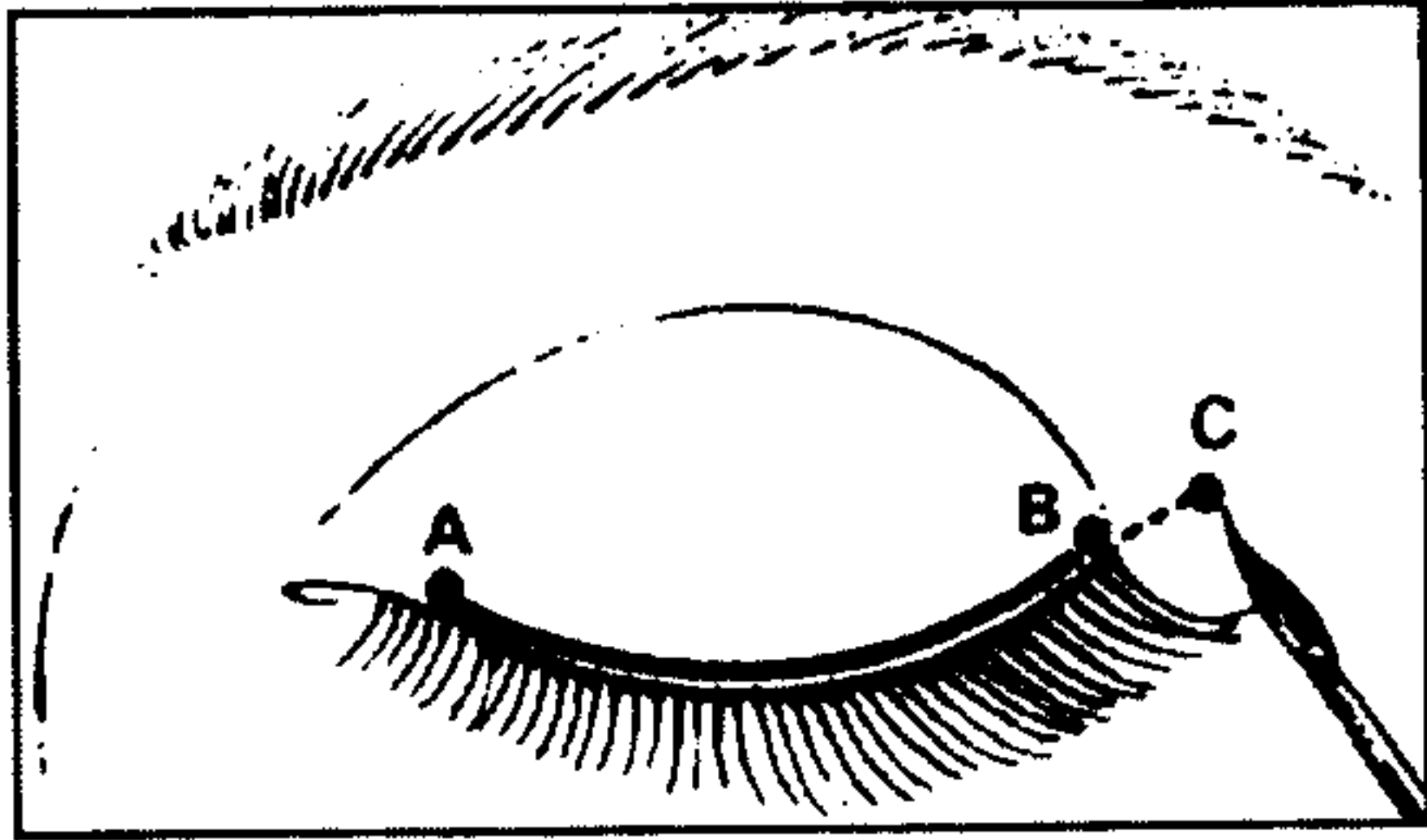
㉢ 아래속눈썹의 안쪽1/3지점에서부터 눈의 외곽까지 점선으로 표시 후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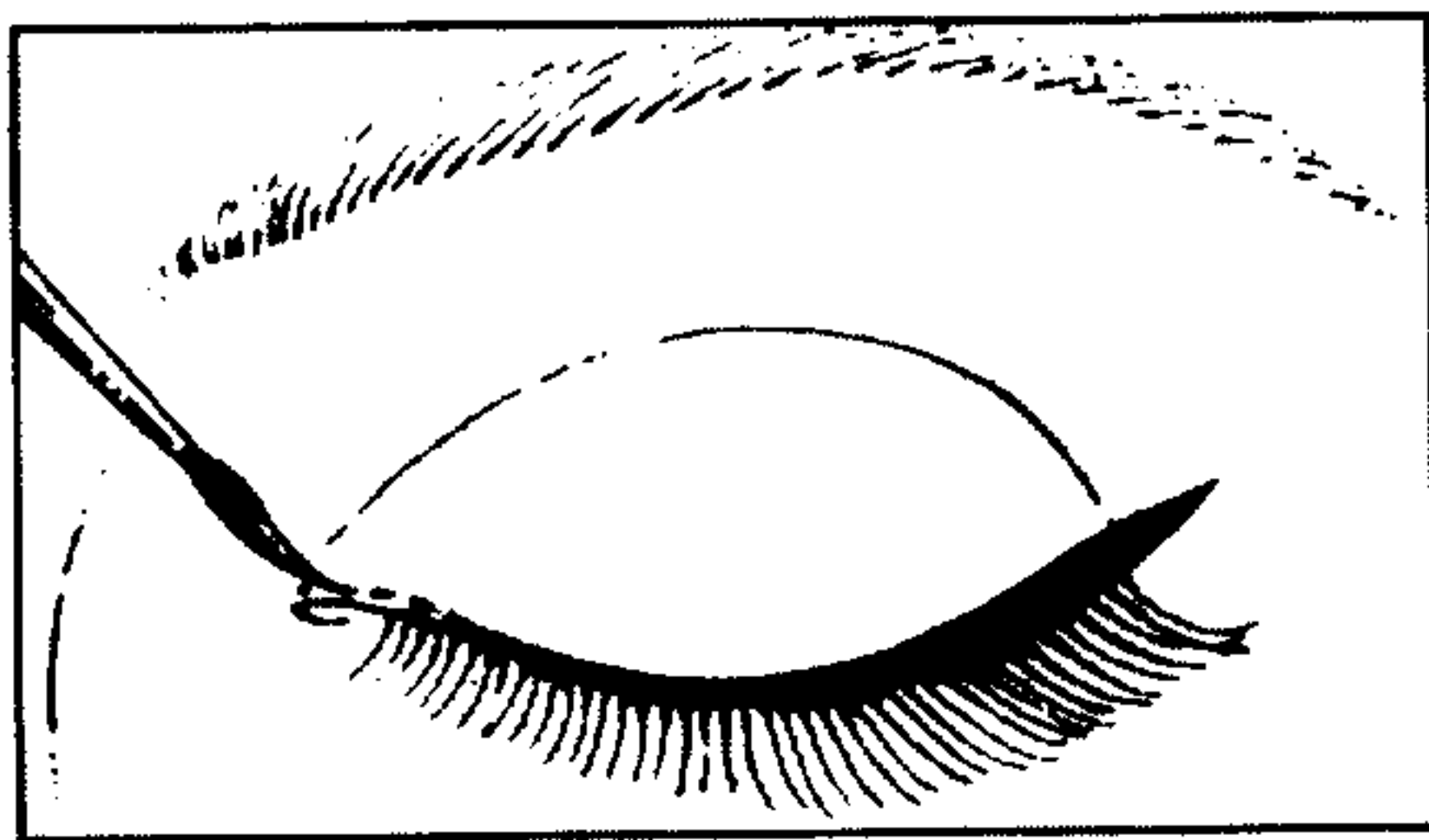
㉣ 눈의 외각을 서로 연결한 후, 필요시 갈색라이너 펜슬을 사용하여 눈의 외각을 강조한 다음 가는 붓을 사용하여 외각 전체를 자연스럽게 펼쳐준다.

그림25. 아이라이너 펜슬을 이용한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

②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1)



- ㉠ 동근 주걱 위에 아이라이너를 소량 덜어낸 다음 아이라이너 붓에 고루 묻혀 준다.
- ㉡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위 눈꺼풀 안쪽 1/4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눈의 외각까지 라인(AB)를 그린다.
- ㉢ 눈을 뜬 채로 아래 속눈썹의 연장 선상에 점 C를 마크한다.



- ㉣ 위 눈꺼풀에 그려놓은 선(AB)을 점 C까지 연장한다.
- ㉤ 위 눈꺼풀 아이라인(ABC)을 3~4번 반복해서 볼륨을 부여한다.
- ㉥ 눈의 안쪽에는 아주 가늘게 라인을 연장해 준다.

그림 26.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1)

③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그리는 요령(2)

눈이 너무 둥글거나, 처지는 경우, 길쭉하거나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눈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이라이너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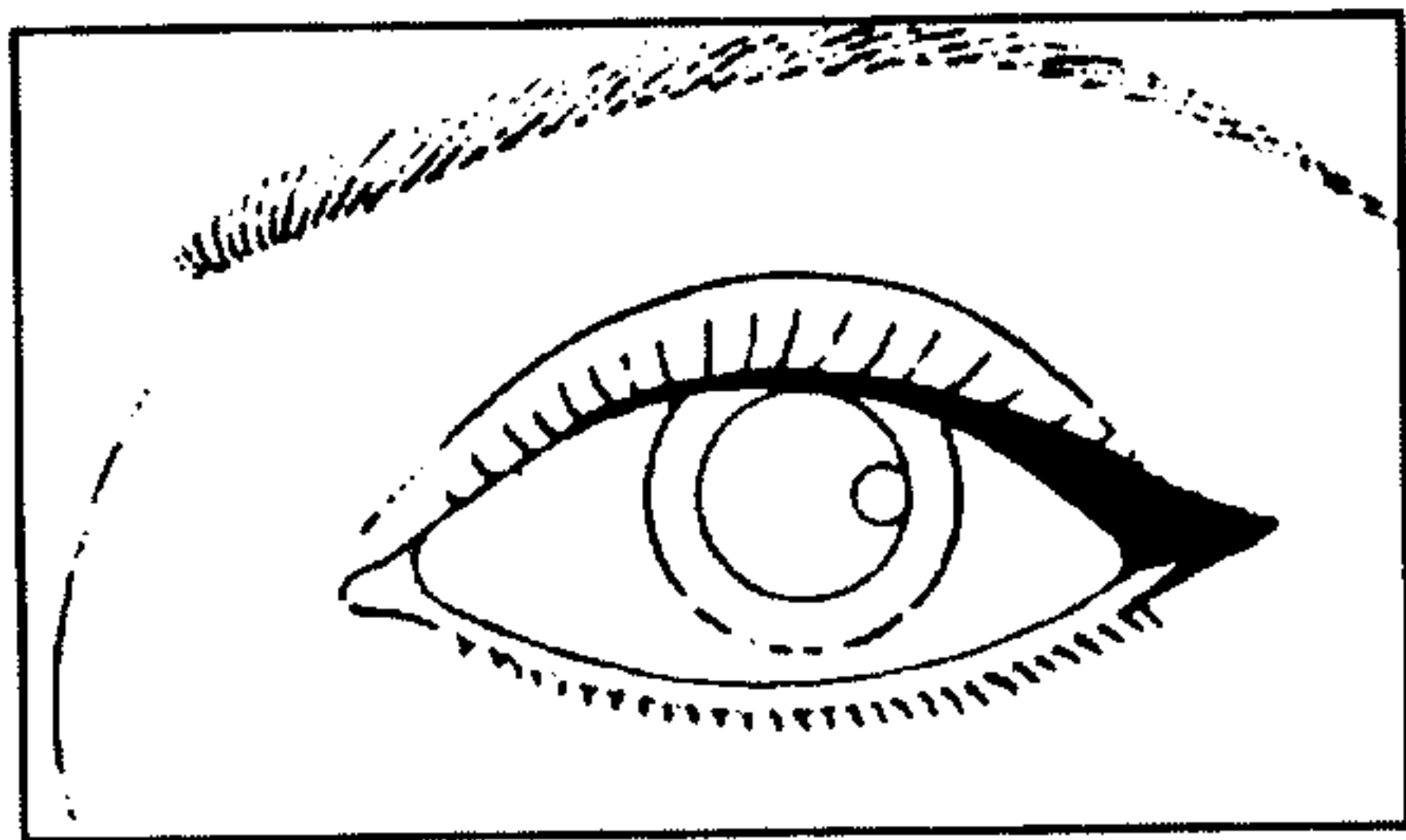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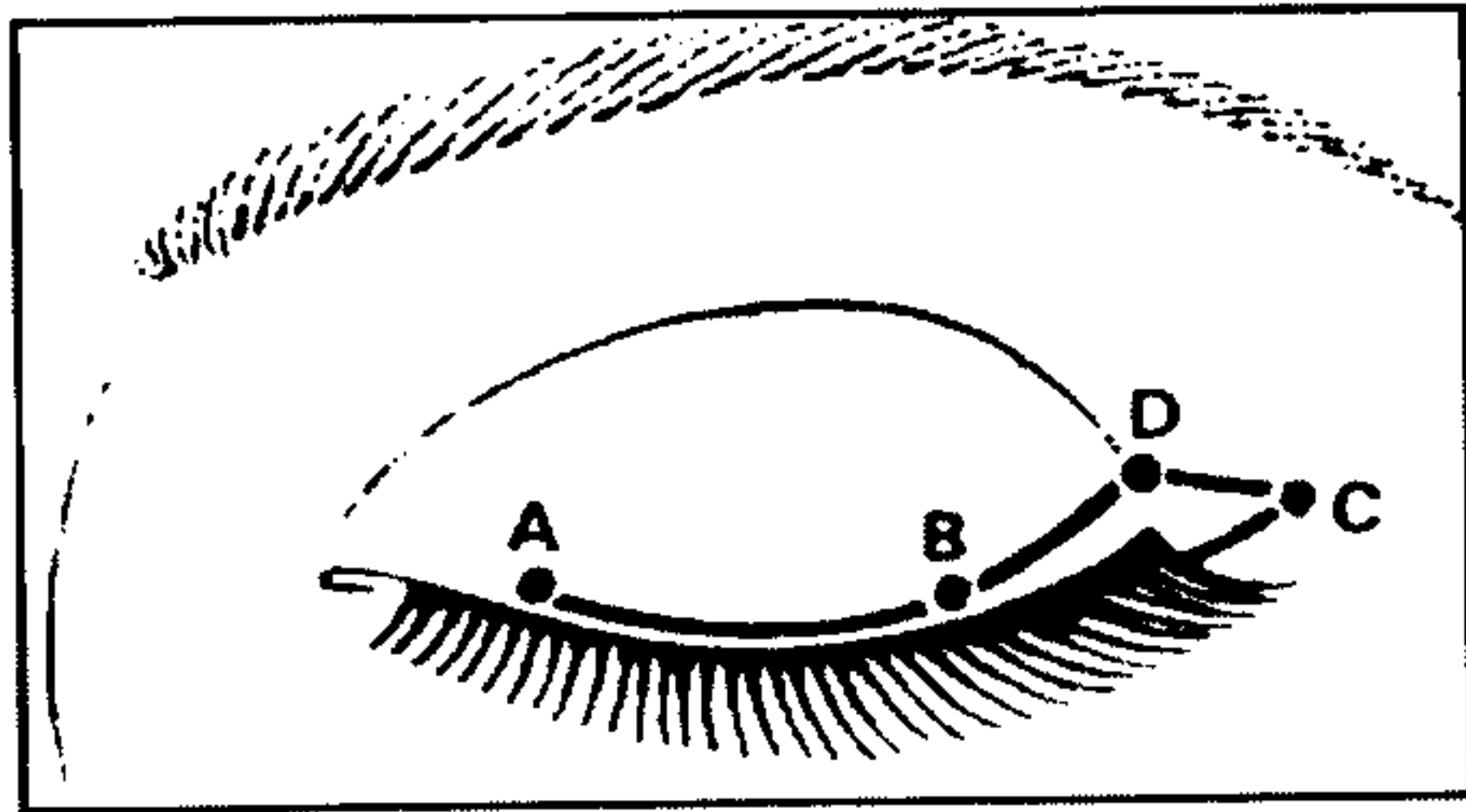


그림27.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그리는 테크닉(2)

- ㉠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위 눈꺼풀 1/4 지점에서 3/4 지점까지 선을 그려 준다.(A B)
- ㉡ 아래 속눈썹의 연장선상에서 C 점을 표시해 준다. C 점의 위치는 눈의 수정 형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 위 눈꺼풀 상단부에 D 점을 표시한다.
이 점은 C 점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 ㉣ 점 B D C 를 연결한 후에 3~4 번 덧칠해서 위 눈꺼풀을 강조한다.

4) 마스카라 테크닉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목적은 속눈썹을 길고 짙어 보이게 하고 음영주어 눈을 자연스럽게 크게 보이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눈매를 깊이있게 연출한다.

속눈썹의 술이 적고 직모인 동양인에게는 아이래쉬컬러(Eye lash curler)와 함께 사용하면 눈의 크기가 1.5배로 보일 정도로 효과적이다.

아이래쉬 컬러를 이용해 속눈썹의 상승효과를 준 후 마스카라를 바른다. 이때 마스카라를 바르는 방법은 눈썹 꼬리쪽 위주로 위에서 아래로 3~4회 말아

준 다음, 속눈썹 뿌리쪽에서 밑에서 위로 지그재그로 3~4회 말아준다. 언더 속눈썹은 어플리케이트를 세워서 좌우로 3~4회 쓸어 주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속눈썹 브러쉬로 빗어주어 눈썹이 한올 한올 살아 보이게 한다.

속눈썹은 눈에 볼륨과 액센트를 부여하거나 눈의 은은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마스크라 바르는 테크닉

위 속눈썹에 마스크라를 눈썹 뿌리에서 바깥쪽으로 눈 안쪽에서 눈 바깥쪽 방향으로 2~3회 반복해서 바른다. 위 속눈썹을 바른 후 아래속눈썹도 눈썹 뿌리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바른다. 아래속눈썹을 강조하면 눈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둥근 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요령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다.

(2) 인조 속눈썹(False Eye Lashes)

눈에 보다 강한 액센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조 속눈썹을 사용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인조 속눈썹은 사용용도에 따라 한 올 한 올씩 심는 제품, 3~4올씩 심는 제품, 눈썹 전체를 심는 제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서는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눈꺼풀 안쪽 내각에서 바깥쪽으로 작업을 하되 본래의 속눈썹 사이사이에 정성껏 심어야 자연스

러운 모습이 유지된다.

인조속눈썹은 원하는 모양에 잘라서 부착시켜야하는데 눈 안쪽은 짧게, 바깥쪽은 길게 만들어서 부착시키며 두 눈의 간격이 떨어져 있거나 눈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눈썹 중앙에만 부착하고 두 눈의 간격이 가깝거나 눈이 둥근 경우에는 바깥쪽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눈 형태에 따른 인상과 유형별 교정 테크닉

1) 눈의 크기

(1) 균형안

눈 전체의 모양이 둥근 듯 타원형으로 눈 머리가 눈 꼬리보다 약간 아래에서 출발하여 동그랗고 윤곽 있게 올라갔다 내려온 눈이다. 한국인의 표준 크기는 28~30mm로 양 미간이 눈 하나의 폭 만큼 간격을 가진 눈이 균형안이다.

얼굴, 코, 입과, 상호크기가 조화를 이뤄 알맞게 느껴지는 크기의 눈으로 쌍꺼풀이 없는 눈이 동양인에게 많으며, 눈동자가 검고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야 한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기 있고 발랄해 보이며, 안정감을 준다.

눈의 형태 변형은 불필요하며 의상, 디자인, 계절, 연령에 맞춰 아이 샷도 우 컬러를 선택하고 여러 형태의 테크닉을 개성 있게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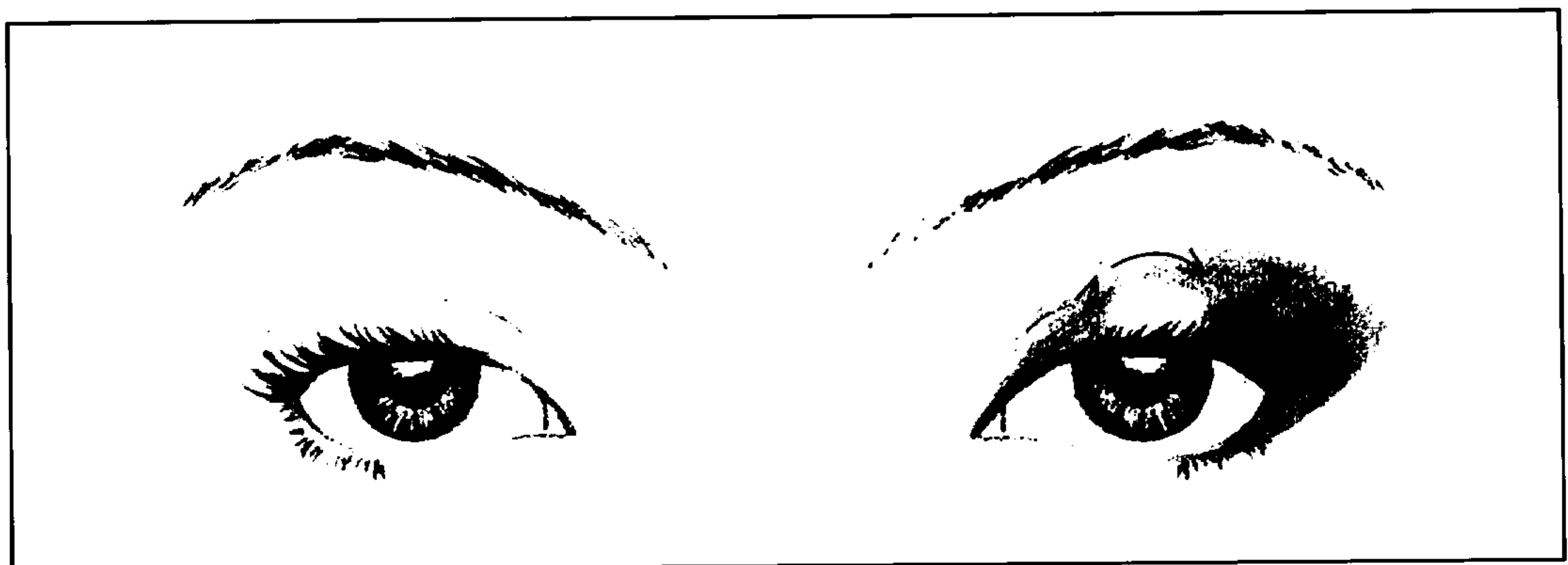


그림28. 균형안

(2) 큰 눈

눈이 크고 길며 쌍꺼풀진 모양이 많고, 눈초리가 위로 향하며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다. 개방적이며 매력적이기는 해도 너무 큰 눈은 희·노·애·락의 폭이 심하고, 남성에게 인기가 있는 만큼 잘 노는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쉽다. 또 너무 시원시원한 성격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이라인 사용법에 신경을 써서 위쪽에 얇게 그리는 정도가 좋고, 볼 터치를 눈꼬리 부분에서 관자놀이에 걸쳐 얇게 그리면서 지나치게 얇게 그리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① 아이 샤도우: 진한 색보다 연한 색을 선택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여 눈 주위에는 포인트 색을 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② 아이라인: 둥근 눈은 더 둥글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눈동자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눈 앞머리와 눈꼬리 부분에만 선명하게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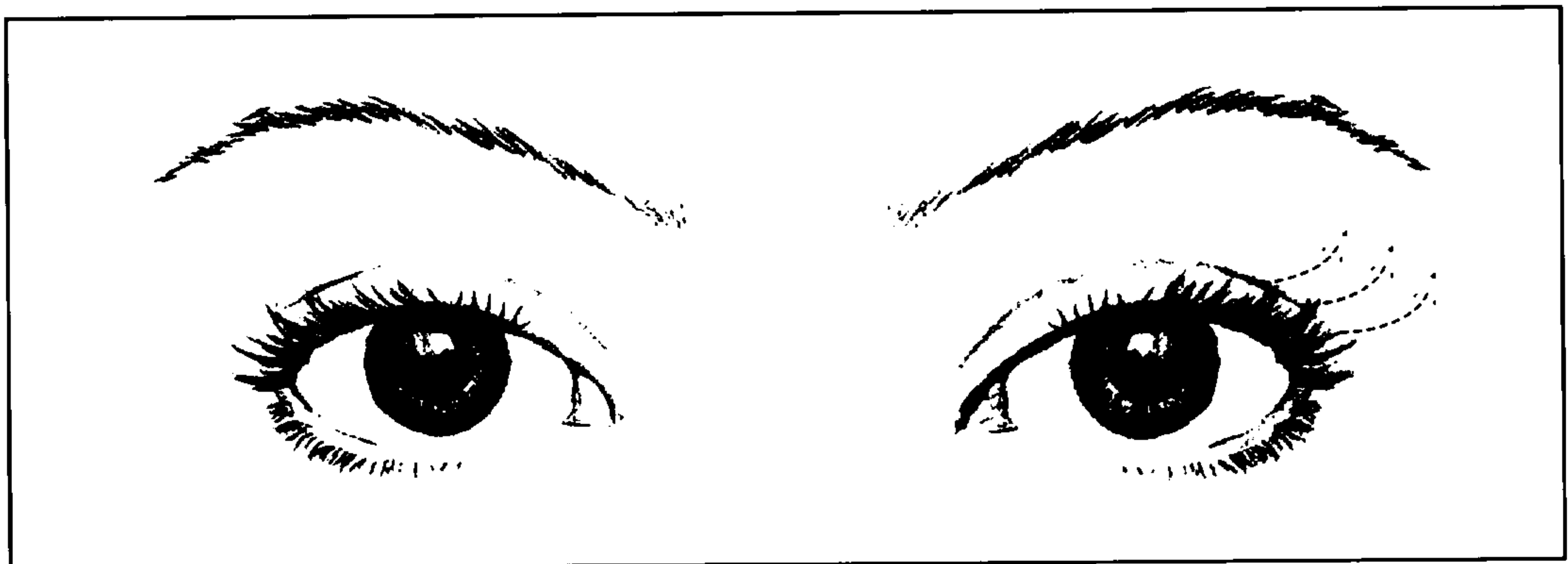


그림29. 큰 눈

(3) 작은 눈

쌍꺼풀이 있고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며 눈매가 작고 야무지다. 때로는 설득력이 없고 완고하며 소극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나, 치밀하게 일을 계획하여 끈기 있어 보이는 인상이다. 또한 무슨 일이나 성공할 운을 잡을 수 있는 타입이고, 직감력이 뛰어나므로 모든 면에서 운이 좋다. 즉, 좋은 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 샤도우를 너무 화려하게 바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아이 샤도우: 눈 전체에 밝은 색상의 아이 샤도우나 펄감이 풍부한 색을 선택하여 눈 길이를 길어 보이도록 눈 꼬리 쪽으로 짙은 색의 아이 샤도우를 연장하여 발라준다. 언더라인 또한 눈 꼬리 쪽으로 길게 발라준다.

② 아이라인: 위, 아래 아이라인이 눈 꼬리 끝 부분에서 만나면 눈의 길이가 더욱 짧아 보이게 된다. 눈 꼬리 부분을 약간 띄워서 그려 넣는 것이 포인트이며 위 눈꺼풀 아이라인을 그릴 때 눈 꼬리 부분에서 약간 수직으로 빼주듯 그리고 언더라인도 직선으로 빼주듯 그리면 눈의 길이가 훨씬 길어 보인다. 위, 아래 라인이 만나지 않게 열려지게 그리되 언더라인은 아래 눈길이의 1/3 정도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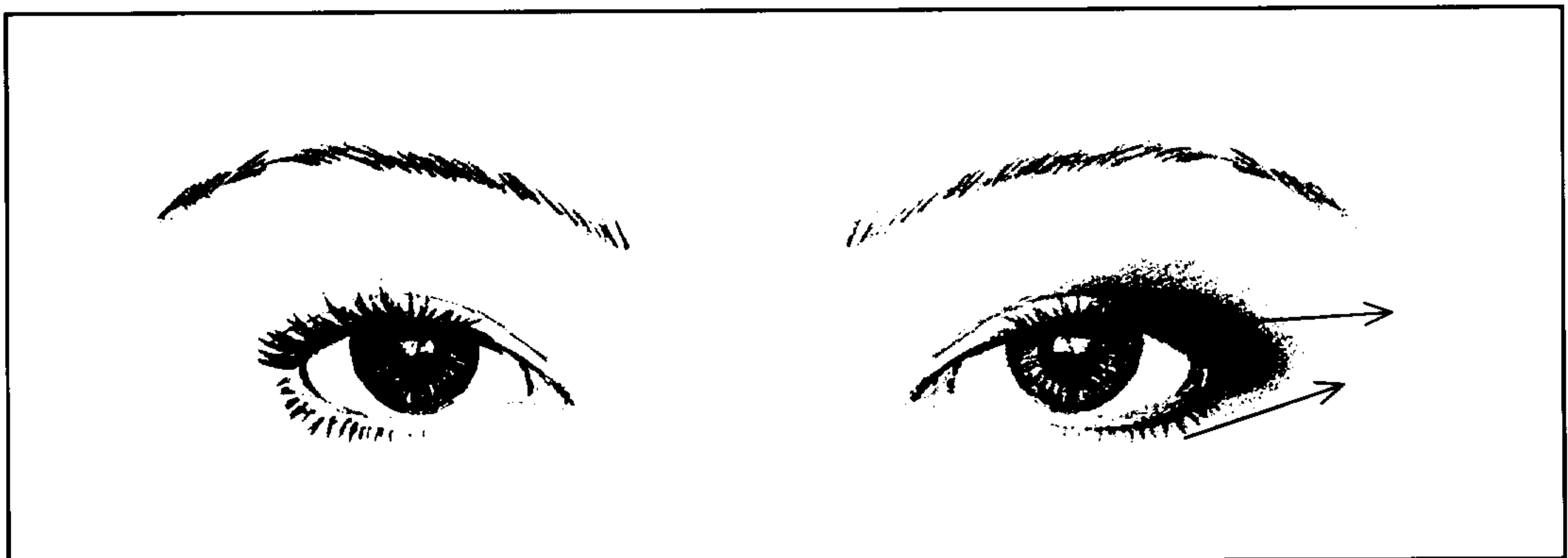


그림30. 작은눈

2) 쌍꺼풀의 유무

(1) 쌍꺼풀이 있는 눈

쌍꺼풀눈이란 이중으로 된 눈꺼풀을 말하며, 대체로 눈이 커 보이며 시원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주며 주변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으나, 싫증을 잘 내며 기가 세 보이는 인상이다. 눈 메이크업을 잘못하면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거나 사나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밝은 색의 아이 샤도우를 위 눈꺼풀에 얇게 펴 바르고, 눈 머리에서 눈 꼬리까지 한번에 샤프한 라인을 그려 넣는다. 하지만 눈 메이크업을 삼가고, 입을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아이 샤도우 : 눈의 선명도를 위하여 감추어진 라인을 섬세하게 포인트 컬러로 처리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아이 홀 전체에 부드럽게 그라데이션한다.

② 아이 라인 : 속눈썹에 가깝도록 가늘고 섬세하게 그린다.



그림31. 쌍꺼풀 있는 눈

(2) 쌍꺼풀이 없는 눈

동양인에 많은 눈으로 통찰력이 있고, 말이나 신념에 무게가 있으나 사교적이지 못하다. 또한 차가운 인상을 주지만, 정에 흐르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따라서 눈가의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는 짙은 색의 아이 샤도우를 눈의 모양에 따라 가늘게 펴 바르고, 아래로 그리는 아이라인은 가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① 아이 샤도우: 눈을 크고 뚜렷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라인을 강조하거나 눈 꼬리에 포인트를 주어 사선 방향으로 끌어 올려 그라데이션 해주고 아이 홀 부분까지 포인트 컬러를 펴 바른 후 눈썹 뼈 부분에는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주어 평면적인 눈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붉은 기가 들어 있는 샤도우나 펄이 있는 샤도우는 가급적 피한다.

② 아이 라인 :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의 가장자리 부분을 조금 굵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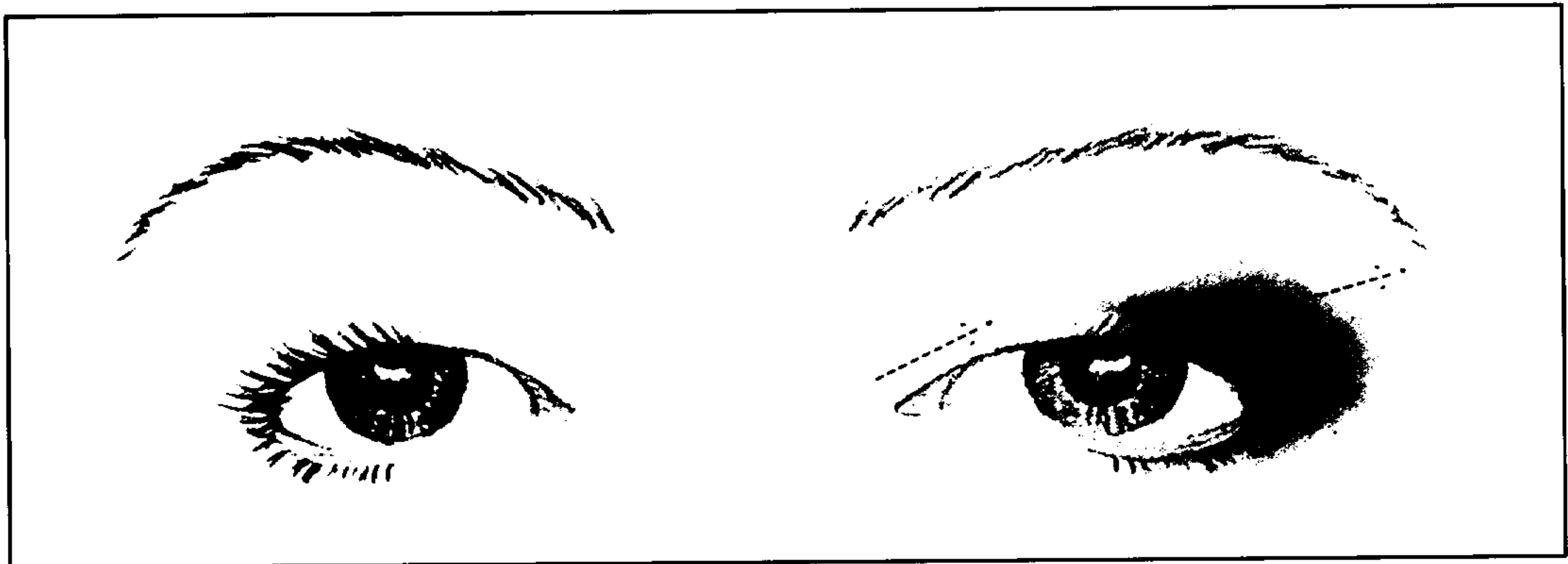


그림32. 쌍꺼풀 없는 눈

(3) 속쌍꺼풀 눈

눈꺼풀이 눈머리의 안쪽부터 시작되어 눈꺼풀의 크기가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경우다. 밝은 계열의 아이샤도우로 눈두덩이 전체를 발라주고 속쌍꺼풀 부분은 포인트색으로 라인처리하듯 바르고 짙은 회색, 브라운, 혹은 포인트색을 속쌍꺼풀 아래서 위의 방향으로 조금씩 위로 발라 그라데이션 한 후, 눈을 떴을 때 위치까지 그라데이션한다.



그림33. 속쌍꺼풀 눈

3) 미간 넓이

(1) 미간이 넓은 눈

미간이 눈의 크기만큼의 해당되는 정도를 균형안이라고 할 때 이보다 넓은 경우에 해당된다. 여유로와 보이는 장점은 있으나 나태해 보일 수 있으므로 이점을 보완하여 수정한다.

① 아이 샷도우 : 아이 샷도우의 포인트를 눈 앞머리 위에서 코가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좁아 보이도록 한다. 눈 꼬리 쪽으로 포인트컬러가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② 아이 라인 : 눈 머리 쪽을 강하게 그린다.

③ 눈썹 : 눈썹 머리를 중앙 근처에서 길게 그리기 시작해 눈썹꼬리는 그다지 길게 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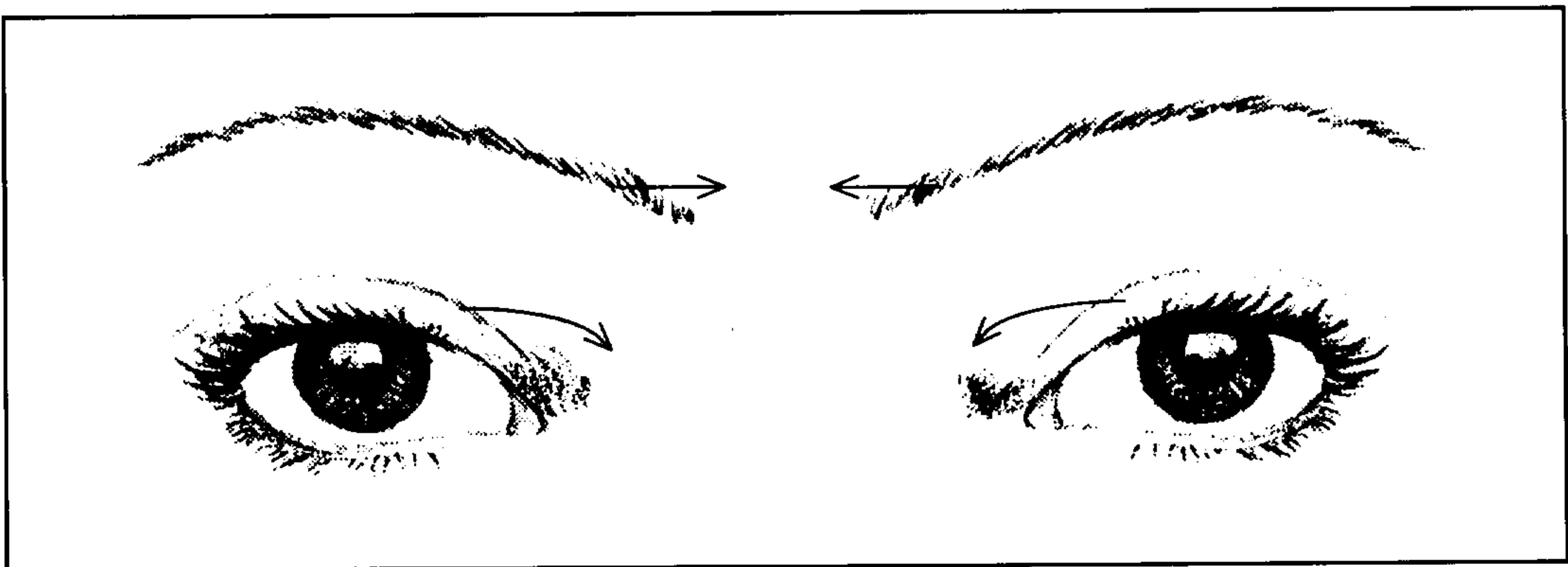


그림34. 미간이 넓은 눈

(2) 미간이 좁은 눈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 성격적으로도 고집 세게 보이는 눈이다. 얼굴이 작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얼굴이 큰 편인데 미간이 좁으면 눈썹을 조금씩 (0.1mm) 양쪽으로 뽑아 미간이 넓어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의 눈 위치를 가늠해보아, 너무 가까우면 멀게 보이도록 만든다.

① 아이 샷도우 : 눈 앞머리에서 중간까지 밝은 색상을 발라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여유 있어 보이도록 한다. 짙은 색의 포인트 컬러를 눈의 중심보다는 눈 꼬리 쪽으로 연장하고 눈 밑 언더라인에도 눈 꼬리 바깥쪽으로 아이 샷도우를 바른다.

② 아이 라인 : 눈 꼬리 쪽을 바깥쪽으로 라인을 늘려 강하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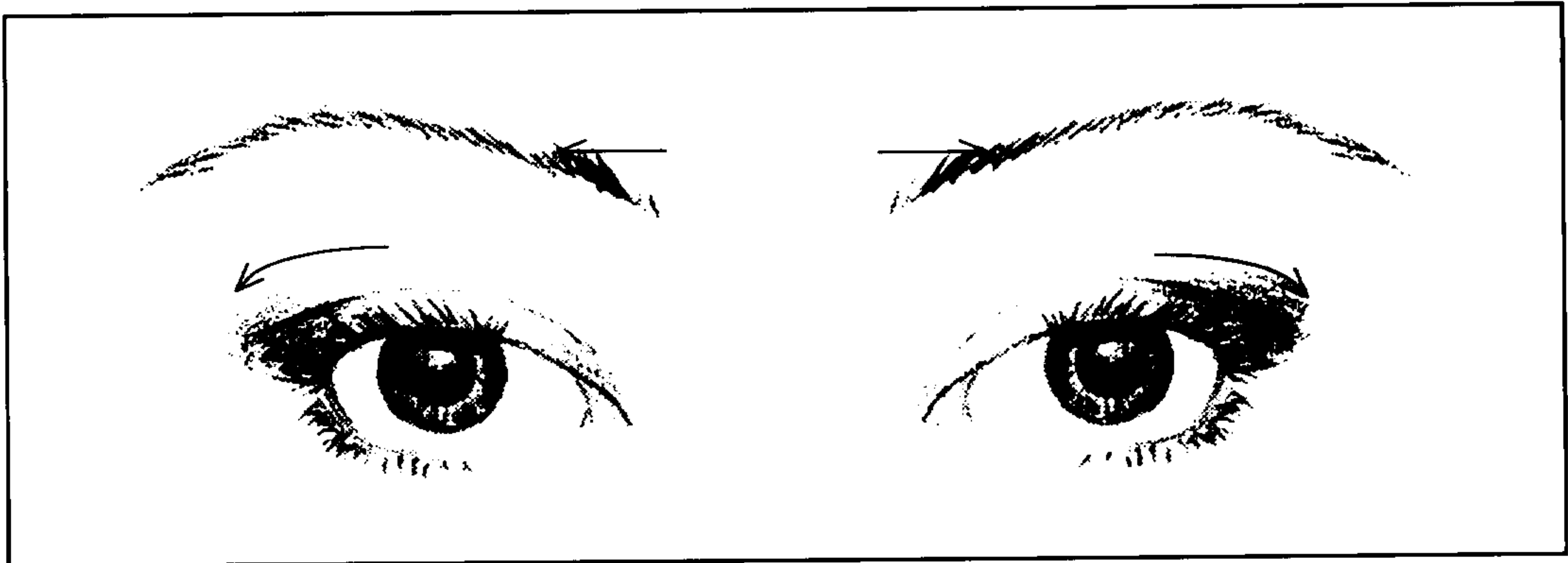


그림35. 미간이 좁은 눈

4) 안구의 돌출'

(1) 안구가 튀어나온 눈

눈망울이 푹 볼거지고 크게 생긴 모양이다. 눈의 상하의 폭이 넓은 눈을 가리킨다. 즉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눈 지나치게 튀어나온 눈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관계가 있으며, 예능 방면이나 기술 관계, 즉 머리 대신 손재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으로 우직하며 쾌활한 성품이다. 개방적이고 조숙하게 보이기도 한다.

동양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둔해 보이거나 무표정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샤프함은 느낄 수가 없으므로 두꺼운 눈꺼풀을 커버해 주어야 한다.

인상학에서는 지나치게 눈 두덩이가 부은 경우보다는 적당히 기름지고 살이 있는 경우가 좋다고 하므로 지나친 경우에 문제가 되므로 특히 아이 샹도우의 색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아이 샹도우 : 펄감이 없는 매트한 브라운이나 그레이 색으로 열게 펴 바른 후 눈썹 뼈 부위에 하이라이트, 아이보리나 색상을 바르고 액센트 컬러를 눈 형태에 따라 선을 굵듯 발라 눈매를 강조한다. 펄이 든 아이 샹도우나 밝은 색 아이 샹도우 또는 붉은 기가 있는 아이 샹도우는 더욱 부어 있는 느낌을 주므로 사용하면 역효과가 난다.

② 아이 라인 : 눈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리되 눈 꼬리 부분은 굵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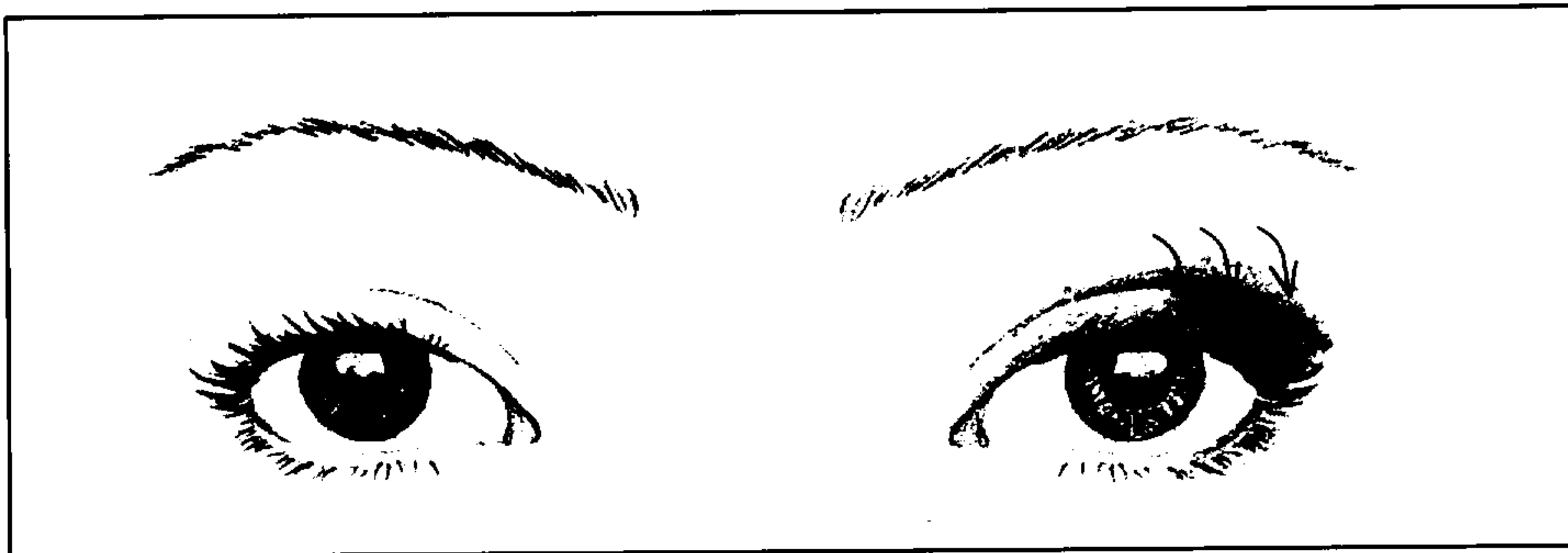


그림36. 안구가 튀어나온 눈

(2) 안구가 움푹 들어간 눈

눈망울이 들어가서 오목하게, 눈이 깊은 모양새이다. 서양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매이며, 변덕이 심한 눈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도 하여 동양인의 눈매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 눈의 특징은 눈썹 꼬리의 뼈가 솟아나고 눈썹과 눈알 사이가 좁고 살이 얇아 보기에는 무척 신경질적인데, 무슨 일이나 착실히 자기 손으로 해내는 건실한 성품이기도 하다. 즉,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품이다. 또한, 현대적이고 뚜렷한 인상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눈꺼풀에 탄력이 없어 보여 피곤하고, 아파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① 아이 샤프도우 : 펄감이 있는 색상이나 밝은 색을 아이 홀 부분에 강한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 뒤 눈이 나와 보이게 하고 포인트 색은 밝은 계열로 라인의 형태로 눈 꼬리를 약간 올려 눈매를 강조한다.

② 아이 라인 : 앞쪽을 가늘면서 눈 꼬리 부분을 굵게 그리면서 끝을 약간 올려 주어 눈매를 긴장시킨다.



그림37. 안구가 움푹 들어간 눈

5) 눈의 모양

(1) 둥근 눈

눈의 길이가 짧고 넓은 눈으로 커다랗게 생겼으며 눈동자는 작고 둥글며, 눈망울이 얇은 황금색이 감돌면서 맑아 보인다. 귀엽고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도 좋은 편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능숙하고 애교스럽다. 그러나 그런 눈을 배경으로 우쭐대거나,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① 아이 샤프도우 : 눈앞과 눈 꼬리 쪽을 길게 처리하여 눈매를 길게 표현한다. 포인트 컬러를 어두운 브라운이나 그레이 계열로 눈 꼬리 쪽으로 넓게 펴 바르고 언더라인 역시 눈 꼬리 쪽으로 길게 연장시킨다. 눈 중앙 부분에는 짙은 색상을 바르면 눈이 더욱 둥글게 보여지도록 주의한다.

② 아이 라인 : 둥근 눈은 더 둥글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동자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눈 앞머리와 꼬리 부분만 살짝 그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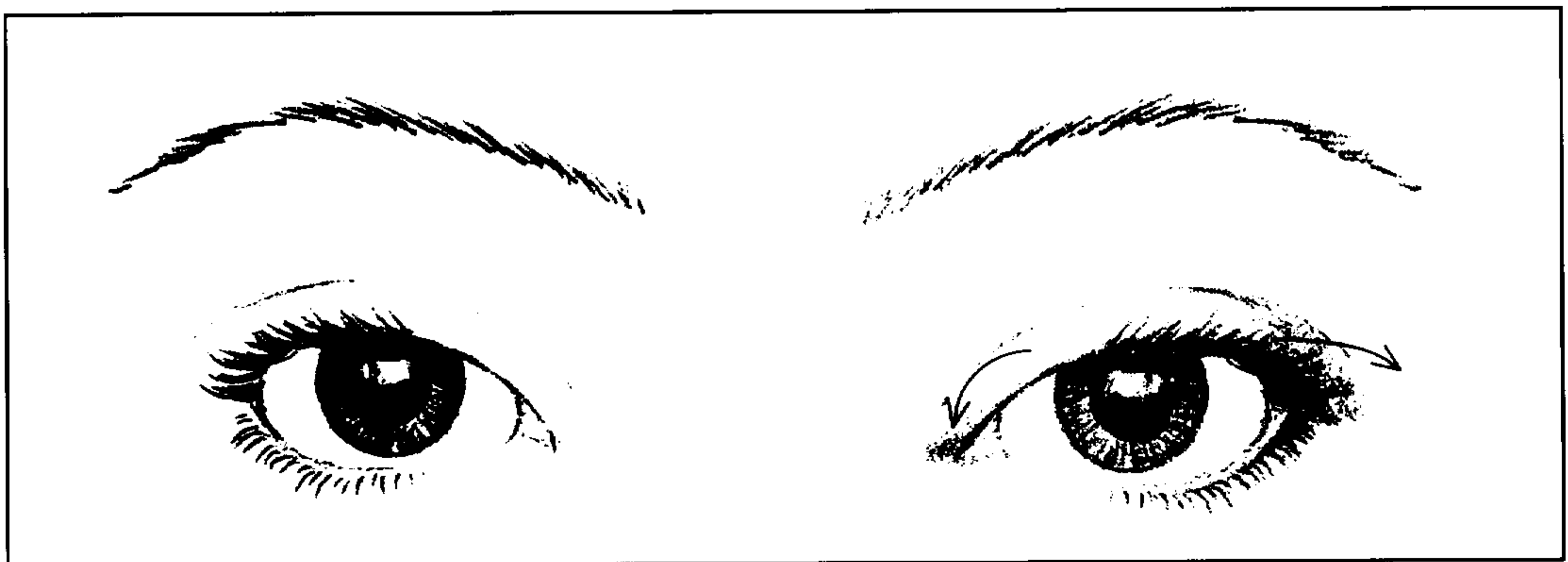


그림38. 둥근 눈

(2) 가느다란 눈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에 비하여 작으면서 눈폭이 좁고 길이가 긴 눈으로 가늘고 쌍꺼풀이 없다. 가느다란 눈은 눈의 크기도 작아서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통찰력은 있으나 인상학에서는 성격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권모술수형이 많다고 한다. 한편 사고력이 풍부한 자비심 있는 상으로 자선 사업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남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① 아이 샷도우 : 짙은 색의 아이 샷도우를 눈 머리와 눈 꼬리에 바르고 아이 홀은 밝은 하이라이트를 주되 가급적 넓고 둥글게 처리한다. 액센트 컬러는 눈 중앙에 두껍게 발라 주고, 눈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게 그라데이션하고, 언더라인 또한 눈 중앙을 두껍게 발라 전체적으로 둥글게 처리한다.

② 아이 라인 : 눈동자 중앙 부분을 굵게 그려주고 눈 머리와 눈 꼬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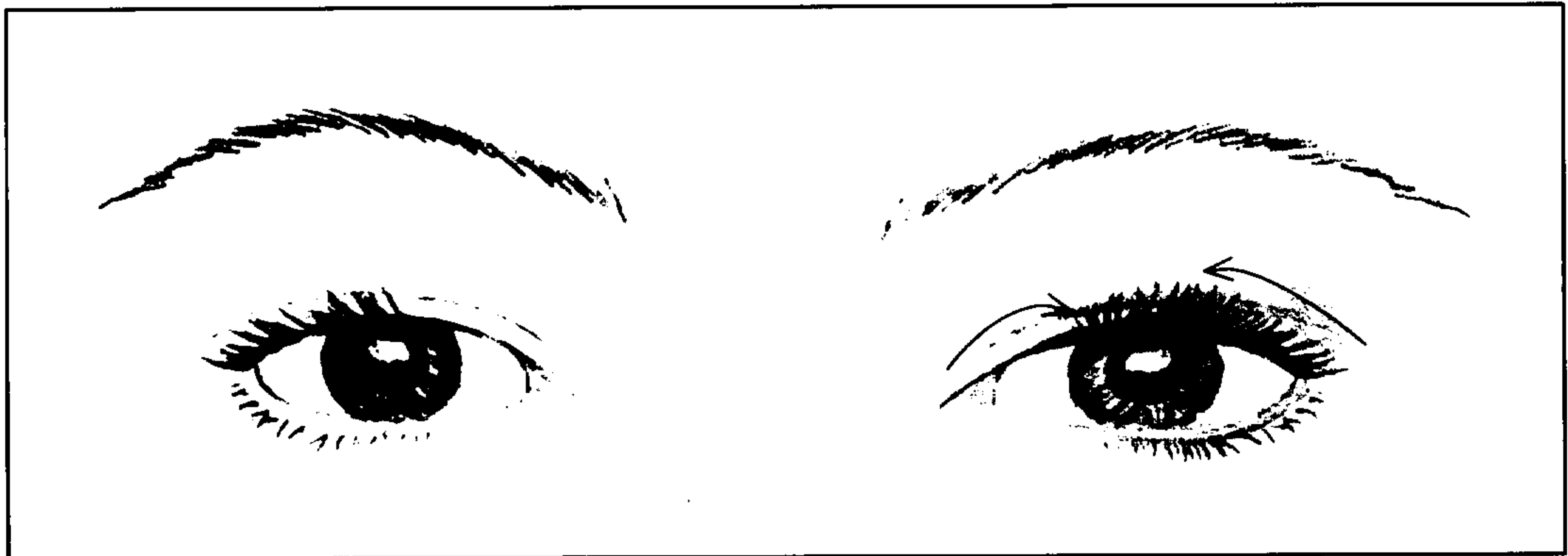


그림39. 가느다란 눈

6) 눈 꼬리의 모양

(1) 눈꼬리가 올라간 눈

눈 꼬리를 인상학에서 어미(魚尾)라고 하는데, 눈 꼬리가 위로 올라간 모양이다. 강인하고 샤프해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인상이 매우 날카로워 보이므로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다.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약하여 미움을 사기 쉽다. 여성의 제일 큰 매력이자 장점인 따사로움이 없는 인상을 준다. 또한 타인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고집이 세고 자아의식이 강하여 승부욕이 강한 인상을 준다. 한편 운은 좋은 편으로 이름을 떨칠 기회가 자주 온다고 본다.

① 아이 샷도우 : 눈 앞머리와 눈 꼬리 밑 부분에 아이 샷도우의 포인트를 주고 특히 언더 컬러를 눈 꼬리 부분에 수평으로 넓게 펴 발라 올라간 눈을 부드럽게 안정시킨다. 밝은 색의 아이 샷도우를 눈꺼풀 전체에 펴 바른다.

② 아이 라인 : 위 라인은 가늘게, 눈 아래 꼬리 부분의 1/3을 약간 굵게 수평으로 그리고, 위 눈꺼풀의 눈 머리에도 약간의 액센트를 준다.



그림40. 눈꼬리가 올라간 눈

(2) 눈꼬리가 처진 눈

눈 꼬리가 아래로 처져서 두 눈이 여덟 팔자를 이루는 모양새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상도 주지만 의젓하고, 침착한 인상으로 감정의 컨트롤이 있으며 심지가 확실하다. 또한 귀여우면서 어리숙한 인상이며, 너무 심한 경우 아파 보이거나 눈의 모양까지 세모진 형태로 보일 수 있다. 주름이 많은 경우는 나이도 들어 보이며, 나약해 보일 수도 있다.

① 아이 샷도우 : 눈 앞머리에서 눈 꼬리까지 라인을 살려 눈 꼬리에 포인트 컬러를 폭 넓게 펴 발라 줌으로 시선을 상향 방향으로 올려 준다. 눈 꼬리 밑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효과적이다.

② 아이 라인 : 눈 머리는 가늘게, 위 눈 꼬리부분을 굵게 강조해 올려 그려 주며 아래 눈 꼬리 부분도 위의 라인과 교차되듯이 올려 그린다.

③ 눈썹 : 가늘게 그리고 올려주는 느낌으로 그린다.



그림41. 처진 눈

7) 짝 눈

두 눈 가운데 어느 한 쪽이 크거나 작아서 서로 같지 않게 생겼다. 사람의 두 눈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좌우대칭인 경우는 없다. 단 어떤 형태이든 양쪽 눈의 차이가 심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격하고, 외고집이며 제 멋 대로이므로 큰 쪽의 눈에 맞추어 좌우의 밸런스를 아이 샤도우로 맞추면 대인 운도 좋아진다.

양쪽 눈 어느 눈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아름다운 눈인가를 판단하고 예쁘지 않은 눈을 수정하여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이때 정상적인 눈도 그렇지 못한 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약하게 또는 강한 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짝 눈의 느낌이 수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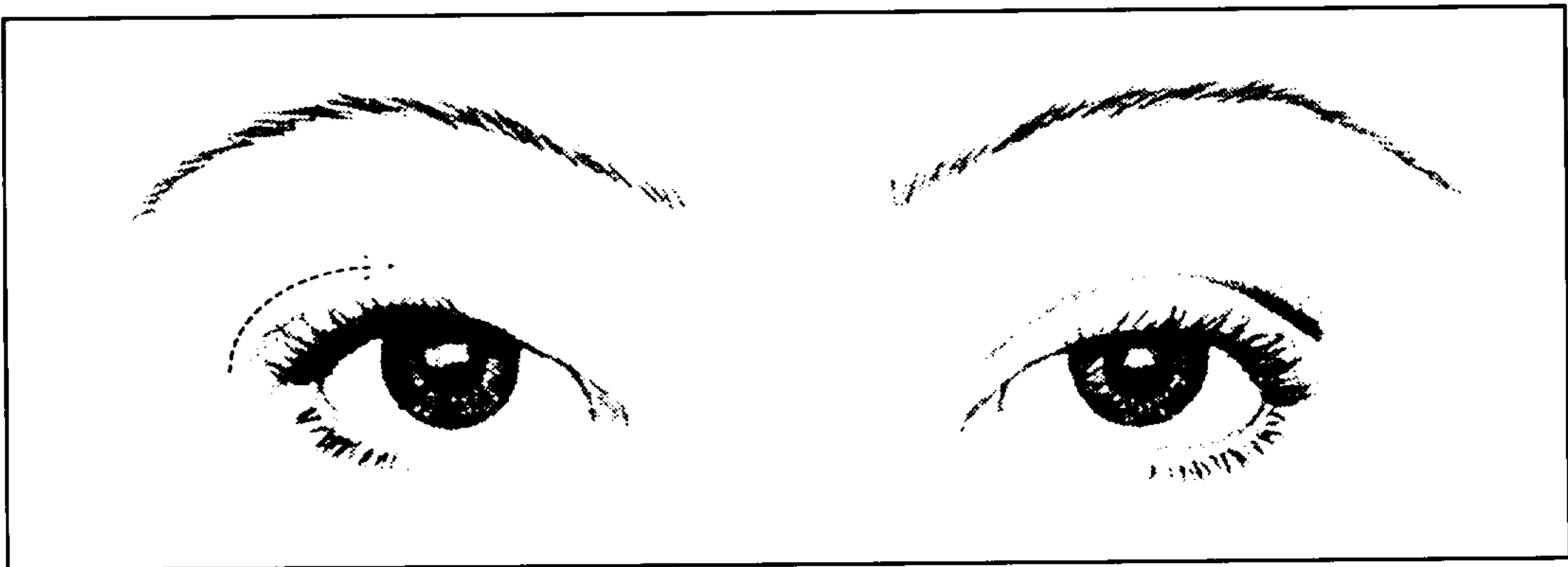


그림42. 짝 눈

V. 結 論

이상에서 본 연구는 눈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부분이 얼굴이다.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이 눈이라 할 수 있다. 또 그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어서 눈이 인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학에서는 얼굴 전체를 100으로 규정한다면 눈은 50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눈의 이미지는 형태가 바뀌면서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눈이 가지고 이미지를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메이크업 기술이다. 즉, 간단한 수정 화장법만으로도 형태변화를 주어 눈의 이미지, 그리고 얼굴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데 외모 중에서 특히 얼굴을 통한 일차적인 판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굴은 선천적인 외모는 물론, 표정이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있는 모습으로 연출되기도 하므로 이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메이크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둘째,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인간 개인의 운명에 관여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한국인은 전래적으로 인상학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얼굴과 성격의 상관성을 밝힌 바 있고, 동양의 경우는 약 2천년 전 중국 동주(東周)시대에 숙복(叔服)이 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문헌이 전해지고 있다. 인상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리되었고 관찰대상에 대한 느낌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일차적으로 사람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눈의 형태를 인상학적 담론을 근거로 하여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사람의 인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와 눈, 코, 등 각 부위와의 균형이다. 즉, 얼굴의 균형(Face proportion)이 선결 문제다.

균형이란 얼굴전체 모양에 균형이 잡혔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얼굴 전체에서 받는 인상에 눈이나 코 등 각 부위가 알맞게 매치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인상학에서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얼굴로 보고 이마, 눈, 코, 입, 귀, 눈썹 등이 균형을 갖추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요소들이 긍정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얼굴의 인상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이 눈이라 할 수 있다. 눈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눈의 형태를 눈의 크기, 쌍꺼풀의 유무, 미간의 넓이, 안구 돌출 여부, 눈의 모양, 눈꼬리의 각도, 양쪽 눈이 다른 경우 등, 15가지 모양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눈의 형태가 얼굴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메이크업의 기법, 즉 아이 샤도우, 아이 라인, 마스크라, 눈썹의 형태에 의해 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굴의 한 요소인 눈의 형태만으로 얼굴의 인상을 완전히 좌우 할 수는 없다. 다만 얼굴의 한 요소로서 미묘한 시각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인상에 가깝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인지하여 느끼는 인상은 주관적이지만 그 인상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들로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요인, 예를 들어 눈, 코, 입의 형태들 또한 얼굴의 인상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와 함께 또 다른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얼굴의 인상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얼굴의 형태와 그에 따른 각 요소들에 관한 인상학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얼굴의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한다면 새로운 얼굴의 인상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강경화,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 강덕구, 한·일어 신체어 어휘소의 다의 구조 연구: 얼굴·눈·머리를 중심으로, 동아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강병석,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4.
- 고미야 스스케 저·정현우 편역, 사랑의 인상학, 명문당, 1995.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994.
- 김문기, 얼굴로 보는 평생 운명학, 가교, 1994
- 김봉인, 化粧行爲의 주관성에 관한 實證的 研究,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4.
- 김성현,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1992.
-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김영자, HOW TO MAKE-UP, 열 두 사람, 1998.
- 김태미, 한국인의 얼굴이미지 표현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 김효정, 메이크업, 학연사, 1999.
- 김희숙,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8
-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 노선옥,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연구, 1997.

- 박윤심, 1950년대 영화 의상과 메이크업의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0.
- 박정훈,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개성 연출을 위한 토탈 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0.
- 송요섭, 현대소비자 행동론, 법문사, 1986.
- 申 一, 觀相學全書, 동양서적, 1977.
- 신기원, 초보자를 위한 관상학, 대원사, 1991.
- 신단주, 메이크업 아카데미, 1996.
- 신지현, 신 미용학개론, 수문사, 1997.
- 안태영, 安龜의 얼굴사전, 명문당, 1995.
- 오근재, 영상기호로서의 눈의 표정에 관한 연구: 인상학적 담론에 근거한 얼굴형과 구조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1999. 2.
- 옥미나, 얼굴표정 표현에 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왕석구, 왕석구의 특특 튀는 메이크업, 진리탐구, 1999.
- 윤명중, 얼굴의 미학, 동학사, 1989.
- 李炘河, 눈썹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정환, 얼굴보고 사람을 아는 법, 도서출판 상아, 1995.
- 이혜성, 메이크업, 정문각, 1996.
- 이화순, 한국여성의 Make-Up 造形性에 관한 研究 -얼굴형에 적합한 化粧色調와 線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정현우,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인상학, 자유시대사, 1994.
- 조기여·이화순, 한국미용학회지, 1998.
-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주) 사계절 출판사, 2000.
- 조은별,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최영순, 가정인상학, 명문당, 1989.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刊, 분장, 공연 예술서적 전문 출판사 예니, 공연예술총서
⑤, 1996.
-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아쥬 예술, 청구 문화사, 1999.
- 허걸, 의약정보, 1996.
- Gyorgy Keps. 시각언어 -유한대-, 대광서림, 1983.

[外國文獻]

- Buddy Westmore, 「The Westmore Beauty Book」, USA.
- Corson, Richard, Fashions in Make-up, London: Pater Owen, 1972.
- Corson, Richard, Stage Make-up, New Jersey: Prentice Hall, 1990.
- Francois Boucher, 20th years of fashion, Harry & Abrams inc, Publishers
Jean pierre Fleurimon, Paris; Frison-Roche, 1987.
- John Ligget, The human Face, New York: Stein and Day, 1974.
- KEVYN AUCOIN, The Art of Make-up, Harper Collins Publisers, 1996.
- KEVYN AUCOIN, making faces, Little, Brown and Company, 1997, Boston
New York Tronto London.
- Marian L.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 new Jersy, 1980.
- 別冊 週刊女性, (アイメイク) テクニック事典, 主婦と生活社, 1992.
- マダム路子, 男も女も魅力顔を創る, プロスパー企劃,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Eyes Make-up on Physiognomy in Face

Kwon, Kyung Ae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Physiognomy is well known to judge a person's character by the face. Physiognomy is to read a person's character not only by the face but also by the hands, frame, head, arms, legs, chest, back, abdomen, waist, hair and even the whole body.

However this study is focused on rather the effect of the make-up than the philosophical aspect.

Thinking of someone usually someone's face comes first. It shows that the eyes can be very important part of the face.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physiognomy a lot depends on the eyes. Those who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most likely want to have plastic operations on their eyes. It tells how important the eyes on physiognomy. How can

physiognomy be improved without any plastic operations? That method could be the make-up. Small changes in the make-up can change not only the images of eyes but also the image of the face. In the physiognomy, out of 100 face the eyes can be considered 50. It tells how important the eyes are on the face in aspects of physiognomy. The shapes of the eyes affects a lot on the face and decides the image of the face.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shapes of the eyes in the applications of the theory of physiognomy.

This study is consisted of the five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ion. The first chapter includes the objectives and the method of this research, the second chapter explains the term and the necessity of the make-up. In addition, it includes the category of physiognomy and preliminary elements, that is, forehead, eyebrow, eyes, nose, mouth, chin, ears.

The third chapter analysed the images of the face in terms of physiognomy and the judgement of facial features in the common sense. This research also analysed the shape of the face in the aspects of both physiognomy and make-up.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ages and the shapes of the eyes, the followed analyses were carried out : physiognomy analysis, medical analysis, reflection symbol analysis: the name of the eyes in general, the sizes of the eyes, the angles of the eyebrows, the balance of the two eyes, the distance of the two eyes, the existence of the double eyelid and the differences of the two eyes in the aspects of physiognomy and the make-up. These analyses were presented by the 15 different shapes of eyes.

The fourth chapter includes how the make-up on eyes can change

the image of the face depending on the sizes of the eyes, the existence of the double eyelid, the distance of the two eyes, the protrusion of the eyeball, the shape of the eyes, the differences of the two eyes. It also includes studies of the changes of the make-up on the face depending on the categorized types of the eyes.

In the fifth chapter, it was discussed there was a strong possibility of the effects of the make-up on the images of the fac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the followed purposes: to study the basic terms of the make-up and physiognomy to create the beauty of the human being, to analyse the effects of the make-up on the shape of the eyes, and to study the effects of the make-up on the images of the face. Previous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general theory and the effects of the Korean make-up on the face. In comparison, work experience was presented.